

사 회 과 학 론 문 집

2 0 0 2 년

제 15 호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사회과학논문집

-제 15 호-

제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차 례-

활동소식

소식 1	사협지부들의 활동 활발- 서서히 그러나 눈에 띄게	5
소식 2	사협대표가 《동해》명칭 관련 국제세미나에서 토론	7
소식 3	긴급심포زم 《재일조선인의 시점에서 평양수뇌자회담의 의미를 생각한다》 진행	8

론 문

《동해》명칭 관련 국제세미나에서의 사협회장의 토론	김화효(10)
조선반도 동쪽바다 이름에 대한 고찰	최근섭(13)
조선반도 동쪽바다와 그 주변해역들의 지명에 대한 지리학적고찰	림건목(22)
조선시대의 동해인식에 관한 연구	리상태(27)
조선동해호칭문제소고	사공준(36)
민족과 민족분제의 본질에 대하여	강민화(53)
랭전후 민족분제의 새 양상과 《세계화》책동	고연의(65)
최근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조치에 대한 잠정적해석(1) -전반적가격과 생활비의 개정조치를 중심으로-	강일천(74)
《망부석》전설소고	박순애(84)

《사협지부들의 활동 활발 – 서서히 그러나 눈에 띄게!》

올해 2월에 있는 사협중앙리사회 제16기 제2차회의 확대회의 이후 각지 사협지부들에 서는 《서서히 그러나 눈에 띄게》라는 구호밑에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협지부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신의 임무와 사명을 깊이 자각하고 다방면적인 활동을 벌리고 있는 사협지부들과 회원들의 활동의 일부를 소개한다.

사협 조대지부에서는 5월 14일에 임시총회를 가져 새로 강성은(력지학부 학부장)씨를 지부회장으로 선출하였으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협지부활동을 활성화하는데 힘을 돌리고 있다.

지부에서는 사협중앙에서 조직한 심포지엄출연, 지부적인 연구회 조직, 회원들의 논문집필과 발표(사회과학논문집, 조선대학교 학보, 정경론집) 등 회원들을 주인으로 내세워 사업을 적극 벌리고 있다.

사협 도끼지부에서는 김종진회장을 비롯한 리사들이 이제까지의 사업경험에 토대하여 해설선전사업, 조국통일사업, 민족단합사업, 대외사업과 학술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조직전개하고 있다.

지부에서는 《朝鮮式社會主義의 基本方式》를 비롯한 4가지 종류의 해설집을 만들어 300부 보급하였으며 아이찌강제행진상조사단사업, 제1회 아시아청년평화통일포럼, 조선통신사연구회, 일조고대사학습회, 제14차 아이찌 사마-쎄미나 등에 보고자, 강사로 출연하는 한편 여러 기회를 리용하여 조국통일사업, 대외사업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김종진지부회장의 인터뷰기사가 통일뉴스(2002.8.28)에 게재됨.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4&subid=1&articleid=22216>)

사협 오사까지부에서는 송화중회장을 비롯한 리사들이 제16기 사업계획을 면밀히 짜고 연구회사업의 정례화와 수준 제고, 새 세대 사회과학자들을 비롯한 회원확대, 지부사업의 대중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 벌리고 있다.

지부에서는 《모든 상임들은 연구회에 앞장서 참가하자!》는 구호밑에 이미 7번에 걸쳐 연구회를 조직진행(9번 예정)하였으며 회보발간(제12-올해 5월), 심포지엄(올해 11월 예정), 력사유적, 유물탐사참관사업, 회원야유회와 리사친목회의 조직 등 다양한 행사를 적극 조직진행하고 있다.

사협 교토지부에서는 작년 7월에 있는 제3기총회 이후 오명몽회장을 비롯하여 리사들의

열성에 기초하여 리사회의 정례화와 회원상호간의 협의마당을 마련하는데 많은 힘을 돌리고 있다.

올해 1 월 西宮市立教育会館에서 지부역원이 출연하여 일본의 교수, 교원, 지식인들 52 명을 대상으로 《浮島丸事件》에 대한 강연을 진행한것을 비롯하여 나고야시와 기후현에서 조선인강제련행진상조사 조일전국협의회에서의 토론 《ウトロ토지문제》의 총련, 민단협동조사와 공동성명의 발표, 일본마스코미의 편향보도를 시정시키기 위한 항의단사업, 舞鶴港에 입항한 《만경봉-92》 선장초대연을 통한 대외사업, 《사협회보》 제5호(2002년 9월 30일 출판)의 출판 등 지부역원들과 회원들이 다방면적인 사업을 적극 벌리었다.

사협 호고지부에서는 올해 2 월에 학술장려상을 수여 받은 영예도 드높이 권수근회장을 비롯한 리사들이 연구부회사업과 연구논문집 및 책출판보급사업을 정력적으로 벌리고 있다.

《동포생활문제연구회》, 《통일문제연구회》, 《호고현조선인운동사연구회》를 비롯하여 연구부회들이 연구회를 매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서민주 《동포생활문제연구회》대표의 21 번을 최고로 강연활동도 정력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특히 지부에서는 연구부회들에서 이룩된 연구성과를 집대성하여 《생활과 사회과학》 제 6 호(올해 11 월 출판예정), 《호고조선인운동사》(래년 3 월 출판예정)를 출판보급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 기간 회원들이 집필한 여러 권의 책이 출판되었다.

김덕룡저 『朝鮮學校の戦後史 1945-1972』 (社会評論社)

박삼석저 『海外コリアン』 (中央公論社)

리영수저 《릉남산에 새겨진 청춘의 별》(학우서방)

각지부와 사협회원들이 벌리고 있는 활동의 일부를 통하여서도 우리는 사협이 대중적인 학술연구단체, 학술운동조직, 학술교류센터로서 그 면모를 일신해 나가고 있다는것을 긍지높이 말할수 있다.

각지부와 모든 회원들은 조선반도정세가 급변하고 조국통일실현과 재일동포들의 생활에서 극적인 변화가 이루어 질 확고한 전망이 펼쳐진 오늘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누구보다 먼저 포착하고 그를 앞장서 개척해 나가는 시대의 선각자, 선봉대로서의 자체 사명을 더 깊이 명심하여 재일동포사회과학자로서의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것이다.

사협대표가 《동해》명칭 관련 국제세미나에서 토론

지난 7월 24·26일에 걸쳐 로씨야 울라지보스토크에서는 로씨야 과학원과 남조선의 사단법인 《동해연구회》가 주관이 되어 해양명칭에 관한 국제세미나가 조직되었다.

이 세미나에는 우리 나라 북남대표와 로씨야, 중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6 개나라에서 44 명이 참가하였으며 25 편의 보고 및 토론이 있었다. 이중 사협논문집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대표의 논문 2 편과 재일조선사회과학자대표의 1 편의 논문과 1 편의 토론 그리고 남조선 대표 1 편의 논문을 소개하겠다. (내용은 별지)

△ 세미나가 진행된 배경

오늘 국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계지도의 거의 전부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북남조선은 1991 년 유엔동시가맹후 유엔의 전문회의 등에서 이 표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동해에로의 개칭을 주장해 왔다.

해도의 국제지침을 정하는 《국제수로기구 (IHO) 》는 세계 해도작성의 표준이 되는 《해양의 경계》 제 4 차 개정판 발간을 앞두고 일본해 단독표기 지도삭제안을 가맹 72 개국에 제안하고 있었다.

또한 지명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도 관련당국이 협의되지 않고 있는 지명에 대해서는 두개 지명을 동시에 병기하기로 하고 있다.

IHO는 북남조선의 항의와 관련국가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서로 다른 이름을 병기할것을 권고한 자체결의 등을 고려하여 제 4 차 개정판에는 동해해역부분 페이지를 백지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1 월말까지 이에 대한 회원국 찬부투표를 실시하던 중이었다.

세미나 참가자들은 제 3 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 결정에 따라 새 명칭이 합의될 때까지 《동해/일본해》로 병기되어야 한다는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세미나합의서를 채택하고 그것을 유엔지명통일회의와 국제수로기구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일본정부당국자들은 제 16 차 국제수로대회 토의결정을 거부하여 이번 국제세미나에 단 한명의 학자도 참가시키지 않았다.

△ 최근 보도에 의하면 국제수로기구가 제 4 차 개정판 발간을 앞두고 내놓던 일본해 단독표기 지도삭제안을 돌연히 철회하였다고 한다.

우리 쪽에 매우 유리하게 전개되는 듯하던 논의가 일본쪽의 강력한 로비에 밀려 뒤집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우리들은 국제수로기구가 잘못된 결정을 시급히 취소할것을 요구한다.

긴급심포슘

《재일조선인의 시점에서 평양수뇌회담의 의미를 생각한다》 진행

지난 10월 1일 저녁 6시부터 8시 40분까지 中央大學駿河台記念館에서 사협주최 긴급심포슘이 진행되었다.

이날 회장에는 태풍 21호가 간도지방을 직격하는 속에서 말그대로 폭풍우속을 뚫고 60명을 넘는 사협회원, 총련일군들과 동포들 그리고 남조선류학생들과 일본사람들이 모여 들었다.

림왕호선생(사협중앙리사회 상임리사)의 사회로 시작된 심포슘은 시종 긴장되면서도 열기 띤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심포슘에서는 먼저 한계옥선생(오사카 경제법과대학 객원교수)이 《평양수뇌회담의 의의와 그 배경, 금후 전망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기초보고를 하였다.

한계옥선생은 조일평양선언의 기본정신과 기본원칙, 매 항목들의 내용과 특징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이번 선언이 조일관계의 정상화는 물론 조국의 통일과 북동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 경제, 문화발전과 새 세계건설에서, 그리고 재일동포들의 법적지위와 생활,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며 새 세기 화목하고 유족하며 힘있고는 동포사회건설에서 획기적인 계기를 열어 놓은 역사적인 선언으로 된다는것을 강조하였다.

이어 강성은선생(조선대학교 역사지리학부 학부장)이 조일간의 역사문제와 현안문제, 강일천선생(사협중앙리사회 상임리사)이 공화국의 경제개혁과 조일관계문제, 엄정언선생(조선신보사 편집국 부국장)이 평양수뇌회담과 조일, 조미관계의 금후문제를 가지고 각각 발언하였다.

심포슘에서는 마지막으로 조일 두 나라 인민이 온갖 난관을 뚫고 가깝고도 가까운 관계의 구축, 새로운 역사의 개척을 위하여 서로 힘을 합쳐 나갈것을 열렬한 박수속에서 일치보았다.

이번 심포슘은 우리가 일본에서의 일부 편향적인 보도에 현혹될것이 아니라 평양선언발표가 가지는 거대한 역사적의의를 정확히 인식하고 선언의 성실한 리행을 위한 사업에 주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데서 주요한 계기로 되었다.

「ピョンヤン首脳会談の意味を考える」

緊急シンポに参加して

既報のように、緊急シンポジウム「ピョンヤン首脳会談の意味を考える」が1日行われた。

当日は、台風21号が接近しつつある悪天候にもかかわらず、会場は満席となった。

基調報告を行った韓桂玉大阪経済法科大学客員教授は、「ピョンヤン首脳会談の意義とその背景、今後の展望について」と題し、朝・日平壤宣言の内容に触れながら、日本の対朝鮮政策は正の必要性について話した。

韓氏は、倭寇、豊臣秀吉の侵略から1875年の江華島事件に始まる朝鮮侵略と植民地統治、関東大震災時の朝鮮人虐殺など、日本が歴史的にとってきた対朝鮮政策について言及した。また、朝鮮戦争時の後方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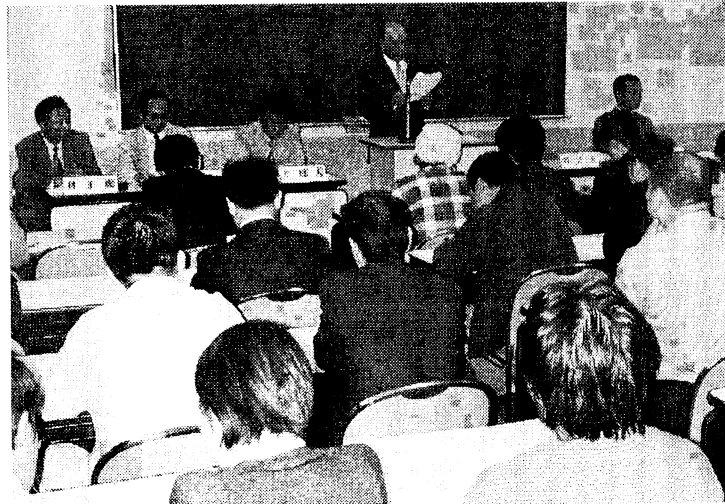
援や「韓日条約」締結後、一貫して日本が朝鮮に対し敵視政策をとってきたことを指摘、南でも「韓日条約」破棄の声が高まっていると述べた。

そのうえで韓氏は、朝・日関係改善の力ぎは日本の過去清算であり、朝・日問題に冷静に対処していくことがたと指摘した。

日本の歴史的な対朝鮮政策に関しては、康成銀朝鮮大学校歴史地理学部教授も克服すべき3つの過去として、▼1894年に始まる朝・日間の非正常な関係▼50年の朝鮮戦争勃発時からの非正常な関係▼65年の「韓日条約」締結からの非正常な関係——をあげ、これらの歪んだ関係は、すべて日本が作り出したものだを指摘した。

とくに康氏は「韓日条約」の問題性について、村山首相の戦後50年談話や98年10月の「韓日共同宣言」などに反映されている

在日として何をすべきか



台風にもかかわらず満席となったシンポジウム

及した。これについて姜氏は、経済管理方法の改善は分権化、市場的調整の方向に進んでおり、これにより国際経済との親和性が増し、新義州特別行政区にしてもこれまで着々と準備を進めてきたものでその効果は絶大だと話した。

そのうえで、日本が朝鮮との関係改善に乗り出したもうひとつの大きな動機は、鉄道と道路、通信やガスのラインで結ばれた成長の北東アジアの要に位置するの、朝鮮半島であったことだと分析した。

基調報告やコメントでも言及されたように、大局的に見れば、小泉首相の訪朝と朝・日平壤宣言の発表により、両国関係は改善へ向けて大きな一歩を踏み出したと言える。この現状を在日朝鮮人としてどのように受け止め、何をなすべきかということであらためて考えさせられたシンポジウムだった。(李松鶴記者)

우라지보스토크에서의 토론

김화호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의 김화호입니다.

저는 먼저 우라지보스토크에서 열린 《東海》 명칭 관련 국제세미나에 저희들, 재일조선 사회과학자들을 초청해주신데 대하여 (사단법인) 동해연구회의 김진현회장님과 로씨야과학원 극동지리연구소의 간제이박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제세미나에서 훌륭한 연구성과를 발표하신 보고자 여러분들에게 마음속으로부터 경의를 표합니다.

이들간에 걸친 연구토론을 통하여 지금 《日本海》로 되고 있는 표기를 《朝鮮東海》로 변경해야 한다는 우리들의 주장이 얼마나 정당한가 하는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사람들은 아득한 옛날부터 (말하자면 3 국시대부터) 오늘까지 이 해역을 《朝鮮海》, 《東海》라고 불러 왔습니다. 《日本海》라고는 단한번도 부른바가 없으며 또 그렇게 표기된 역사적자료도 없습니다.

물론 과거 역사를 볼때 이 해역을 《조선해》, 《高麗海》, 《동해》 또는 《일본해》등 여러가지로 표기된 수많은 지도가 있었다는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17 세기의 세계지도에서도 벌써 《일본해》라는 기술이 있었다는것을 근거로 하여 일본학자들속에는 《일본해》라는 호칭이 일제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의 결과 생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해》란 方位를 나타내는 말이지 실제 존재하지 않았다는니 왜 당신들은 일본이라는 말에 그렇게 구애되는가고 우리들을 나무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싶이 이 류역의 지도의 완성과 《일본해》호칭고정화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논것은 독일인의 의사 씨-볼트였습니다.

그는 1832 년의 연구보고집 (일본) 의 제일부에서 日本德川幕府天文方 高橋景保 (카게야수) 의 《日本邊海略圖 (변해략도) 》 (1809) 를 번역게재하였을뿐 아니라 1841 년에는 《일본인의 原圖 및 天文觀測에 기초한 일본國圖》를, 1842 년에는 《일본국 陸海海圖帖》을 간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지도가 伊能忠敬 (이노다다타카) 와 그 제자인 間宮林藏 (마미야린조) 의 實測 (실제로 제운것) 에 의한것으로서 당시로서는 가장 정확한 지도였습니다. 이것으로 하여 그들의 이름과 더불어 《日本海》라고 잘못 표기한 지도가 유럽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高橋景保의 《일본변해략도》에서는 조선의 령해부근에 《조선해》라고 표기되고 있는것을 씨-볼트의 번역도에서는 일본령해부근에 《일본해》라고 표기하였습니다.

씨-볼트에게 이 지도를 제공한 죄로 高橋景保는 처형되었습니다.

《조선해》라고 표기한 그의 《新訂萬國全圖》(1810년)를 德川幕府天文方の 山路유기다카는 1855년에 改正한 《重訂萬國全圖》에서 《조선해》를 《일본해》로 바꾸고 있습니다.

《征韓論》이 대두하는 1870년경을 경계로 하여 《일본해》표기의 지도가 붙어 나고 그 후 조선에로의 침략정책이 본격화되는속에서 일본에서는 모든 교과서와 지도가 《일본해》로 되고 1910년의 《한일합병》에 의해서 그것은 결정적인것으로 되었습니다.

유럽의 지도에서는 씨-볼트이후 다시 말하여 19세기 중엽에 《일본해》표기가 고정화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조선해》인가 《일본해》인가의 호칭문제는 지리학상의 문제이기는 하나 단순히 그것으로서 그칠 문제가 아니라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북남 우리 학자들이 이 문제를 과거의 일본식민지통치의 후과청산문제로 보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것은 자극히 정당한것이라 말해야 할것입니다.

저는 이남의 우리 학자들이 1970년대에 1923년 2월의 國際水路機構(IHO)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결정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1992년 8월 28일의 UN地名통일회의에 《동해》호칭문제를 상정시킨것은 자극히 정당한것이라고 봅니다.

그 후 1994년 11월 9일에 (사단법인) 《동해연구회》를 발족시키고 연구회를 오늘까지 계속해 왔으며 IHO회의에 대하여 《일본해》표기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동해》로 표기할것을 공식요청해 온데 대하여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보내는 바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1993년 7월 6일에 있는 사회과학원의 력사 및 지리학자에 의한 심포쥘에서 지금 《일본해》로 되고있는 표기를 《조선해》 또는 《조선동해》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북남학자들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 1998년 1월 13일의 제3차 UN지명표준화회의에서는 새 명칭이 합의될 때까지 복수명칭으로 병기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당국자들은 이 토의결정을 거부해 나섰습니다.

공화국의 《로동신문》은 1월 30일부 론평에서 《일본이 토의를 거부한것과 관련하여 조선동해의 《일본해》표현은 주권침해행위라고 규탄하였습니다.》

199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영국 부리타리카 백과사전》, 세계적인 지리전문잡지 《나쇼날 지오그라피》를 비롯하여 조선동해표기의 지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당국은 세계의 이러한 흐름을 무시하듯이 올해 1월말에는 외무성과 海上保安庁의 담당자를 모나코의 IHO사무국에 파견하여 《國際海圖案內》제 4판의 출판연기를 요청하는 비렬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일본은 《병기》할것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북남학자들과 해외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의의깊은 이 국제세미나에 일본학자도 단 한명도 참가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유감하게 생각하며 일본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기도 합니다.

혹시나 하면 일본학자들의 불참가에는 정치적압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정부당국은 패전후 57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도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하기는 커녕 그 최대의 희생자라고 할수 있는 재일조선인을 《치안대상》으로 보면서 민족적차별정책과 동화정책을 집요하게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다시말하여 일본정부당국은 한편으로 재일조선인을 계속 사회적으로 차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차별이 싫으면 일본사람으로 귀화하라》는 식의 동화정책을 쓰고 있는것입니다.

최근년간 《自虐史觀》의 대두와 타민족멸시의 《새로운 력사교과서》 편찬놀음, 《신가이드라인 관련법》 등 일본이 국수주의로 나가는 경향은 더욱 짙어져 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9월에 있는 동시다발테로사건후 이 경향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바다표기는 대륙을 기준으로 하며, 반도와 섬 사이의 바다는 반도명 또는 반도의 국명이 사용되고 있다는 국제관례로 보아 응당 조선동해로 호칭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일조선사회과학자들은 《동해》의 호칭문제는 일제에 의하여 빼앗긴 고유한 이름을 되찾는 민족자주성 회복문제로 간주하고 조국북남 학자들과 함께 《일본해》 표기를 《조선동해》로 변경시키는 투쟁에 이바지해 나갈것입니다.

(2002.7.25)

조선반도 동쪽바다 이름에 대한 고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로국 부국장, 대좌
최근섭

지난세기말부터 조선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있는 바다의 명칭표기문제를 놓고 지명표준화에 관한 유엔대회와 유엔지명전문가그룹회의, 국제수로대회 등 여러 국제회의들에서 일련의 의견과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에 국제수로기구에서 국제수로기구출판물인 S-23 《대양과 바다 경계》(LIMIT OF OCEANS AND SEAS)를 재판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지난세기에 《일본해》(SEA OF JAPAN)로 그릇되게 명명표기된 조선반도 동쪽바다의 이름도 이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전통적으로 불리워 온 고유한 원명(본래이름)대로 《조선해》 또는 《동해》로 고쳐서 표기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날로 더욱 높아 가고 있습니다.

제15차 국제수로대회 후 국제수로기구출판물 S-23 《대양과 바다 경계》의 개정문제를 놓고 여러가지 의견과 논쟁이 분분하였으며 지난 4월에 진행된 제16차 국제수로대회에서도 조선반도 동쪽바다이름을 본래이름대로 표기해야 한다는 문제가 상정되어 국제적인 지지와 공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오늘 새 세기에 와서 지난세기에 그릇되게 명명되었거나 부당하게 표기되었던 바다이름을 비롯한 일련의 지리적명칭들을 다시 검토하고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것은 오늘 국가들 사이의 선린, 우호 관계를 발전시키며 인류의 문명과 여러 분야의 과학을 발전시키는 데서 매우 중요하고도 절박한 시대적과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오늘 이미 진행한 지명의 국내표준화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더욱 공고발전시켜 나가면서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바다의 명칭을 비롯한 주요 지명들에 대한 국제적표준화를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명에 대한 연구분석과 표준화 사업을 심화시키는 과정에 조선반도와 일본열도사이에 있는 바다의 명칭이 지금까지 《일본해》로 그릇되게 명명표기된 데는 심각한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사료적으로, 학술적으로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사회의 이른 시기부터 20세기초엽까지 역사적으로 《조선해》, 《동해》, 《동양해》로 불리워 온 조선반도동쪽바다의 명칭이 국제수로기구가 주관하는 국제해도(INT)에 그 원명의 고유한 의미와는 상반되는 《일본해》라는 부당한 이름으로 바뀌어 공식표기되

기 시작한것은 국제수로기구가 조직되어 8 년이 지난 해인 1929 년에 기구출판물 S-23 《대양과 바다 경계》가 편찬되게 된 때부터입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이 시기는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로 되어 있던 민족수난의 시기였습니다. 바로 이런 기회를 리용하여 당시 일제는 국제수로기구에서 대양과 바다의 명칭에 대한 공식표기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을 때 조선반도의 동쪽바다이름을 력대적으로 불리워 오던 고유한 명칭은 완전히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일본해》라는 당치 않는 이름으로 명기되도록 하였던것입니다.

이처럼 지난 20 세기력사가 실증하는 바와 같이 제기되고 있는 《일본해》명칭문제는 철두철미 과거 일본에 의하여 산생된 식민지적 산물입니다.

원래 고유한 지리적대상들의 이름을 명명하거나 표기하는데서는 예로부터 해당 지역에서 대대로 살아 온 인민들이 널리 불러 오고 많이 표기되어 온 고유한 이름을 그대로 살려 쓰는것이 상례로 되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릇된 지명을 바로 잡는데서는 력사주의적원칙과 지리적(지역적)원칙을 지켜야 하며 국제적관례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지명의 발생론적 견지에서 볼 때 지리적대상들의 이름은 그것을 먼저 발견하였거나 개척한 사람들 또는 해당 지역의 주권국가가 명명하는것이 일반적인 관례나 원칙으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명연구에서 해당 지역의 력사, 지리, 고고학, 민족 등에 대한 연구도 중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세상에 널리 알려 진 바와 같이 아시아대륙의 조선반도동쪽에 있는 바다이름은 력사적으로 《조선해》, 《동해》, 《동양해》로 불리워 있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우리의 선조들은 구석기시대로부터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들에서 생활하면서 바다에 진출하여 물고기잡이와 상업거래를 비롯한 해상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류력사의 이른 시기에 벌써 조선반도주변의 바다들을 개척하였으며 그 과정에 자기들이 개척한 바다의 이름도 지어 부르게 되었던것입니다.

우리 나라의 고전문헌들을 고찰해 보면 조선반도의 동쪽바다이름은 이 바다가 우리 민족에 의하여 처음으로 발견되고 개척된 그 첫 시기부터 우리 선조들에 의해 우리 나라의 동쪽에 놓여 있는 바다라는 의미에서 《동해》로 명명되어 불리워 왔습니다.

《동해》라는 바다이름이 우리 나라의 고전문헌들인 《삼국사기》, 《삼국유사》, 《고려사》, 《리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는것만도 수백여개소(건)이나 됩니다.

이 가운데서 몇가지 기록만 보아도 《삼국사기》신라본기 권 14(고구려 민중왕 4 년조)에는 기원 47 년 9 월 《동해사람 고졸이가 고래의 눈을 바치였다.》고 밝혀 저 있으며 《삼국사기》신라본기 권 5(선덕왕 8년조)에는 기원 788 년 《7 월에 동해의 물이 붉어 지고 또 더워서 어족들이 다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삼국유사》 권 2 에는 신라국가의 30 대왕인 문무왕(기원 661~681 년)이 림종 때 《나를 화장하여 동해에 묻으면 나라를 지키는 룡이 되겠다.그러니 장례는 동해의 큰 바위에서 치르도록 하라.》고 유언하였으며 이 유언에 따라 그의 아들인 신문왕(681~692)이 기원 681 년 7 월에 동해의 바다물속에 왕릉을 건립하고 그 안에 선대왕의 유골을 안치하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상북도 월성군 양북면 봉길리 앞바다에 있는 이 수중왕릉은 둘레가 100M 가량 되는 바위섬을 인공적으로 가공하여 만든 바다물속의 천연구조물인데 오늘도 그곳에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로부터 조선반도의 동쪽바다이름을 우리 선조들이 《동해》로 불러 왔다는 역사적기록들은 우리 나라의 고전략사문헌들뿐 아니라 고전적인 지리지와 소설, 시와 가요, 사화와 전설, 성구와 속담 등과 같은 우리의 다른 민족문화유산자료들에서도 무수히 찾아 볼수 있습니다.

우에서 본 바와 같이 《동해》라는 바다이름은 인류사의 첫시기에 조선반도의 동쪽바다를 처음으로 개척하고 리용한 슬기로운 우리 선조들이 지어 부른 고유한 전통적 명칭입니다.

일찍부터 자연과 사회를 개조변혁하는데서 진취성이 강했던 우리의 선조들은 인간생활에서 지도의 중요성과 의의를 앞서 인식하고 이른시기에 벌써 지도를 만들어 널리 리용하였을뿐 아니라 지도들을 다른 나라들에 보내 주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고전문헌인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령리왕이 기원 628 년에 고구려지도를 당나라에 보내 주었다는 기록이 밝혀 저 있습니다.

이런데로부터 우리 나라의 고지도문헌들에는 조선반도의 동쪽바다명칭이 《동해》라는 이름으로 밝혀 저 있는것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부만 보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1463 년에 제작된 《팔도총도》에 조선반도의 동쪽바다이름이 《동해》로 표기되어 있으며 1700 년대에 편찬된 우리 나라 관동지도인 《서북계도》와 《아국총도》, 《령암지도》 등과 18 세기후반기에 편찬된 《천하

도지도》를 비롯한 여러 지도들에도 《동해》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반도의 동쪽바다이름은 우리 조선사람들에 의해 처음으로 명명되어 고전 문헌들과 지도들에도 표기되면서 오랜 역사적기간 대를 이어 오며 《조선해》, 《동해》로 전통적으로 불리워 왔다는것이 명백히 실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바다명칭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는 과정에 조선반도의 동쪽바다이름이 주로 《조선해》, 《동해》, 《동양해》로 표기된것이 우리 나라와 일본의 지도들에만 아니라 해상활동을 일찌기 벌려 온 세계 여러 나라들의 지도들에도 많다는것을 확증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몇가지 사례를 보면 지금으로부터 750 여년전에 중앙아시아를 여행한 이탈리아의 카르피니(Carpini)가 쓴 《몽골견문기》(1245~1247 년)에 삽입된 《빈랜드지도》에 그려진 조선반도의 동쪽바다명칭이 《동양해》(MARE OCEANUM ORIENTALE)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15 세기 이후에 편찬된 세계의 수많은 고지도들에도 조선반도의 동쪽바다이름이 《조선해》, 《동해》, 《동양해》로 밝혀져 있습니다.

조선반도의 동쪽바다이름이 유럽의 지도에 《동양해》로 처음으로 표기된것은 이미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1245 년입니다.

우리 나라의 국호가 《조선》(COREA)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후인 16 세기 후반기부터 유럽의 지도들에는 조선반도의 동쪽바다이름이 《조선해》라는 명칭으로 많이 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몇가지 사료를 보면 1615 년 뽀르뚜갈의 지도작성자 고딘호 데 헤레디아가 만든 《아시아도》에 《조선해》(MAR CORIA)로 표기되었으며 1647 년 영국에서 출판한 로버트 듀들리의 《동아시아지도》에도 《조선해》(MARE DE COREA)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아니라 18 세기이후에 편찬된 일부 외국지도자료들을 분석한데 의하면 프랑스, 영국, 로씨야,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 지도들에도 《조선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반도의 동쪽바다명칭이 세계의 많은 고지도문헌들에 주로 《조선해》, 《동해》, 《동양해》로 표기되었음을 입증하는 사료들은 이밖에도 최근에 일부 나라들에서 새로 발굴된 지도문헌들에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시기 일본자체에서도 조선반도와 일본열도사이에 있는 바다를 20 세기초까지는 《조선해》, 《동해》로 표기해 왔었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입니다.

1794 년 일본에서 가쓰라가와에 의하여 편찬된 《아시아전도》에 《조선해》로 표기되었으며 1809 년 에도막부시기에 편찬된 《일본해략도》와 1810 년 다까하시 가케야스가 만든 《신정만국전도》에도 《조선해》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1810 년 산가와 존토가 편찬한 《염부제도부렬궁도》, 1847 년 가사꾸가 만든 《세계지도》, 1872 년 하시모토 교꾸란사이가 제작한 《대일본사신도》를 비롯하여 수많은 일본지도들이 20 세기초엽까지도 조선반도의 동쪽바다를 《조선해》로 표기하였습니다.

(사실상 일본은 원래 일본열도의 동쪽에 있는 바다에 《일본해》, 《대일본해》라는 이름으로 표기하고 일본열도의 서쪽에 있는 바다를 《조선해》, 《동해》라고 명기해 오다가 일본의 동쪽에 있는 바다가 세계적으로 《태평양》으로 명명고착되게 되면서부터 그 바다에 더는 표기할수 없게 된 《일본해》이름을 저들도 오래전부터 《조선해》, 《동해》로 명기해 오던 서쪽바다로 슬쩍 옮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때로부터 일본지도들에서는 조선반도와 일본열도사이에 있는 바다의 명칭이 《조선해》,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로 돌변하여 표기되게 되었습니다.

유럽의 지도들에 조선반도의 동쪽바다 명칭이 《조선해》 또는 《동해》라는 이름보다도 《일본해》라는 명칭으로 표기된것이 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기 시작한것은 일본의 《명치유신》이후인 19 세기말, 20 세기초부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시기부터 구일본은 자국내에서 《일본해》로 표기한 영문으로 된 지도들을 많이 출판하여 유럽에 류포시키는 한편 새로 편찬되는 지도와 출판물들에서는 조선반도동쪽바다의 이름을 《조선해》나 《동해》로는 밝히지 못하게 하고 《일본해》로만 표기하도록 하였던것입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지명학에서는 일정한 지리적 대상이나 지역(장소)의 이름을 새로 명명하거나 표기하는데서 력시주의적원칙을 지키는것과 함께 지리적(지역적)원칙과 국제적관례를 따르는것을 일반적 원리와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시기에 있었던 세계의 이름있는 바다들의 명칭을 설정표기한 전례들을 지리적(지역적)원칙과 국제적관례의 견지에서 분석해 보면 주로 대륙(반도)과 섬(호상열도)으로 련관시켜 명명표기한것이 일반적이며 보편적인것으로 되어 왔다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실례로는 국제수로기구출판물 S-23 《대양과 바다 경계》에 밝혀져 있는 주요연해들인 북해(NORTH SEA), 래브러도해(LABRADOR SEA), 중국동해(EAST CHINA SEA), 오흐츠크해(SEA OF OKHOTSK), 동씨비리해(EAST SIBERIAN SEA), 까라해(KARA SEA), 노르웨이해(NORWEGIAN SEA), चु치해(CHUKCHI SEA)등을 들 수 있습니다.

《대양과 바다 경계》출판물에 명기되어 있는 세계의 60 여개 바다들 가운데서 아시아대륙에 있는 조선반도와 일본열도 사이 수역의 경우와 같이 대륙(반도)과 섬(호상열도) 사이에 놓여 있는 17 개 바다들의 명칭들에 대해서만 비록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바다이름을 대륙의 반도를 기준으로 명기한것이 65%로서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밖에 탐험가의 이름과 연관시킨것이 18%, 바다의 색깔을 본딴것이 약 6%이고 섬(열도)을 기준한 것은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의 분석자료가 실증하는 바와 같이 바다이름 설정에서는 대륙이나 대륙의 반도를 기준하는것이 지리적(지역적)원칙과 국제적관례의 기본으로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바다의 명칭들을 해당 대륙이나 대륙의 반도에 있는 나라이름, 대륙이나 반도에 있는 나라들로부터의 방위, 대륙이나 대륙의 반도에 있는 도시나 유적유물, 강, 산 등의 이름에 준하여 정해 왔습니다.

우에서 고찰분석한 이 한가지 전례자료를 통해서도 아시아대륙의 조선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놓여 있는 바다의 명칭이 지금같이 《일본해》라는 이름으로 명기되어 있는것이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합당치 않는가 하는것이 충분히 납득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싶이 안다만제도, 니꼬바르제도와 만마사이에 위치한 바다의 이름은 20 세기 80 년대전까지는 《안다만해》라는 단독명칭으로만 명기되어 왔는데 그후 국제수로기구출판물 《대양과 바다 경계》의 5.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만마(버마)해 혹은 안다만해》(BURMA OR ANDAMAN SEA)로 개정되었습니다.

《안다만해》가 《<만마해> 혹은 <안다만해>》로 고쳐 불리우게 된 사실은 지난 시기 그릇되게 명명표기된 바다이름들을 시대적요구에 맞게 다시 고쳐 부르는것이 현시대에 와서 국제적추세나 시대적지향으로 되고 있다는것을 보여 주는 하나의 실례입니다.

지명분야에 남아 있는 낡은 사회적유물과 식민지적잔재를 말끔히 가서 버리는것은 현 세기에 와서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과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아는 바와 같이 과거 일본에 의해 일본식으로 명명되었던 《신경》, 《남양군도》를 비롯한 적지 않는 지리적명칭들이 제2차세계대전이 종결된 다음 《장춘》, 《멜라네시아》

와 《미크로네시아》 등과 같은 이름으로 다시 공식적으로 원상회복되었으나 일부 지명들은 오늘날까지도 그렇게 되지 못한채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문제시 되는 지명들의 사용실태를 보면 이 지명들이 국제기구의 지도(해도)나 출판물에서는 이전에 공식화된 이름으로 표기되고 있지만 해당 지역과 나라들에서는 대체로 그 이름으로 쓰이지 않고 그 지역 민족이나 나라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고유한 명칭대로만 명기되고 있다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조국이 광복된 다음부터 조선반도의 동쪽바다이름을 전 사회적으로 《조선동해》로 부르며 표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의 지리적 대상이나 요소의 명칭을 사용하는데서 서로 다른 불일치현상이 초래되고 상반되는 모순관계가 빚어 지게 된것은 결코 그 어떤 국제기구나 어느 한 주권국가의 잘못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지배와 예속이 성행하던 구시대의 강권과 전횡의 후과입니다. 이러한 구시대적유물과 식민지적잔재가 오늘의 새 세기에 와서도 완전히 가셔 지지 못하고 있다는것은 실로 유감스러운 시대적 수치가 아닐수 없습니다.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구일본의 일방적작용에 의해 부당하게 공식화된 《일본해》 이름을 포함하여 지난날 그릇되게 부쳐진 모든 지리적명칭들을 바로잡는 문제는 마땅히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되여야 할것입니다.

지리적대상이나 요소들의 명칭을 새로 정하거나 고칠 때에는 반드시 국제지명표준화 원칙과 지명설정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국제지명설정규정에는 다른 나라의 해안들을 반영한 출판물을 만들 때에는 주권국가의 보편적인 이름을 올리며 이 이름은 주권국가의 해도와 기타 항해문건의 새판 또는 개정판에서 얻으며 그 나라와 서신으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지적되어 있으나 지난시기 일본은 이 국제규정도 무시하였습니다.

이렇듯 조선반도와 일본렬도사이에 있는 바다이름을 《일본해》로 표기하거나 부르는것은 지명학적견지에서 볼때 완전히 비과학적인것입니다.

20 세기말엽부터 국제지리동맹과 유엔전지구환경계획개발부 및 유엔인도주의활동조정국과 같은 일련의 국제기구들과 미국, 캐나다, 로씨야, 도이칠란드, 영국을 비롯한 적지 않는 나라들에서는 《동해》 명칭의 합법칙성을 인식접수하고 조선반도와 일본렬도사이에 있는 바다명칭표기에서 《동해》와 《일본해》라는 이름을 동시에 쓰는 경향이 높아 가고 있으며 《동해》로만 단독표기하는 지도와 출판물도 날로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일본 자체내에서도 일어 나고 있습니다.

세계 사회제에서 이전에는 찾아 볼수 없었던 이러한 새로운 동향과 달라 진 지면상 표기 자료들은 《일본해》 명칭표기의 불합리성과 비과학성, 부당성을 현실 그대로 보여 주는것으로서 현시기 조선반도와 일본렬도 사이에 있는 바다이름을 원상대로 바로 잡는 문제가 더는 미룰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과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는것을 실증해 주는 산 실례로 된다고 봅니다.

이미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조선해》나 《동해》라는 바다이름은 일찌기 조선 반도와 그 주변에서 살아 온 우리 조선민족이 명명하고 장구한 력사기간 대를 물려 오면서 사용하고 있는 전통적인 고유명칭으로서 그것은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오래전부터 우리 강토의 동쪽에 있는 바다를 의미하고 대변하는 상징어로, 대명사로 굳어 져 있습니다.

이런 데로부터 우리 인민들은 언제나 이 바다이름을 끝없이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면서 누가 뭐라고 해도 추호의 동요도 없이 오로지 이 바다명칭만을 써왔으며 지금도 역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의 이러한 력사적전통과 민족의지는 앞으로도 영원히 변함이 없을것입니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조선반도와 일본렬도사이에 있는 바다의 이름은 인류사의 려명기에 우리 조선민족에 의해 처음으로 《동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으며 장구한 세월 사회력사의 흐름과 더불어 《조선해》, 《동양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워 온 전통적인 고유명칭으로서 이 바다의 그 어느 이름보다도 진리성과 합법성 그리고 객관성과 공정성이 풍부한 가장 합당한 지리적명칭입니다.

이와 반면에 《일본해》라는 바다이름은 이미 앞에서 론증한 바와 같이 원래 일본에 의해 일본렬도의 동쪽에 있는 바다의 명칭으로 명기되어 쓰이다가 그 바다가 세계적으로 《태평양》이라는 이름으로 공식화되면서 종말을 고했던것으로서 그 어느모로 보아도 타당성이란 찾을수 없고 학리와 관례에도 맞지 않는 그야말로 절대 부당하고 비과학적인 지명입니다.

이런데로부터 우리는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이 바다의 명칭이 그 원명대로 《동해》로 명기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선해》나 《동양해》같은 이름으로 개칭되어 공식표기되는것이 모든것으로 보아 자극히 당연하고 정당한것일뿐 아니라 매우 자연스럽고 공명정대한것이라고 보면서 오늘 이 국제회의연단을 통해 아직 부당하게 표기되어 있는 이 바다의 이름을 하루속히 《조선해》나 《동해》 또는 《동양해》라는 전통적인 고유명칭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것을 다시 한번 제기합니다.

조선반도와 일본렬도 사이에 있는 바다의 지리적명칭에 대하여 우리가 본 력사, 지리적 표상과 학술적견해는 대체로 이상과 같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조선반도의 동쪽바다이름을 포함하여 지난 시기에 그릇되거나 부당하게 명명표기된 지리적명칭들이 자주성과 공정한 새 국제질서수립을 지향하는 현 시기에 와서 반드시 유엔과 국제수로기구의 지명표준화 원칙과 규정(결정) 등에 기초하여 해당 지역 인민들의 력사적 전통과 민족적 의사에 부합되게 그리고 인류의 지향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조속히 공정하게 재개정되리라는것을 굳게 확신합니다.

조선반도동쪽바다와 그 주변해역들의 지명에 대한 지리학적고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질학연구소 연구사
림건목

바다는 지구표면의 2/3을 차지하며 인간생활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육지뿐 아니라 바다를 적극 개발리용하였으며 우리 세대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였습니다.

오늘 바다개발이 적극화되고 있는것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바다명칭문제도 그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지명을 인민이 즐겨 부르고 공정하게 명명하기 위한 사업에 큰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지명표준화를 위하여 《조선지명사전》 10 권과 《고장이름사전》 10 권을 발행하고 국제적으로 표준화하는 사업에도 큰 주의를 돌리고 있습니다.

바다명칭에서 문제시 되는것은 하나의 바다 또는 해협을 놓고 서로 엇갈리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것입니다.

바다이름에서 이러한 불일치는 태평양의 북부일대에서 농후합니다.

조선반도동쪽바다가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는 바다입니다.

이렇게 된데는 몇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원인은 일본이 바다의 이름표기에서 력시주의원칙을 지키지 않는데 있습니다.

우리 조선사람들은 선사시대부터 이 바다에서 물질적부를 채취하였으며 민족국가형성시기에 벌써 동해라고 불렀습니다.

그후 유사시대 전기간에 동해, 조선해라고 불러 왔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동해라는 표기가 있는 첫 지도가 제작된것은 1468년 《팔도총도》이고 일본에서 《일본해》라는 첫 표기가 있는것은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1792년 《지구전도》입니다.

이렇게 동해라는 이름으로 《일본해》라는 이름보다 329년이나 먼저 생겼습니다.

유럽에서 동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표기된것은 1245~1247년 《몽골견문기》(필자는 이탈리아인 카피니)의 삽입도 《빈랜드지도》이며 《일본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표기된것은 1602년에 메테오 리씨가 베이징에서 만든 지도입니다.

이렇게 유럽에서도 동해라는 이름은 《일본해》라는 이름보다 350년이나 먼저 표기되었습니다.

그후 1900년대초까지 유럽의 여러 지도들에서는 이 바다를 동해 또는 조선해로 표기되었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구일본은 우리 나라를 불법적으로 합병한 기회를 리용하여 1929 년에 국제수로기구가 출판한 《대양과 바다의 경제》에 《일본해》라고 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본해》라는 이름은 일본군국주의식민지정책의 산물이며 그것은 제거되어야 합니다.

둘째 원인은 일본이 바다명명에서 지리학의 학리와 전통을 위반한데 있습니다.

《일본해》라는 이름은 학리와 전통에 맞지 않는 부당한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바다는 그의 지리적위치에 따라 세가지 즉 내해, 연변해, 간도해로 나누어 집니다.

이 바다는 아시아대륙의 동쪽변두리에 있는 연변해들중의 하나입니다.

모든 연변해들은 그 주변대륙의 어느 지명에 의하여 명명하거나 간혹 그 바다를 발견하고 조사하는 특별한 업적을 남긴 탐험가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기도 하고 혹은 그 바다의 자연적인 특징을 반영하여 명명되는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변해의 이름을 섬의 이름을 따라 붙인것은 없습니다.

중국동해는 아시아대륙의 한부분인 중국의 동쪽변두리에 있는 연변해입니다.

동해의 옆에 일본열도가 있는것처럼 이 바다의 옆에도 류큐열도가 있으나 이 바다를 《류큐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중국남해는 아시아대륙의 한부분인 중국의 남쪽변두리에 있는 연변해입니다.

이 바다의 한쪽에 필리핀군도와 팔리만탐섬이 있으나 이 바다를 《필리핀해》라던가 《팔리만탐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시아대륙의 연변해인 오호츠크해는 대륙에서 이 바다로 류입되는 하천들의 하나인 오호츠크강의 이름을 따른 바다입니다.

동시비리해는 이 바다의 기슭에 동부씨비리가 있으므로 이런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바다도 아시아대륙의 큰 연변해입니다.

아라비아해는 아시아대륙의 큰 반도인 아라비아반도의 기슭에 있는 연변해입니다.

까라해는 서부씨비리의 연변해인데 서부씨비리에서 이 바다에 흘러 드는 강들중의 하나인 까라강의 이름을 따라 바다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까리브해는 남아메리카대륙의 북변에 있는 연변해입니다.

이 바다의 북쪽기슭에는 바다를 경계지어 주는 대안틸제도가 있으나 이 바다의 이름은 그 섬들의 이름을 따지 않고 이 대륙의 원주민들중의 한 종족인 까리브족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습니다.

북해는 유럽대륙의 북쪽에 있는 연변해입니다.

이 바다의 옆에는 큰섬인 대츠리튼섬이 있으나 바다이름은 그 섬의 이름을 따지 않고 대륙을 기준하여 그 북쪽에 있으므로 북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츄코트해는 아시아대륙과 북아메리카대륙의 경계부에 있는 연변해이며 이바다에서도 그 한쪽에 브랑젤섬이 있으나 바다이름은 그 섬의 이름을 따르지 않고 아시아대륙의 반도인 츄코트반도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습니다.

노르웨이해는 유럽대륙의 북서쪽에 있는 연변해이며 바다이름은 대륙의 한 부분인 노르웨이의 이름을 따라 지어졌으며 그 어떤 섬의 이름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벵갈만, 페르샤만, 메히꼬만을 실지에 있어서 연변해들입니다.

벵갈만은 인디아반도와 인도지나반도사이에 있는 큰 규모의 연변해이며 그 이름은 아시아대륙에서 이 바다로 흘러드는 강가강(간지스강)의 하류일대를 차지하는 벵갈지방의 이름을 따른것입니다.

페르샤만은 아라비아반도와 이란사이에 있는 해역이며 현재의 이란땅에 있던 고대국가 페르샤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습니다.

역시 대륙기원의 이름입니다.

메히꼬만은 북아메리카대륙의 남서기슭에 있는 연변해입니다.

이 바다에는 대서양을 따라 북상하면서 유럽대륙에 온난한 기후적영향을 주는 큰 규모의 온난해류인 골프스트림의 발생지입니다.

이 연변해도 북아메리카대륙의 지명인 메히꼬의 이름으로 불리웁니다.

일부 연변해들은 그 바다를 발견, 조사하는데서 업적을 남긴 탐험가들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달게 되었습니다.

베링그해는 단마르크의 항해가로서 로씨야에서 북무하면서 18 세기말에 아시아대륙과 아메리카대륙의 경계를 확정하는데서 기여한 위트스 베링그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습니다.

씨비리의 연변해인 랍쎬브해는 18 세기에 씨비리의 북극권해안을 연구한 로씨야탐험가들인 하리톤 랍쎬브와 드미뜨리 랍쎬브 형제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으며 유럽대륙의 북쪽변두리에 있는 연변해인 바렌츠해는 16 세기말에 북극권일대를 많이 연구한 네데를란드의 항해가 바렌츠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연변해는 섬의 이름을 따라 명명된것이 없습니다.

다만 간도해들만은 섬의 이름을 따라 명명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바다들이 섬들사이의 해역이므로 섬의 이름을 따르게 된것입니다.

이런 간도해들은 주로 아시아대륙남동의 섬들사이에 있는데 뿔라위시해와 자바해가 그 실례입니다.

연변해들의 이름을 그곳의 대륙기원의 지명에 상응시켜 명명한것은 해양학적견지에서나 지사학적견지에서나 또 지리적방위의 견지에서 볼때 극히 정당합니다.

해양학적견지에서 보면 연변바다의 염도, 투명도, 조석, 동식물 등 대륙의 영향을 받으므로 그주변 대양의 그것과 현저한 차이를 가집니다.

지사학의 견지에서 볼때 연변해들은 제 4 기(인류기)에 빙기와 안빙기가 교차되는 과정에륙지로 되기도 하고 또 다시 바다로 전환되기도 하였습니다.

제 4 기의 마지막빙기에 조선반도동쪽의 이 바다는 호수로 전환되었었다는것이 판명되었습니다.

지리적방위의 립장에서 볼때 그곳 대륙의 어느 지명에 기준한다면 그 연변해의 위치가 뚜렷하지만 만일 섬을 기준한다면 섬의 주위에는 모두 바다이므로 어느 바다를 의미하는지 알수 없을것입니다.

이렇게 《일본해》라는 이름은 전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바다에 《일본해》라는 당치 않는 이름이 덧 붙게 된 세번째 원인은 일본측이 국제적 성격의 지명들을 선정할 때 유관측들과 상당한 협의를 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바다는 령해를 제외하고는 공해입니다.

그런것만큼 그 이름을 명명할 경우 응당 연안국들사이에 합의가 이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1903 년에 조선동해가 묘사된 지도를 만들어 그 지명들을 영어로 번역하여 세계에 배포할때 이 바다의 연안국인 우리 나라와 아무런 협의도 하지 않았으며 일방적으로 독단을 부렸습니다.

일본이 이런 독단을 부리면서 이미 선정되어 널리 쓰고 있는 합리적인 지명에 제나라름으로 부당하게 일본을 기준으로 한 독선적인 지명을 만들어 덧 붙임으로써 혼돈을 주고 있는 것은 동해뿐이 아닙니다.

해협의 이름들에도 일본은 자의적으로 리기적인 이름들을 덧 붙이면서 대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따따르해협에 《마미야해협》이라는 이름을 덧 붙이였습니다.

일본은 1809 년에 일본인탐험가 《마미야 린조》가 이 해협을 탐험하였다는것을 이른바 《근거》로 제기하였으나 그런 《근거》는 성립될수 없습니다.

따따르해협의 첫 탐사자는 로씨야탐험가 웨.에.뽀야르코브 입니다.

그는 벌써 1540 년대에 이 해협을 도항하였으며 싸할린섬의 해안을 따라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싸할린섬과 흑카이도섬사이의 해협은 라페루자해협을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1785 년에 출항하여 세계일주항행을 하는 과정에 북태평양일대를 탐험하고 이 해협을 발견하였으며 그후 1788 년에 쏘로몬제도가까이에서 배가 조난되어 실종된 프랑스의 항해가 라페루자의 이름을 따른것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측에서는 라페루자해협에 《소야해협》이라는 이름을 대립시켰습니다.

우에서 고찰한 내용들을 종합분석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됩니다.

1) 조선반도의 동쪽바다에 가장 합당한 지리적명칭은 《동해》나 《조선해》라는것입니다.

이와 반면에 이 지리적명칭을 말살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덧 부쳐진 《일본해》라는 바다이름은 원래 전통에도 맞지 않는 사생아적인 이름이기 때문에 오늘의 세계에는 더는 존재할수 없다는것입니다.

《동해》, 《조선해》라는 지리적명칭이 가장 합당하다는것은 첫째로, 이 지명이 지명명 명분야에서 이루어진 국제적전통에 상응하며 이 전통은 객관적진리인 과학에 토대하여 이루어 졌다는데 있습니다.

조선동해는 대륙연변해들중의 하나입니다.

연변해들의 이름은 대륙이나 대륙반도의 어느 한 지명에 준하여 지어 부르는것이 전통

이고 관습이며 그것은 학리에 기초한 옳은것입니다.

하지만 연변해들의 명칭을 섬의 이름을 따서 지은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동해》, 《조선해》가 가장 합당한 지명이라는것은 둘째로, 이 바다명칭이 역사주의적 견지에도 부합된다는데 있습니다.

이 지명은 5000 년전 고조선시기부터 오늘까지 변함없이 불려 오는 지명입니다.

유럽지도에서도 《동해》라는 바다명칭의 표기는 벌써 1200 년대 중엽부터 나타 났지만 《일본해》라는 표기는 17 세기에 들어 서서야 시작되었습니다.

2) 따따르해협, 라페루자해협은 지명 명명의 전통과 선취권의 원칙에서 모두 정당하며 따라서 이 지명들에 후에 부당하게 덧 붙여 놓은 《마미야해협》, 《소야해협》 같은 구일본 시대의 이름들은 마땅히 속히 제거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조선반도동쪽바다와 그 주변해역들의 명칭에 대하여 지리학적인 지에서 고찰한 우리의 학술적견해는 이상와 같습니다.

우리는 이 론술을 마치면서 조선반도동쪽바다명칭을 포함하여 이전 시기에 부당하게 명기되었던 태평양북부해역의 지리적명칭들이 현세기초에 시급히 공명정대하게 바로 잡아 지리라고 확신합니다.

조선시대의 東海認識에 관한 연구

국사편찬위원회 연구편찬실장
리상태

I. 서언

우리 주변의 자연물인 산, 강, 바다 등에는 아무런 명칭도 없었지만 이러한 자연물에 명칭이 주어 진것은 그 자연물과 더불어 생활해 온 사람들이 문화를 발전시키면서 그들의 문화의식에 적합한 명칭을 자연물에 붙이게 되면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산, 강, 바다의 명칭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가치관의 표현이며 문화의 遺産物인것이다.

동해라는 명칭은 우리 나라가 3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바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예전에는 대개 오행사상에 립각하여 동서남북의 네방향과 중앙을 포함하는 5부의 공간개념에 따라 동부, 서부 등으로 방향과 공간을 합쳐 불렀기 때문에 바다의 명칭도 동쪽바다를 동해, 서쪽바다를 서해 등으로 자연스럽게 불렀을것이다.

우리 나라 력사·문헌상에 동해의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것은 三國史記 고구려 본기 시조 동명왕기사에서 비롯된다. 그 기사를 소개하면

북부여국의 재상 아란불이 왕께 아뢰기를 <어느날 하늘에서 천자가 내려와 명하기를 이곳은 장차 나의 자손들이 나라를 세울 곳이니 너희는 이곳을 피하여 東海가의 가섭원이라는 곳으로 옮겨라. 그곳은 토지가 비옥하며 5 곡이 자라기에 적합하며 왕도를 삼을 만한 곳이다.>라고 지시한 말을 전하였다. 아란불이 왕께 권하여 도읍을 그곳으로 옮기고 국호를 동부여라고 고쳤다.

우 기사의 천자가 말한 장차 나의 자손은 곧 고구려의 동명성왕을 지칭한다. 리규보의 동국리상국집에 의하면 북부여가 東海邊 가섭원으로 옮겨 동부여를 건국한 시기는 중국 한나라 년호인 神爵 3 년에 일어난 일이며 서기로는 B.C.59 년에 해당된다. 삼국의 건국시기를 살펴보면 신라가 B.C.57 년에 고구려가 B.C.37 년에 백제가 B.C.18 년에 건국된다. 그런데 동해라는 명칭은 삼국이 건국되기 이전인 B.C.59 년부터 사용되어 온 우리 민족의 유구한 명칭인것이다.

이와 같이 유구한 력사를 갖는 동해를 우리 나라에서는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각 시대별로 나누어 살펴 보자고 한다.

II. 조선시대 이전의 동해인식

1) 삼국시대의 동해인식

삼국시대의 동해에 대한 인식은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통하여 알아 볼수 있는데 삼국사기에는 15 회, 삼국유사에는 14 회에 걸쳐서 동해에 관한 기사가 수록되어 있다. 이 사료를 통하여 삼국인들의 동해인식을 살펴 보면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진다. 첫째는 동해가 호국 신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둘째는 동해에서 일어난 자연재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고 있다.

(1) 동해와 호국사상

신라는 건국초부터 동해를 통하여 倭國의 공격을 종종 받았기 때문에 동해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왜국의 공격상황을 살펴보면 B.C.50 년(박혁거세 8) 부터 신라국경을 침범해 왔으며 A.D.14 년 (남해 차차웅 11)에는 왜선 100 여척의 대군이 쳐들어 와 동해 해변가의 민간인들을 약탈해 갔으므로 경주에 있는 중앙군을 파견하여 이들을 막아 냈다. A.D.59 년 (탈해왕 3)에는 왜군의 침입을 막으려고 왜국과 우호관계를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10 년이 좀 지난 A.D.73 년(탈해왕 17)에 또다시 왜군들이 쳐들어 왔다. 왕은 각간 羽鳥를 파견하여 그들을 막도록 하였으나 우오가 전사하는 불행한 사태까지 발생한다. 이와 같이 건국초기부터 왜국이 자주 침범해와 신라에서는 커다란 걱정거리였다.

왜국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을 한 분은 문무왕이다. 그는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였기 때문에 룡자를 통한 외적의 침입은 걱정이 없었지만 동해를 통해서 쳐들어 오는 왜적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았다. 문무왕은 평소에도 늘 智義法師에게 말하기를 《짐은 죽은 후에 護國大龍이 되어 국가를 수호하고 싶다.》고 하였다. 신하들은 문무왕의 유언에 따라 동해구의 큰 바위에 묻었고 이를 대왕암이라고 불렀다.

그 뒤를 이은 신무왕은 부왕을 위해 감은사를 건립하고 부왕의 호국정신을 받들었다. 이러한 호국정신이 나타난것이 萬波息笛의 기록이다.

신무왕3년에 동해바다에 작은 섬이 떠 다니고 그곳에 대나무가 있는데 그 대나무를 취하여 피리를 만들었다.

이 피리는 문무왕이 동해의 호국룡이 되고 김유신이 33 천의 천자가 되어 신라를 옹위하는 증거로 보내 준것이다. 이 피리를 불면 적병이 물러가고 가뭄에는 비가오며, 장마에는 비가 그치게 되고 바람과 파도마저 잔잔해지기 때문에 이 피리 이름을 만파식적이라고 불렀으며 국보로 삼고 경주의 天尊庫에 보관하였다.

이 뒤에도 742 년에는 孝成王이 785 년에는 宣德王 등이 유언에 따라 화장하고 그 유골을 동해에 뿌리도록 하였다. 신라왕들은 죽어서도 동해를 지키겠다는 호국사상이 철저했음을 알수 있다.

(2) 자연재이와 동해

삼국시대에는 현재와 같이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의 돌연변이 현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하늘에서 국왕에게 통치를 잘하라는 계시로

받아 들였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256 년(점해니사금 10)에 동해에 큰 고기 세마리가 나타났는데 길이가 30 척이고 높이가 12 척이나 되는 큰 고기였으며 416 년(실성니사금 15)에도 동해변에서 큰 고기를 잡았는데 뿔이 나 있었고 그 크기는 수레에 가득 찰 정도였다. 요즈음 정세로 보면 기록에 나타나는 큰 고기는 고래가 아니었을가 추측된다. 639 년(선덕여왕 8)에는 동해의 물이 붉어 지고 수온이 올라 갔으며 고기들이 죽어 해수면에 뜨는 일이 있었으며 699 년(효소왕 8)에는 역시 동해의 물이 혈색으로 변하였고 동왕 9 월에는 동해의 물이 서로 싸우는데 그 소리가 경주에서도 들릴 정도였으며 병기고에 있는 북과 팽가리 등이 스스로 울리는 일도 일어 났다.

915 년(신덕왕 4)에도 참포수(경북 영일군 홍해읍)와 동해수가 서로 싸우는데 그 파도의 높이가 200 자가 넘었으며 3 일만에 그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동해에서 큰 고기가 나타났거나 큰 파도가 일어 나는 자연재해현상에 대해서 신라인들은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2) 고려시대의 동해인식

고려시대에는 국가의 중심이 송악으로 옮겼기 때문에 동해보다는 서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 고려시대 동해에 대한 인식은 첫째 동해는 곧 국가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둘째 삼국시대처럼 동해상에서 일어 나는 자연재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으며, 셋째 제사 대상으로 동해를 인식하고 있었다.

(1) 동해가 국가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사용된 경우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것은 918 년이었지만 936 년 후삼국을 통일하기 전까지 18 년간은 신라, 후백제 등과 함께 후삼국을 형성하여 서로간의 세력다툼을 전개할 때이다. 특히 후백제와 고려는 팽팽한 경쟁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대외적으로도 후량, 후당 등과 외교관계를 맺고 후백제를 견제하였다.

이러한 경쟁관계속에서 928 년(고려 태조 11)에 왕건은 후백제와 견훤에게 답서를 보낸다. 그 답서에서

... 만약 足下가 공손히 예지를 받들어 홍척한 생각을 거둔다면 오직 上國의 어진 은혜에 부응할 뿐아니라 또한 東海의 끊어진 왕통을 이어나가게 하는것이다. 만약에 허물을 능히 고치지 않는다면 후회하여도 미치지 못할것이다.

라고 하였다. 위의 사료에서 죽하란 후백제의 견훤을 지칭한것이며 공손히 예지를 받든다는것은 오월의 왕을 가리키는것인데 오월은 당시 고려, 후백제와 동시에 국교를 맺고 있었으며 후백제와 고려에 대해서 피차 침략하지 말고 친선관계를 유지해 달라고 권고하는 국서를 고려에 보내 왔던것이다. 상국은 곧 오월을 지칭한다. 《동해의 끊어진 왕통을 이어나가게 하는것이다.》라는 말은 고구려의 왕통을 이은것이 고려였기때문에 왕건이 고구려의 왕통을 다시 이어나가겠다는말이다. 여기에서 쓰여진 《동해》라는 명칭은 三韓·海東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쓰여 진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1197년(신종 즉위년)에 원나라에 보낸 국서에서도 나타난다.

병자에 考功員外郎 趙通을 金에 보내니 전왕이 表에는 이르기를 <학이 언덕에서 우니 오
히려 들을만한 메아리가 있고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 기우니 어찌 함빡비치는 사사로운 은
혜가 없으리오. 감히 간절한 정성을 다하여 우러러 고명하신 살림을 바라나이다. 옆드려 생
각전대 제가 외람되이 미력한 몸으로 부질없이 변방의 봉작을 이어받아 東海의 기슭에 모
범이 되었나이다.

우 사료에서 전왕은 명종을 가리키며 《東海의 기슭에 모범이 되었나이다.》라는 구절의
동해는 고려를 가리키는 별칭이다.

이와 같이 고려시대에는 東海가 고려를 대신하는 국가의 별칭으로 인식되었다.

(2) 自然災異와 東海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자연재이현상은 국왕의 통치철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였
다. 고려인들은 하늘에는 오행의 운행질서가 있고 땅에는 금, 목, 수, 화, 토의 五材가 있
어 그 쓰임이 다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길흉사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연재이를 잘 닦으면吉하게 되고 잘 닦지 아니하면凶이 된다고 하였다. 특히 孔子께서
춘추를 지으시면서 災異를 반드시 기록하였으므로 하늘과 사람이 감응하는 리치를 쉽게 말
할수 없으므로 자연재이현상을 반드시 기록한다고 하였다. 동해에 관계된 기록은 1124년
(인종 20) 東海가운데 있는 두 돌이 진퇴하면서 서로 부딪쳤다는 기록과 1176년(명종 6) 동
해물이 황색으로 흐러지기를 3일이나 하더니 변하여 혈색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1213년(강
종 2) 3월에도 동해물이 붉어 저서 피빛과 같았다고 하였다. 동해물의 적조현상은 신라때에
도 나타났었고 오늘날에도 종종있는 자연현상인것이다.

(3) 제사와 동해

고려시대에는 해악독신의 산천에 제사 지내는 제도가 확립되었는데 동해, 서해, 남해에 神
祠가 있었다.

고려사 지리지에 의하면 東海神祠는 교주도 翼嶺縣에 있었다. 익령현은 세종실록 지리지
양양도호부의 연혁사항을 참고하면 오늘날의 양양에 해당된다. 조선시대 간행된 동국여지
승람, 여지도서, 도오지지 등에도 양양도호부에 동해신사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조선 세조때 양성지가 건의한 상소문에 의하면 동해, 남해, 서해 신사가 모두 개성을 중심
으로 정하여졌기 때문에 한양을 중심으로 볼 때 방위가 맞지 않으니 이들 신사를 모두 옮
겨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다. 그의 건의에 의하면 동해신사는 강릉으로, 서해신사는 인천으
로, 남해신사는 순천 등지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양성지의 상소문을 참고
로 하면 고려시대에도 동해와 남해 그리고 서해의 신사가 있었음을 알수 있다.

Ⅲ. 조선시대의 동해인식

조선시대의 동해의 인식은 고려시대와 비슷하게 동해신사와 自然災異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으며 울릉도 搜討事문제로 동해가 관심의 대상으로 떠 오르고 울릉도의 소유권문제로 왜국과 교섭이 있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동해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는 가뭄과 그의 극복방법으로 《東海의 孝婦》가 거론되었으며 특히 동해가 찬양의 대상이거나 치욕을 씻어 주는 신성한 곳으로 거론되었다.

1. 제사와 동해신사

조선시대에는 고려시대의 제사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기 때문에 전시대와 별 차이가 없었다. 1414년(태종 14)에 산천에 제사지내는 규정을 새로 정비하였는데 강원도의 동해, 풍해도의 서해, 전라도의 남해를 국가의 中祀處로 지정하였다. 1437년(세종 19)에는 예조에서 악·해·독·산천의 단묘와 실패를 정하였는데 강원도 양양부의 도해사묘의 위판은 東海之神이라고 썼다. 세종실록 五禮志 辨祀항에 보면 나라에서 관장하는 中祀處로서 다른 岳神·瀆神과 함께 각 바다의 제사처가 소개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살펴보면 남해신사는 전라도 라주에, 서해신사는 황해도 풍천에 동해신사는 강원도 양주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종실록 지리지 襄陽都護府항에도 동해신사가 도호부의 동쪽에 있는데 춘추로 제사를 지낸다고 기록되어 있다.

한편 세조때에는 국가의 위신을 드높이고자 원구단을 건립하고 천자와 마찬가지로 하늘에 제사 지냈는데 동쪽의 10壇은 북악단·북진단·동악당·동진단·태세단·제왕단·산천단·신기단·사독단과 함께 東海壇을 설치하여 제사하였다.

2. 가뭄과 동해

조선은 農本國家이기 때문에 자연재해인 가뭄에 매우 민감하여 그에 대비한 대책을 여러 가지로 마련하였다.

그 방법중의 하나는 억울하게 옥살이하는 사람이 없게 하는것으로 나라에 가뭄이 계속되면 감옥에 있는 죄수를 특별히 방면하거나 재판을 신속히 처리하는것이였다. 이때마다 등장하는 고사가 《東海의 孝婦》 기사이다. 이 고사는 중국 한나라때 동해현에 효부가 살았는데 일찍이 과부가 되었고 자식이 없었으며 시어머니만 있었는데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셨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너무나 고마워 여러번 자기를 남겨 두고 시집가라고 권고하였다. 그러나 며느리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시어머니를 정성을 다하여 모셨다. 참다못한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늙으니가 젊은 사람에게 짐만 된다.》고 한탄하며 스스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시어머니의 딸이 이 사실을 알고 관가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였다고 고발하였다. 며느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변명하지 않고 거짓으로 자백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刑吏는 여러가지로 추궁하였지만 며느리의 대답은 여전하였으므로 이를 상부에 보고하였고 태수는 마침내 이 며느리를 사형시켰다. 그 후로 이 마을에는 3년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다. 후임태수가 부임하여 이 사실을 알고 그 효부집에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더니 하늘에서 비가 왔다는 고사이다.

우의 고사는 가뭄이 들기만 하면 《동해에 사는 효부가 원통하게 죽으니 3 년간 가뭄이 들었다고》 인용되는 고사로 태종때부터 조선후기 정조때까지 인용되었다. 물론 이때 인용된 《동해》는 오늘날의 동해와는 다른 중국 한나라때의 동해군을 지칭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우리 나라의 동해처럼 리용되었다.

3. 동해와 자연재이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처럼 동해의 자연재이현상도 여러번 나타났다. 1415 년(태종 15)에는 영일에서 길주까지 동해의 물이 범람하였다. 동해바다물의 높이가 5 척, 또는 13 척이나 되여, 룡지로서 어떤곳은 5,6 척, 어떤곳은 백여척이나 덮었는데, 바다물의 진퇴가 潮水와 같았다. 또 삼척과 연곡 등지에서는 바다물이 줄고 넘치기를 5,6 차례나 하였는데, 넘칠때에는 5,60 척이나 되고, 줄때에는 40 여척이나 되었다.

1565 년(명종 20)에는 陰陽이 절도를 잃어 항상 춥다가 동해바다가 봄에 얼음이 어는 이변이 일어났으며 1605 년(선조 38)에는 동해의 물이 붉어지고 압록강물이 자주빛으로 바뀌었다. 1647 년(인조 25)에는 동해의 물이 역류하였으며 1655 년(효종 6)에는 명종때처럼 또 다시 東海에 얼음이 어는 재변이 일어났다.

1702 년(숙종 28)에는 동해의 水勢가 바뀌어 魚族이 모두 서해로 옮겨가는 이변이 일어났다. 1737 년(영조 13)에는 東海에 또다시 赤潮현상이 일어나 조정을 긴장시켰다.

한편 서해와 달리 동해에 潮水가 없는 점을 규명하려는 시도가 여러번있었다. 1450 년(세종 32)에는 정인지가 중국 사신에게 《동해에 조수가 없음은 무엇때문입니까》라고 질문하였으나 중국 사신도 그 리유를 알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1476 년(성종 7)에는 경연석상에서 동해에 밀물이 없는 리치를 窮究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다.

인조도 경연석상에서 《潮汐水에 대한 설명을 들을수 있겠는가》라고 질문하자 鄭經世가 대답하기를 《先儒가 론한바를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떤 이는 땅이 숨을 쉬어서라고 하는데 동해는 조석이 없으니 그 리치를 궁구하기 어렵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영조때에도 경연석상에서 南泰齊가 말하기를, 《東海는 어찌하여 조석(潮汐)이 없습니까?》라고 질문하였으나 명확한 해답을 내릴수 없었다.

4. 울릉도 搜討事와 동해

울릉도는 신라 지증왕때 리사부가 점령하여 통치하였으나 이 섬에 사는 주민들이 왜구를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울릉도에 사는 주민들을 모두 몰아 내여 그 섬을 비워 두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지 울릉도에도 주민이 살게 되었으며 고려시대에는 태조때와 덕종때에 島主가 사신을 보내 공물을 바쳤다. 그 후 인종때에는 李陽實, 의종때에는 金柔立 등을 파견하여 주민이 살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시켰으나 바위가 많아 거주할수 없다고 보고되었다. 최우도 울릉도에 주민들을 이주시키려고 시도하였으나 풍파로 많은 인명을 잃고 그 계획을 중단하였다.

조선시대에는 1466(태종 16)에 삼척 만호였던 金麟雨를 武陵島(=울릉도)안무사를 삼아 병선 2 척을 파견하여 그 섬에 거주하면서 군역을 피해간 주민들을 데려 오도록 하였다. 김린우는 5 개월이 지나서 1217 년(태종 17)에 돌아왔는데 于山島에는 15 가구에 男女 모두 86 명이 살고 있다고 보고하고 그곳의 특산물인 大竹과 水牛皮(=물개가죽) 등을 바쳤다. 그 후 1438 년(세종 20)에는 南顯를 파견하여 울릉도 주민 70 여인을 데려 오고 그 섬을 비워 두었다.

1490 년(성종 20)에 朴元宗을 三峯島에 보내 조사시켰으나 주민이 살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조선초기에는 울릉도를 무릉도, 우산도, 삼봉도 등으로 불리웠음을 알수 있다. 그 후 잠잠하던 울릉도 문제가 일본과 우리 나라의 외교문제로 비화된것은 1693 년(숙종 19)에 울산에 사는 安龍福이 울릉도 부근에서 고기를 잡다가 왜인들에게 일본으로 붙잡혀 갔다가 대마도를 통하여 송환되면서 왜인들이 보낸 외교문서에서 울릉도를 자기네 나라의 竹島라고 주장한데서 비롯된다. 조정에서는 울릉도와 竹島는 一島二名임을 증명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울릉도가 우리의 령토임을 확실히 하였다. 그 후 조정에서는 왜인들이 울릉도를 자기들의 령토라고 주장하는것은 우리나라가 오래동안 울릉도를 비워 두었기 때문이므로 3 년마다 1 회씩 지방관을 파견하여 울릉도 정세를 살펴 관리하도록 하였다. 1699 년(숙종 25)에는 강원도 월성만호 田會一이, 1702 년(숙종 28)에는 삼척령장 李浚明이 울릉도를 조사하였다. 그러나 몇년이 지나자 울릉도 수토사는 배길이 멀고 파도가 험하며 생명을 잃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방관들이 적당한 핑계를 대고 수토를 기피하려 하였다. 1717 년(숙종 43)에 강원감사 李晩堅이 울릉도 수토는 빈 섬을 확인하는데 불과한데 민폐가 심하니 중지하자고 건의하여 일시 중지되기도 하였으나 숙종때처럼 왜인들의 犯境事가 재발할 수 있으므로 고종때까지 3 년마다 1 회씩 계속 搜討하여 울릉도를 우리의 령토로 지켜 왔다.

5. 동해와 讚揚詩

조선시대 동해인식중 다른 시대와 가장 큰 차이는 동해를 찬양의 대상으로 삼은 점이다.

세종때 지은 《獻南山의 曲》 중에는 《동해는 물결이 잔잔하고…공손히 南山壽를 드리니, 양궁께서는 만년까지 계시어 백성의 부모가 되소서…》라고 하였으며 《至德의 曲》에서는 《더러운 묵은 인심 깨끗이 씻사오니, 동해의 바다물이 영원히 맑으리니, 천명에 순종하고 인심에 호응하여, 우리의 민생이 은혜받아 살리로다.》라고 동해를 찬양하고 있다.

세조때에는 《寵綏의 曲》에서 《義旗를 곧 돌이키니 순종하여 도움이 많았도다, 이미 더러운 德을 깨끗이 씻으니 동해의 바다물이 길이 맑도다.》고 하였으며, 성종때에는 형조 정랑 유양춘이 회우부를 올리면서 報秋歌에 이르기를 《서로를 동해의 물만큼이나 복받기를 축원하고 南山처럼 무궁하도록 長壽를 빌어, 頌德하고 축수하니 그 소리가 온 세상에 진동하였다.》고 동해의 물만큼 축복받기를 소원하고 있다.

1488 년(성종 19)에는 일본국에서 대장경을 보내준 은혜에 감사하여 《동해의 물을 다 퍼내고 南山의 대나무를 다 꺾게 한다고 하더라도 어찌 감사의 말씀을 다 드릴수 있겠습니까? 삼가 천만번 감축하는 바입니다.》고 감사편지를 보내왔는데 동해의 물을 다 퍼내도

감사의 정을 다할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다.

정조와 순조 때에는 두왕의 효성이 지극함을 동해물에 비기고 있다. 특히 순조의 공덕을 높이여 《북두성 술잔을 기울여 동해바다물을 잔질하여 우리 성상 내외의 무한히 오래 살 것을 축하할것이니, 어찌 이 정성과 사랑을 다할수 있겠습니까?》고 하였다.

1868 년(고종 5)에는 대왕 대비의 환갑을 축하하는 고서를 반포하였는데 《새해 첫머리에 아름다운 복을 받고 만물이 빛나는 때에 훌륭한 술잔을 올렸다. 화려한 전문을 올리니 그 기쁨은 참으로 東海와 같이 깊었고 그 長壽가 南山처럼 오래 갈것을 빌었다.》고 하였다.

우와 같이 동해는 찬양의 대상이었으며 축복의 근원으로 여겼다. 우리 나라 애국가에 등장하는 《동해와 남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의 심령을 울리는 축복과 찬양의 대상이었음을 알수 있다.

한편 동해는 참을수 없는 치욕을 깨끗이 씻어주는 신성한 곳으로 여겼다. 광해군때 인목 대비 폐비문제로 시비가 있었을때 김효성은 《동해에 몸을 던져 죽겠다.》고 강력하게 폐비문제를 반대하였으며, 선세위는 폐비를 반대한 리항복의 처벌을 주장하며 그의 죄는 《동해의 물결을 터대더라도 다 씻어낼수 없을것입니다.》라고 주장하였다.

1629 년(인조 7)에는 우참찬 김상헌이 청나라의 오랑캐 중남을 의자에 앉힌것에 대해 반대하여 올린 劄子에서 《중남이 이미 전하의 앞자리에 앉아 손님의례로 대접받은 이상 이제 동해바다의 물을 다 퍼서도 그 부끄러움을 씻기에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고 울분을 토로하고 있다.

우와 같이 동해는 치욕을 씻어 주는 신성한 곳으로 인식하고 있다.

IV. 맺음말

우리 주변의 자연물인 산, 강, 바다 등에는 뚜렷한 명칭이 없었으나 그 자연물과 더불어 생활해 온 인류의 문화인식에 의해서 적당한 명칭이 붙여 지게 된다.

동해라는 명칭은 우리 나라가 3 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다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것이고 동쪽에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동해라고 불렀을것이다. 우리 나라 역사문헌사에 동해의 명칭이 처음 등장한것은 고구려 시조인 동명왕기사에서 비롯된다. 고구려가 건국한 졸본지역에는 북부여가 있었는데 이곳에는 고구려가 건국할 곳이니 북부여 보고 동해변의 가섭원으로 옮기라는 기록속에서 《東海》의 명칭을 발견할수 있는데 이때가 중국 한나라 神爵 3 년(B.C.59)이다. 이 시기는 삼국이 건국하기 이전으로 동해명칭은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유구한 명칭임을 알수 있다. 이러한 동해의 명칭은 호국사상과 깊은 관련을 갖고 문무왕을 동해구에 장사지내게 되며 동해신사를 짓고 국가의 무사태평을 빌기도 하였다.

한편 동해라는 명칭은 삼한, 해동처럼 우리 나라를 가리키는 별칭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고려 태조가 후백제의 견훤에게 보낸 답서에서 《동해의 끊어 진 왕통을 이어 나가게 하는것이다.》라고 밝힌 경우와 고려 神宗이 원나라에 보낸 국서에서도 《제가 외람되이 미력한 몸으로 부질없이 변방의 봉작을 이어받아 동해의 기슭에 모범이 되었나이다.》라고 쓴 경우처럼 동해가 곧 고려를 가리키는 별칭이었다.

조선시대 초기에는 동해가 제사처로 인식되었고 후기에는 동해에 있는 울릉도 영유권문제로 왜국이 가끔 시비를 걸어와 3 년에 한번씩 울릉도를 搜討하면서 울릉도를 지켜 왔기 때문에 동해가 늘 관심의 대상이었다. 특히 동해를 찬양하여 《신성한 곳》, 《성스러운 곳》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민족의 마음의 고향으로 여겨 후에 애국가의 첫머리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으로 표현되었다.

朝鮮東海呼稱問題小考

사공준

Ⅰ 조선동해의 호칭<문제>의 발생과 최근 동태

1. 朝鮮東海呼稱<問題>의 발생

朝鮮東海의 呼稱問題는 한마디로 말하여 고유한 우리 이름을 되찾는 문제, 다시 말하여 빼앗긴 이름을 되찾는 문제이다. 이것은 또한 일제에 대한 殖民地時期를 전후하여 발생한 여러 후과를 清算하는 事業이기도 하다. 國名,地名表記에서 식민지시대의 잔재를 청산하는 문제는 民族自主權을 回復하는 일환이라 말할수 있을것이다. <일본해>를 <朝鮮海>, 또는 <朝鮮東海>, <東海>, <東洋海>로 회복하는 문제는 오늘날 매우 절실하고 21 세기의 중대한 민족적과업의 하나로 제기될것이다.

이와같은 문제는 세계의 여러 나라 및 지역에서 제기되어 있다. 아시아지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군대의 강점하에 있었던 식민지시기에 일본식으로 강요당하였던 지명을 민족 고유의 본래의 지명으로 회복시킨례는 적지 않다. 례를 올린다면 우리 나라에서는 <京城>을 서울로, 평양과 서울 시내의 수다한 일본식지명을 원상되도 회복시킨것은 많다. 중국에서는 <新京>을 長春으로, 또한 <昭南島>는 Singapore(국명)로 한것들이 그 실례가 된다.

또한 지명문제는 현재 세계적으로 보면 분쟁의 원인의 하나로 되어 있다.

<Persian Gulf>와 <Arabia Gulf>, <Falkland Is>와 <Islas Malvinas>, <獨島>와 <竹島>문제뿐만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朝鮮海峽>도 일본은 <對島海峽>이라 칭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이 국가적체계를 갖추게 된것은 조선인이 일본에 도래한 이후의 일이다. 이렇게 보면 朝鮮東海에 대한 인식을 누가 먼저 하고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자명한 문제로 된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중국해>는 중국에서는 <동해>로 호칭하고 있다. 1944 년에 독립한 Denmark는 Greenland사이의 Denmark Strait 의 명칭변경작업을 하였으며 인정을 받았다. <黑海>는 Turkey 어의 <흑>에서 지어진 명칭이다. 이에 대하여 Georgia 人들은 반대하여 사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바다물색이 흑색이 아니다란 지적도 있다. 영국의 도시명을 사용한 <Dover 해협>에 대하여 France 가 문제시하고 있으며 <北海>이란 명칭도 Europe 대륙을 기준으로 하면 <북해>이지만 영국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지 않다고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북해주변 나라들에서는 <동해>로 호칭하고 있다. Siberia 와 사할린島사이의 해협인 따따르해협에서 가장 폭이 좁은 부분을 일본은 <마미야(間宮)해협>을 사용하고있으나 Russia 는 <네펠해협:Proliv Nevel'skogo>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유엔이 <제정>한 <國際固有名稱의 朝鮮東海>의 경계는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한 완전히 다당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것이다.

최근시기 朝鮮東海呼稱問題와 관련하여 일본측이 주장하는 허위성은 지리학적견지에 한하여 말한다면 다음 세가지로 요약할수 있을것이다.

첫째로, <일본해>이란 호칭은 일본의 식민지배의 결과 류포된것이 아니란 주장이다. 그리하여 <일본해>의 유래는 일본인이 먼저 사용한것이 아니라 Russia 의 I.F.Krusenstern(1770~1846)이 1815 년에 간행한 世界周航記에서 사용한 후에 세계에 퍼지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17 세기의 세계지도에서 <일본해>의 기재가 보이므로 Europe 에서는 오래동안 사용되었다는 주장이다(京都大 川合英夫). 또한 1800 년대이후의 서양지도에는 모두 <일본해>로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그 시기에는 아직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식민지정책의 결과 <일본해>가 류포된것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둘째로, 남조선측이 주장하는 <고대로부터 호칭하는 (東海)>는 존재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①바다호칭으로 <東海>이란 기재는 사료에서 찾아볼수 없다는것이며 <東海>이란 기재가 있다면 그것은 자국으로 보아서 동방에 위치하는 바다, 즉 방위를 나타내는 이름이다란 주장이다. ②일본의 에도시대(江戸時代;1603~1867)의 일본지도에 <朝鮮海>, <일본해>이란 기술훈은 있으나 <東海>이란 기술훈은 없다, 즉 폐쇄해역을 가리키는 현재의 朝鮮東海의 해역에 해당하는 바다는 없다는 주장이다.

셋째로, 남조선측은 <일본이란 국명>을 사용하는것에 대하여 난색을 표하고 있으나 그것은 이상하다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①일본은 과거에 현재의 朝鮮東海해역을 다음과 같이 호칭한바가 있다. 그 내용으로 古代~에도(江戸)中期·北海(方位), 헤이안(平安;790 년대~1190 년대)末期·渤海(발해국에 가는 해로이란 뜻), 아즈찌(安土)~모모야마(桃山)(1568~1600 경). 에도(江戸)初期·朝鮮海(조선에 가는 해로이란 뜻), 쓰시마(對島)海峽,東中國海도 朝鮮海로 기술훈한 문서도 있다, 에도(江戸)中期~現在·日本海. ②에도(江戸)시대후 시바고 강(司馬江漢)의 세계지도 등 많은 세계지도가 간행되었으나 <일본해>로 표기된것의 대부분은 서양지도의 寫本이었기때문이다. 당시 서양인들은 Marco Polo 가 일본을 <황금의 나라>로 소개한것과 交易額도 일본과의 사이에서 많았다. 따라서 <일본해>이란 명칭은 일본인이 지운것은 아니라 서양인이 호칭한것이다. 이상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③ 1800 년대 이후는 동아시아 나라들은 쇄국상태에 있었으나 일본은 나가사끼(長崎) 등 일부를 개항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과의 交易관계를 통하여 현재의 朝鮮東海海域이 <폐쇄해역>이란 인식이 있었다.이 바다를 서양인들이 <일본해>로 부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필자는 이글에서 일본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당성, 즉 《①<일본해>의 명칭은 19 세기초기에 전세계의 海圖의 약 80%에 채용되어 있었으며 식민지배에서 정착된것이 아니라는 주장, 즉 <바다이름은 침략의 산물이 아니다>는 것과. ②《한 나라의 주장만으로 <이미 고정된 지명>을 간단히 변경하고나 <복수의 명칭>을 병기하는것은 명칭의 통일을 지향하는 IHO 의 본래의 목적에 어긋나다》는 주장의 허의성을 논박하였다.

2. 朝鮮東海呼稱問題와 관련한 몇가지 동태

- | | |
|------|---|
| 1899 | 국제해양회의, 1912 년 국제해양회의 이후 제기된 문제를 토의 |
| 1919 | 국제수로기구(International Hydrographic Organization: IHO; 24 개국, London)는 지명표기기준을 설정하여 Ocean, Sea 의 국제적공식화도모, 항행 |

- 안전, 水路事務統一化를 도모. IHO 총회 18 개국
이 참가, 식민지시기였으므로 조선대표는 참가하지 못함
- 1921 IHO(國際水路機構會議: UN 地名統一會議)
- 1922/9 IHO 에 바다의 명칭결정과 관련하여 당시<정부기관>이 연구소를 등록
- 1923/2/15 바다의 경계에 관하여 IHO 가 試案作成. 일제시기이었으므로 이 때에 동해가
<Japan Sea>로 표기
- 1929 第1回補充國際水路會議開催(Monaco 公國), IHO <대양과 바다의 경계:
The Limits of Oceans and Seas NO.23> 발간시에 일제시기였으므로
<일본해(Japan Sea)>가 <국제적>으로 강요
- 1937 IHO 회의
- 1952~3 <대양과 바다의 한계>제3 판
- 1986 <대양과 바다의 한계>신판
- 1970년대 남조선측이 <일본해>의 표기의 부당성 지적
- 1970 IHO 에서 지명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명표준화결의안 검토
- 1977 UN 지명표준화회의 《복수의 주권국가의 영향하에 있으면서 <한개>의 명칭으
로 통용하지 않을때는 새명칭이 합의될때까지는 복수명칭로 표기한다》
- 1992/8/28 UN 지명통일화회의에서 <東海呼稱問題>가 상정
※UN 의 립장은 <당사국간에서 해결>하라는 것이었다.
- 1992/8/28 남조선측이 유엔가명과 동시에 제6 회유엔지명표준화회의에서 <東海>로 呼稱할
것을 요청. 국제수로기구(IHO)가 반세기에 한번씩 실시하는 <대양과 바다
의 경계> 세계해도의 개정시에 즈음하여 <東海>호칭요구. 일본은 강경자세로 반
대.
※국제수로기구(IHO)은 1929 년부터 國際海圖作成案內 <대양과 바다의 한계>
를 간행 1953 년에 제3 판간행, 1970 년부터 제4 판의 개정작업을 개시
IHO 사무국이 2002/1/15 까지 합의를 보지 못할때는 <併記>할것이라고 통보
- 1992/11 地名에 관한 지리학세미나(大韓地理學會) 개최
- 1993 古地圖를 가지고 <東海>研究發表(盧禎植)
- 1993/7 공화국북반부에서 력사. 지리학자가 공동으로 <朝鮮東海名稱表記問題>심포쥬개
최 논문발표자 ...김일 성종합대학지리학부(洪洵益), 사회과학원(金英律, 孫英鍾,
李泳煥), 국가측지국(林鍾覺)
- 1994 년이후 남조선 해양조사국이 IHB 에 <일본해>호칭을 <東海>로 시정하도록 요청
동시에 HO 가명국에도 <東海>表記를 사용하도록 요청
- 1994 UN 지명전문가회의 (New York)
- 1996/6 UN 지명전문가회의 (New York)
- 1994/9 UN 환경회의 (서울)
北西太平洋海洋保全會議 (서울)
- 1994/11/9 남조선에서 社團法人 東海研究會 발족
1994/11~1999 년사이 연구회 11 회, 62 편의 연구발표.

세미나 개최...Israel, Canada, 몽골, 남 Africa, Saudi Arabia,
일본, Hungary, 미국 등 참가

- 1996 UN 지명전문가회의(Genova)
- 1997/4 IHO 제15 회회의 (Monaco). 남조선측이 <일본해>의 부당성지적, <대양과 바다의 경계>(冊子)에서 <東海(East Sea)>표기할것을 공식요청
- 1998/1/13 제7 회UN 지명표준화회의;복수의 주권국가의 영향하에 있으면서 한개의 명칭으로 통용하지 않을때는 새명칭이 합의될때까지는 복수명칭으로 표기, 주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명칭문제에 관한 결의안 초안작성 작업착수
※일본은 토론(토의)할것을 거부
- 1998/1/30 <로동신문>론평 제7 회UN 회의에서 일본이 토의거부한것과 관련하여 朝鮮東海의 <일본해>표기는 주권침해로 규탄
- 1998/10 외국 항공회사의 안내에서 <東海>표기할것을 요청
- 1999/10/25 <東海>지명관련국제세미나 개최(동해연구회: 서울)
- 2000/1/17~28 제20 회UN 지명전문가회의가 결의안 리행현황에 대하여 평가
- 2000 4/11, 4/18 미국의 지명위원회가 <東海>의 호칭에 관한 남조선측의 입장을 청취하기 위하여 Washington 에 정부대표를 招請
- 2000/8/14~18 <세계지리학대회> <東海>호칭문제 <특별 분과회>에서 토론
- 2000/11 국제수로기관(IHO)사무국은 <2002/1/15 까지 조(한)일간에서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東海>와 일본해의 두명칭을 병기(併記)한다>고 통보
- 2001/1 국제 통신망에 <東海>site 개설
- 2001/8 VANK <東海>표기를 위하여 시정운동
(Voluntary agency net work of Korea: VANK) 1999/1/1 발족
현재 4500 명
- 2001/10 <東海研究會> 국제학술세미나
- 2001/10 McAther 박물관의 지도 <東海>로 표기
- 2001/11 <東海研究會> 국제학술세미나
- 2002/1/25 VANK IHO 개정판에 <일본해대신에 東海登記> 호소
- 2002/1 말 일본은 외무성과 海上保廳의 擔當者를 Monaco 의 IHO 사무국에 파견하여 國際海圖案內 第4版의 출판연가를 요청. 일본은 <併記>를 반대한다고 밝힘
- 2002 미국지도회사(Rand McNally) 병기
일본<朝日本新聞>병기 시작
경희대학 김신교수 IHO 본부방문 IHO 기구가명국 70 개국에서 <東海>명칭의 복원할것을 호소
- 2002/7/22~26 국제회의 : Russia, Uladiostok 해양명칭문제관련
일반적으로 지명조절문제는 ①정치적차원 ②민간적차원 ③국제적차원; 국제적공감의 확대 ④학계적차원; 학계에서의 적극적인 연구발표와 의견제기 ⑤자료적차원; 각종 자료의 수집 등을 통하여 가능하게 될것이다. 이렇게 보면 朝鮮東海呼稱使用의 가능한 방도는

①우리측과 일본측의 완전한 합의 ②주변 나라들의 공감 ③국제적공감 ④과거에 사용하고 있었던 민족적요소가 있는 지명의 등용 ⑤새로운 지명의 모색 등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을것이다.

II 조선의 과거의 기록과 문헌을 통하여 본 조선동해의 호칭

다음과 같은 사료를 통하여 朝鮮東海에 관한 서술과 朝鮮海의 위치를 알수 있다.

- B.C 59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始祖東明聖王의 기술
414 廣開土王陵碑에서 찾아 볼수 있는 <朝鮮海>표기
1145 三國史記 수십개의 <朝鮮海>표기
1284 三國遺事 십여개의 <朝鮮海>표기
1414 太宗實錄 卷 28(14년 8월 21일)의 기술
1451~52 高麗史 수십개의 <朝鮮海>표기
1454 朝鮮王朝實錄 世宗實錄地理志에 150여개의 朝鮮東海에 관한 기술, 朝鮮東海의 위치, 소금생산, 해일(海溢, 津波) 기록
1530 新增東國輿地勝覽의 <八道總圖>에는 조선의 서해, 남해, 朝鮮海의 지리적위치가 표기, 단 룽자부분에 <朝鮮海>로 표기
16세기 東國地圖 地方圖에는 <東抵大海>로 표기
1740년대 嶺南地圖의 朝鮮海
18세기중엽 關防地圖, 西北界圖의 朝鮮東海에 관한 표기
輿地圖書: 東海, 東大海, 大海로 표기
1789~93 天下都地圖 筆寫(서울대학교 所藏)의 朝鮮東海에 관한 기술
18세기 이후 廣輿圖(奎章閣所藏)의 朝鮮東海에 관한 기술
1908 增補文獻備考 등에는 朝鮮東海의 지리적위치와 경계가 명기

※일본측의 주장 ①新增東國輿地勝覽의 <八道總圖>의 동해는 룽자부분에 기입되어 있으나 바다명이 아니다. ②東國地圖 地方圖의 <東抵大海>는 방위를 가리키며 지명이 아니다. ③조선반도의 동방의 바다란 뜻으로 <동해>라고 불렀다. 이것이 곧 현재의 조선동해해역과 현재의 <일본해>와 일치되는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 측지도에는 朝鮮東海를 <일본해>로 표기된것은 찾아볼수 없다.

이것은 조선사람이 朝鮮東海가 自國水域임을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즉 그만끔 철저하였다는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될것이다.

III 해명표기의 일반적인 국제관계

海名表記와 관련한 國際慣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

결론적으로 말하여 주목되는것은 역사적으로 半島와 섬사이의 海名에서 섬, 또는 섬나라(예 일본)의 國名과 同名로 命名한것은 찾아볼수 없다는것이다. 예외는 동남아시아의 Malay Pen. 근해의 <Andaman Sea>이다.

바다 이름의 유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대륙을 기준으로 한 해명; <중국남해>...중국, Viet-Nam, Philippines 등의 주변바다.
<북해>...Europe 에서 France, Belgium, Netherlands, Denmark, Norway, 영국 사이에 있는 바다, 대륙의 북쪽에 위치. Gulf of Mexico
- ②바다의 지리적위치, 제조건에 따라 명명; 즉 반도나 섬사이를 기준으로 명명.반도이름을 따서 <Arabian Sea>, Bering 해협 북쪽의 <Chukchi Sea>. 반도나라, 또는 지방명을 따서 <Norwegian Sea>, <인도양>, <Gulf of Alaska>, 인도동북부의 <Bay of Bengal>, <Gulf of California>, <Labrador Sea>
- ③인명유래; Bering Str. 흑해동방의 내해인 Sea of Azov, Lappland 북방의 Barents Sea, Estr.de Magallanes(Magellan 해협) 남극대륙의 Amaundsen Sea
- ④민족명유래; Italy 남방의 Ionian Sea, 흑해동방의 내해인 Sea of Azov, Persian Gulf, Caspian Sea, Baltic Sea
- ⑤색채유래; 黑海(흑색을 의미하는 Turkey 어의 가라 테니이즈이란 어휘), Kola Pen. 부근의 白海(White Sea), 紅海(Red Sea), 黃海(朝鮮西海)
- ⑥방위유래; 北海, 東海, 西海, 東中國海, 西中國海
- ⑦지명, 도시명유래; Dover 해협(영국도시), Str.of Malacca, 자중해입구의 Str. of Gibraltar, 인도양, Denmark 해협, Gulf of Mexico, Gulf of Venezia, Gulf of Genaova, Sea of Okhotsk, 최근에 독립한 Timor 남쪽의 Sea of Timor, Sea of Labrador, Sea of Mozanmbique, Tasmanian Sea
- ⑧대륙과 대륙의 사이 유래; 여러개의 地中海
- ⑨기타; 홍해입구의 Bab el Mandeb Syr.(急流), 화란의 Wadden Zee(간석지), New Guinea 의 Arafura Sea(未開), Aegean Sea(Greece 神話), Indonesia 의 Flores Sea(꽃), 흑해입구의 Sea of Marmora(大理石)

IV 일본과 구라파의 고지도상 표기된 조선동해의 명칭

세계출판물에서는 朝鮮(高麗)이란 나라 이름과 함께 朝鮮海(高麗海)이란 바다이름을 많이 찾아 볼수 있다.

일본측 지도를 검증해보면 朝鮮東海를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일본해>로 호칭한 증거에서 뚜렷한것은 없다. 그 좋은 예가 官撰地圖인 <日本邊界略圖>(1809)에서 찾아 볼수 있다. 이 지도에는 朝鮮東海海域이 <朝鮮海>로 표기되어 있어 19 세기초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일본해>이란 호칭은 定立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 이 지도는 개인이 제작한 지도가 아니라 국가가 제작한 官撰地圖이므로 매우 귀중한 史料的價値가 있는 지도라 볼수 있다.

이 지도를 Philipp Fanz. van Siebold (1796~1866)가 번역하였는데 잘 번역을 하지 못다고 <Japanische See>로 하였다. 연구자들은 그가 일본에서 오래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 지도가 일본에 역수입되어 <일본해>이란 호칭이 퍼졌다고 보고 있다.

조선에 대한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야망이 로골화되는 과정에 <일본해>로 변경하는 策謀가 조작되었다. 특히 일본에서 제작된 지도에는 1840 년경부터는 조선령역쪽에는 <조선해>, 일본령역쪽에는 <일본해>로 표기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일제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쳐 1905 년에 <乙巳條約>을 조작한 후 조선이란 국호와 함께 朝鮮海이란 바다이름을 없애고 <일본해>로 <공식화>하였다.

Europe 의 지도에 조선이나 일본이란 명칭이 비교적으로 등장하게 된것은 15 세기이후로 볼수 있다. 처음은 Marco Polo (1270~95. 東方見聞記)에 의하여 전해진 정보에 기초하여 제작된 <상상지도>이며 그 후 16 세기에 들어가서 Portugal 선원의 手記인 航行案内書, Portugal 海圖에도 서술되었다. 서양에서 우리 나라와 관련이 있는 지도를 본다면 1500 년 대말에 서양 선교사들에 의하여 작성된 <일본도>이후에 그 이전 시기보다도 정확한 지도가 제작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지도는 조선의 지모가 정확하지 못하며 또한 일본도 혹카이도(北海道)가 기재되지 않는 지도였다. 이러한 지도는 1600 년대중기의 <아시아圖>에서도 유사하였다. 1655 년의 <中國圖>에서는 조선은 반도로 묘사되었다. 1700 년대중기에 와서 조선반도의 지도는 현재의 지도의 모양에 비슷하게 되었다. 1800 년대초기에 와서 일본圖, 조선圖, 달탄圖 등에서 겨우 보다 정확한 지도로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Europe 의 지도에서 <朝鮮(高麗)海>로 표기된 지도가 많았다. 이러한 지도를 참조하면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말할수 있다.

Europe 는 19 세기초기부터 <일본해>의 호칭이 보다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P.F van Siebold 이후(19 세기 중엽)에 고정되기 시작하였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강한 쇄국정책으로 인한 정보부족으로 우리 나라의 실정이 서양에 보다 반영될수가 없었던데서 그 원인의 하나를 찾아 볼수 있다.

일본에서는 朝鮮東海에 관하여 명치시기초기까지는 여러가지 호칭이 있었다. 그것이 <征韓論>의 대두와 함께 <일본해>의 표기가 많아지고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이 본격화되는 속에서 <고정화>되었다. 즉 의도적이였다고 말할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조선의 주권은 무시당하였다. 1910 년이후는 나라 그 자체가 말살되는 방향으로 흘러나갔다. 즉 <朝鮮海>인가 <일본해>인가 하는 호칭문제는 단순히 한가지 <명칭>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과거의 일본의 식민지정책의 잔재로 보아야 하며 지금은 그 청산을 해야 하는 시기에 왔다고 말할수 있을것이다.

역사적으로 본 조선동해의 호칭지도(朝鮮東海呼稱地圖)

※~19 세기(서양지도항을 참조) 서양지도의 주류는 East Sea, Sea of Korea, Ocean Oriental(동양의 바다이란 뜻, 즉 東洋海)

1794 <北亞細亞圖> 부록<아시아全圖> (桂川甫周:천문학자) 46.7[48.7]cm×58.7 cm

- 1794 일본의 <아시아전도>
- 1807 일본의 막부는 高橋景保에게 세계지도 作製을 命함
- 1809 <新鐫總界全圖>의 일부인 官撰地圖<日本邊界略圖>(天理大學圖書館):朝鮮海
- 1810 <新訂萬國全圖> 改訂版世界地圖(高橋景保)
- 1815 <嘉永校東西地球萬國全圖>(丁子屋平兵衛) 72 cm×76 cm
- 1838 <萬國全圖>(阿部喜任)
- 1844 <新製輿地全圖>(箕作省吾) 118 cm×35 cm (1843~1847 년)
- 1845 <新世界地圖>(箕作省吾)
- 1850 <地學正宗圖>(杉田玄端)
- 1853 <地球萬國方圖>(未詳) 125 cm×79 cm
- 1854 <大日本沿海要疆全圖>
- 1855 <地球萬國全圖>(松田綠山):朝鮮海
- 1862 <環海航路新圖>(廣瀬保庵) 39 cm×30 cm
- 1865 <銅鐫大日本細圖>上, 下 東國之部(上) 大日本總境略圖 (玄玄堂) 20 cm×16 cm
- 1866 <大日本總境略圖>
- 1870 <官許大日本四神全圖> <地球萬國方圖> (湯津香木金) 96.5 cm×122 cm
<明治改訂萬國輿地分圖>
- 1882 <大日本朝鮮八道支那三國全圖> (武田勝次郎) 106 cm×101 cm
朝鮮西海와 일본서해로 표시
- 1883 <人民通商章程>(41 條) (조선전권대신督辦交涉通商事務閔영목과 일본전권대신辦理公使竹添進一郎) <일본어선은 조선국 전라, 경상, 강원, 함경 4 도 해변에서 조선국 어선은 일본국 肥前, 筑前, 石見, 長門의 朝鮮海에 면한 곳에서 고기잡이를 할수 있다.> ※<朝鮮海>이라고 조약문에서 명기
- 1884 <水路雜誌>제 19 호 海軍大尉肝付兼行(기모쓰쿠)가 隱岐國의 위치설명에서 <... 이 방인들은 모두 이를 일본해라 칭함>※즉 <...일본인인 자신들은 朝鮮東海로 인식하고 있는데...異邦人들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 있음
- 19 세기 <新刊地球全圖>
- 1908 <大韓帝國地圖>(玄公廉) 大韓海(72 cm×100 cm) <環海航路新圖>
- 1909 <大韓帝國地圖>(玄公廉) 大韓海(25 cm×33 cm)
- 1930 <新訂萬國全圖> 改訂版世界地圖(高橋景保)
- 1930 년대 <新訂萬國全圖> 世界地圖(高橋景保) 30 cm×39.5 cm
- 1936 <萬代文化皇國史大觀>(공식력사서)元祿時代의 일본지도. 프랑스인이 제작.
OCEAN ORIENTAL
- 1971 <日本地圖集成>(秋岡武次郎編著)(鹿島出版會)
70 여종의 古地圖 (807~1877 까지 제작된 지도)를 集成한 冊子. 일본전국의 고 지도에는 단 한군데도 <일본해>의 표기를 찾아볼수 없다.
- 1977 <日本海의 謎(수수께끼)>(粕野美夫)<일본해란 명칭이 세계지도에 정착한것은 1815 년이후의 일이다. 《17 세기, 18 세기에는 <일본서해>, <타탈해>, <조선만>이라고 불려

왔다》고 서술.

1990년대 <嘉永校定東西地球萬國全圖>(岩田文庫) 72 cm×76 cm

西洋地圖

- 1440 Vinland map, Carpine, Yale Univeksity 東洋海
1528 Bendetto Bordon, Venice Ocean Orientalis MARE ORIENTALE
1540 Sebastian Manster's 의 세계지도 Oceanus Orientalis
1615 프랑스의 <아시아지도> Manuel Godinho de Heredia MAR CORIA
Portugal Godhino de Eredia 의 지도 Sea of Korea, 소문자로(Sea of Japan)
1616 프랑스의 <아시아地圖>
1646/7 영국의 探檢家作製(2 葉)
1647 영국의 <日本蝦夷島図>(Sir Robert Dudlry) MARE DI CORAI
프랑스의 <東아시아지도>
1650 프랑스의 <일본도>, Philippe Briet 의 지도 OCEAN ORIENTAL
1651 프랑스의 <일본도>(東洋海)
1652 프랑스 Nicolas Sanson OCEAN ORI 1658 프랑스 Nicolas Sanson OCEAN ORI
1660 프랑스의 <일본도>(산손 아베빌) OCEAN ORIENTAL
1661 영국의 <日本蝦夷島図>, 아시아지도(Italy 에서 발견), 프랑스의 <일본도>
1670 프랑스 Nicolas Sanson OCEANUS MARE ORIENTALE
1679 프랑스의 지도(영국에서 발견) 북쪽 OCEAN ORIENTAL, 남쪽 Mer de Coree
1680 프랑스의 <일본열도지도>
1681 프랑스의 <일본지도> OCEAN ORIENTAL, MER DE COREER
1683 프랑스의 <일본도> Allain Manesson-Mallet OCEAN ORIENTAL
1694 Bickell & J.Curiup 세계지도 ORIENTAL SEA
1700 프랑스의 地球儀 MERORIENTALE
1705 프랑스의 인도-중국지도 MER ORIENTAL 또는 MER DE COREE
1710 영국 Herman Moll 의 지도 Sea of Korea, Jone Senex: SEA OF COREA
1711 영국 Jone Senex The EASTERN or COREA SEA, 프랑스의 <支那帝國圖>
1712 영국의 일본지도(Herman Moll) Sea of Korea, SEA OF COREA
1714 <北半球圖>(테리즐) MER ORIENTAL
1715 프랑스 Prieter van der Aa La NER DE COREE
1720 영국의 <아시아지도> Sea of Corea, John Senex SEA OF COREA
영국인 제작지도 (Italy 에서 발견) Mare di Corai(高麗), Sea of Korea
1723 프랑스의 아시아지도 MER ORIENTALE, MER DECOREE
1725 Ansterdamj 지도 Mer de Coree
1730 프랑스의 아시아지도 Robert De Vaugondy MER DE COREA
1735 Ansterdamj 지도 Mer de Coree, Jacques Nicdas Bellin
MER DE COREE

- 1736 Ansterdamj 지도 Mer de Coree
- 1738 화란 Tirion 의 지도? Kamchatka 해의 일부에 Mer de Coree,
MER SETNRIONALE DU JAPON
- 1739 Nuremberg Hortier Homann MARE ORIENTA
- 1740 영국 Uohn Senex ORIENTAL SEA The EASTERN or COREA SEA
Amsterdan 아시아지도 Covens & Mortier MER ORIENTAL
프랑스의 중국지도(新世界地圖첩) MAR DI COREA
- 1741 프랑스 guillaume de l'Isle MER DE COREE
- 1744 영국의 <아시아지도> Emanuel Bowen
- 1744, 1747, 1752, 1760 <세계지도첩: A Complete Atlas> (Emanuel Bowen 1706~1767)
SEA OF KOREA
- 1744 프랑스 아시아지도 Joham Matthias Hasius MARE ORIENTA
Homann MER ORIENTALE OU MER DE COREE
- 1745 프랑스 Louis Renard MER ORIENTA
- 1746 Nuremderg: I.M.Hasius MARE ORIENTALE
- 1747 John Green 의 아시아지도 Sea of Corea, 영국의 <遼東地方과 朝鮮王國地圖>
SEA OF KOREA, Harris 의 지도 EASTERN SEA (Korea-Japan)
일본도 MER DE COREE, MER DE JAPON (併記)
Gilles Robert (1686~1766) MER DE COREA
Guillaume de Lisle (1675~1726) 프랑스의 지도
- 1748 프랑스의 지도 MER DE COREE, 프랑스의 세계지도 Bertrand Rene Pallu
MER COREE, 프랑스 Jacques Nicolas Bellin MER DE COREE
- 1749 프랑스의 지도 (Didier Robert de Vaugondy 1686~1760) MER DE COREE
프랑스의 <일본지도> J.N.Delise Map of North Pacific MER DE CORES
프랑스의 <北太平洋地圖>, <아시아지도> MER DE COREE
- 1750 영국의 J.Gibson 의 지도
- 1752 프랑스의 지도 (JAPAN WITH EZO AND KAMCHATKA. J.Nicolas
Bellin. 1703~1772), 영국의 J.Gibson 의 지도
- 1755 프랑스 Vaugondy 의 지도
- 1758 영국의 세계지도 Thonas Jeffreys SEA OF KOREA
- 1761 프랑스의 <아시아지도> M.DE COREE
- 1762 프랑스의 <아시아지도> Rigobert Bonne MER DE COREA
영국의 아시아지도 J.Hinton GULF OF COREA
프랑스의 러시아지도 Robert de Vaugondy MER DE COREE
영국 아시아지도 Sieur Robert SEA OF COREA
- 1763 프랑스의 력사지도 Miche Picaud MER DE COREE
- 1765 프랑스 M.Beron COREE
- 1770 Augustae 간행 Mattaeus Albrecht MARE ORIENTALE

- 1771 <大洋百科事典아시아地圖> SEA OF KOREA(1817 년판은 일본해)
- 1771 영국의 <Britannica 百科事典>초판 SEA OF KOREA
- 1772 영국 Jran Baptsite Bourguignon Danville GULF OF COREA
영국 Samuel Dunn COREAN GULF
Amsterdan 의 지도 Bowen Eman ZEE V. KOREA
- 1774 영국 Tomas Kichin SEA OF KOREA Samuel Dunn GULF OF COREA
Samuel Dunn COREAN SEA
Amsterdanj 지도 Bowen Eman Korea's East Sea, DE ZEE VAN KOREA
- 1771, 1778 <大英百科事典>제 1 판, 제 2 판 (中國論) SEA OF KOREA
- 1776 프랑스 Desnos, Louis Charls MER DE COREE
영국 Emauel Bowen (2 엽) SEA OF COREA
- 1777 Italy 의 Prof, Antonio Zatta <아시아大陸圖> MARE DI COREA
- 1778 영국의 <Britannica 百科事典> SEA OF KOREA
- 1779 영국의 <로시아지도> Bowen, SEA OF KOREA
프랑스 아시아지도 Guillaume de L'Isle MER DE COREE
- 1780 영국의 지도 Gulf of Corea 영국 아시아지도 John Gibson SEA OF COREA
- 1781 영국 아시아지도 Thomas Kitchin SEA OF COREA
- 1782 프랑스의 東半球圖 M. de Coree
- 1783 영국 S.J. Neel SEA OF KOREA
- 1785 Amsterdan 의 지도 Eman Bowen ZEE VAN KOREA
Spannish 아시아지도 MER DE COREE
- 1787 영국 Jean Baptiste Bourguignon d'Anville GULF OF KOREA
- 1788 Amsterdan 의 아시아지도 Gerrit Brender A Brandis COREASE ZEE
- 1789 영국 Garington Bowles GULF OF COREA
- 1790 영국의 <일본지도> COREAN SEA Thomas Conder SEA OF KOREA
영국의 지도 Gulf of Corea
- 1792 영국 J. Palairret (2 엽) SEA OF KOREA
- 1793 러시아의 지도 Gemom Uchilishche KOREAN SEA
- 1794 Dublin A. Keiht KOREAN SEA, GULF OF COREA
영국 Jean Baptiste Bourguignon D'Anville COREAN SEA
영국 Robert Sayer(1725~1794) COREAN SEA
영국 Robert Wilkinson COREAN SEA, 지도(3 엽) GULF PF COREA
영국 D' Anvill Robert Laurue COREAN SEA, COREA SEA
영국 Herman Moll SEA OF COREA
영국 D'Anvill Robert Laurue (3 엽) GULF PF COREA
- 1795 영국 Laurie, Whittle GULF OF COREA
- 1796 영국 아시아지도 D'Anville and Robert Laurie GULF OF COREA COREAN SEA
- 1799 프랑스 신아시아지도 G. Thompson GULF OF KOREA

- 영국아시아지도 J. Russel GULF OF COREA
 영국 Jean Baptise GULF OF COREA
 Jean Baptiste Bourguignon D'Anville COREAN SEA
 J. Robinson SEA OF KOREA, Sea of Korea
 1800 Dezauche가 수정한 Carte D' Asia Mere DE Corer
 1805 년 간행한것에서는 MER DE COREE ou du Japon
 프랑스의 <아시아지도> MAR DE COREA
 프랑스의 <아시아지도>
 1804 프랑스의 지도 DETROIT DE COREE
 1805 프랑스의 <아시아지도> Dezauche MAR DE COREA, 밑에 작은 문자로
 ou du JAPON
 1807 Aaran Arrowsmith 税 走龜 Gulf of Corea
 1808 J. Pinkerton 對島해협에 DETROIT DE COREE
 영국 Captain Cook's 항행도 COREAN SEA
 1811 프랑스의 <아시아지도> MAR DE COREE
 1820 (M. Bonatti inc.) G. di Corea
 1833 영국 아시아지도 GULF OF COREA
 1840 영국 아시아지도 GULF OF KOREA
 1844 영국 세계지도 Wyld SEA OF COREA
 1864 영국 J. Barhtolomew STRAIT OF COREA
 1870 영국 E. Weller STRAIT OF COREA

중국의 사료

- ① 後漢(25~220)~兩晉(東晉 317~420 晉 557~589), 南北朝(5 세기 20 년대~6 세기 80 년대) 고유명칭은 없고 東海, 大海, 東抵大海로 인식 ② <舊唐書>卷 199 (당왕조의 정사; 945 년완성, 200 권) 高麗傳, 新羅傳, 日本傳에는 大海, 海 ③ <新唐書>卷 219, 卷 202(구 당서를 1060 년경에 재편찬, 220 권) 高麗傳, 新羅傳, 日本傳에는 大海, 海 ④ <初學記>卷 6 (類書, 일종의 백과사전 40 권; 당대의 8 세기초) 東海를 <渤海> 또는 <滄海>로 記述 ⑤ 遼(916~1125) 朝鮮海 ⑥ 金(1115~1234) (未詳) ⑦ 宋(960~1279) 朝鮮海 ⑧ 元(1271~1368) 鯨海 ⑨ 明(1368~1644) 鯨海, 동북부를 <東海>, 남부를 <南海>
 ⑩ 淸(1616~1911) 東海東北部는 <東海>, 東海南部는 <南海> ⑪ <西伯利東偏紀要> (1885) 東海와 日本海 併稱 ※중국에서 併稱의 <最初> ⑫ <輿地圖> (1265~1274) 西海와 東中國海 및 東海를 하나로 <大海>로 보고 <朝鮮東海> ⑬ 12 세기의 傳說 <華夷圖>에 朝鮮東海가 나타나며 16 세기 <四海華夷總圖>까지 계속 사용. 그리고 그후 朝鮮半島의 모양이 정확히 될때까지 사용, 1613 년 중국지도 Zang Huang's Sihai-Hua-Yi-Zintu 東海

※일본측의 주장 <어떤 지역의 동쪽에 위치하는 바다에는...>식으로, 설명으로 사용하고있으니 <東濱大海>와 같은것은 지명이 아니다.

Russia 의 사료

현재 일반적으로 연구자들은 조선과 관련이 있는 지도가 작성된것은 대체로 1639 년이후로 보고 있다. 그것은 러시아인들이 태평양연안지역에 진출한 시기와 대체로 일치된다.

17~18 세기초 대부분의 지도 Eastern Sea-Ocean, Warm Sea (러시아의 추운 바다에 대비하여 따뜻하다는 의미이다)

1687 Nic Witzgen 의 Noord en OostTartary 지도 Oceanus Orientalis (東洋海)

1725 N.Goman 의 지도 東海(Eastern Sea)

1734 I.Kiorilov 의 지도 東海(Vostochnoe)

1737 <아시아지도>(Peter Bourg Academy of Sciences 간행) Kopeckoe Mope

1739 Hertier Homann MER ORIENTA

1745 과학원출판지도 Koreiskoe Mope(Sea of Korea)

1745~1791 기간에 간행된 地圖 모두 朝鮮海

1844 러시아정부간행의 공식지도 朝鮮海

※일본측의 주장 Russia 인이 <일본해>이란 명칭을 류포시켰다.

<일본해>로 표기된 지도

1602 翻譯版世界地圖<坤輿萬國全圖>(中國)(明代에 Matteo Ricci 의 지도 번역판)
東海를 大明海, 일본의 정보가 Europe 에 보다 널리 들어간 시기 <일본해>
화란의 <일본 및 蝦夷島>를 번역한 지도

<坤輿萬國地圖>(Matteo Ricci) 나가사키(長崎)의 宣教師에서 資料提供받음

1652 和蘭의 日本 및 蝦夷圖

1735 和蘭의 <신제국일본> 프랑스지도의 영어판<중국지도>(듀 할데)

1750 프랑스의 J.N.Bellin 의 지도?

1759 Goman 의 지도 (일본동해)

1741~1788 프랑스의 探險家 La Oerouse Sea of Japan

1770~1846 Russia 인 Adam Johann von Krusenestern Sea of Japan

1779 <일본국> (프랑스 보공디)

1787 La Perouse 일본주변도

1792 司馬江漢 <地球全圖>

1797 프랑스의 蝦夷, Kamchaka Pen. 및 Kuri(千島)列島 지도
중국과 몽골 부근의 일반지도 (La Perouse)

1798 일본지방도 (La Perouse)

1799 영국의 La Perouse 의 지도, 태평양지도(아론 애로우스미스)

1801 프랑스의 E.Mentelle 의 지도

1805 드조쉬가 제작한 지도(一說)

1809 영국의 일본 및 조선도(J.Pinkerton 등)

1810 영국의 J.Playfair 의 지도

- 1812 미국 일본도
- 1813 태평양북서부지도(I. F. Krusenstern:1770~1846)
- 1815 영국의 일본 및 조선도(J. Thomson) (1817 의 지도)
로시아 世界周航記(I. F. Krusenstern) 1835 영국의 일본도(J. & C. Walker)
- 1840 영국의 조선반도 1844 영국의 A. K. Johnston
- 1846 프랑스의 조선반도도, 프랑스의 V. Levasseur 의 지도
- 1851 영국의 J. Parpkin 의 지도 1854 松田龍山の 지도
- 1856 日本近域圖(航海記)(하이데) JAPANISCHES MEER
- 1862 일본도일부 (영국. Colton) 1864 영국의 J. Bartholmew 의 지도
- 1865 프랑스의 A-H. Brue 의 지도
- 1870년대이후 일본정부가 관여한 <공식지도>. <일본해>가 나타나기 시작
1871년의 <萬國地圖>(松田綠山), <新刊輿地全圖>(橋本澄月)
※이후 중국에서도 이 지도를 사용하기 시작
- 1872 일본의 지도 <掌中輿地萬國全圖>, <新訂輿地全圖>, <萬國全圖>
- 1873 일본의 지도 <輿國萬國全圖> 1874 일본의 지도 <萬國新圖>
- 1862 Colton Atlas 의 번역판 일본지도(格稱頓) 木板(448 cm×383 cm)
- 1863 영국해도(일본정부의 공인자료로 편집)
- 1864 독일의 A. Petermann 의 지도
- 1870 영국 E. Weller(日本輿地路程全圖)
- 1874 영국 J. Migeon 의 지도
- 1875 <地球五大洲全圖>(中國 其熙)
<亞洲地理志略方>第1卷 悉畢稱全圖(中國 王先謙 (1842~1917))
- 1894 <中外地輿圖說集成亞細亞全圖> (中國, 英國, 佛國의 지도 및 日本資料를 참고로 만든 지도)
Adam Johan Krusestern (1770~1846; 探險家 La Perouse 作製海圖利用한 地圖)
- 1787 프랑스의 探險家의 지도(探險家 La Perouse[1741~1788] 作製海圖利用한 地圖)
프랑스에서도 이 시기부터 <일본해>가 나타나기 시작함
- 1798, 1799 영국의 세계지도
- 1815 영국 <대양백과사전>개정판. ※이 지도는 당시의 探險地圖를 참고로 작성

※일본측의 주장 ① 1884년경 清朝官僚의 일부는 문서에서 Sea of Japan 로 사용하는 자
자도 있었다. ② 일본에서도 일시 동쪽의 바다인 태평양을 <일본해>로 호칭한바가 있다
③ 1871년 이전에는 <동해>로 기재한 문헌은 없다. ④ 국가정책으로 <Sea of Japan>로 강
제한바는 없다.

V 국명,지명 표기에서 식민지시대의 잔재를 청산하는것은 현대의 일반적추세

최근시기 朝鮮東海(東海)表記의 지도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올린다면 다음과 같다.

- 1955 日本觀光地圖(高梨正和編) 일본해(朝鮮海) 병기
- 1997/10 영국 백과사전 <朝鮮東海>표시 삽입
- 1997/8/14 미국지도업자 신판지도에 <朝鮮東海>併記할것 결정
- 1997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간행 East Sea
- 1998 Britannica 백과사전(병기)
Britannica CD-ROM 조선을 중심으로 한 지도 EAST SEA(SEA OF JAPAN) 일본을 중심으로 한 지도 SEA OF JAPAN(EAST SEA)
Micro Soft 社 “CD-ROM” 병기
- 1998/10 Rand McNally 社 병기할것을 결정
- 1998/12 세계적인 지리전문잡지 National Geographic 병기할것을 결정
- 1999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출판
Or graphic Map of Korea (E.Dege) EAST SEA (Sea of Japan)
- 1999/8~9 미국 대학지리교재 東海의 주명칭을 <East Sea>로 병기할것을 결정
- 1999 WWW.ENCARTA.COM-MICROSOFT 2000 Sea of Japan (East Sea)
Geography East Sea (Sea of Japan)
National Geographic Society 에서 간행지도;모두 朝鮮中心地圖에는 East SEA(Sea of Japan) 세계지도에는 Sea of Japan(East Sea)
WWW.atlapedia.com/online/maps/politica/Korea EAST SEA/SEA of JAPAN
http://darkwing.uoregon.edu/~felsing/kutuft/Korean-Peninsula. GIF East SEA
- 2000/1/24 국제수로기구 朝鮮東海-일본해 併記하기로 결정
- 2000/6/19 프랑스 신문 일본해를 <조선동반해>로 변경
- 2000/6/19 프랑스신문 夕刊紙 Le Monde<일본해>를 <조선방방만>으로 변경
- 2001/1/30 <로동신문> 제7 차국련회의에서 일본이 朝鮮東海호칭문제의 토의를 거부한것
과 관련하여 침략적죄악문제라고 지적하는 론평
- 2001/7 Randmenall 社 East Sea 사용
- 2001/8/24 미국 McAther 박물관 동해로 표기
- 2002/1 일본지리관계출판사 <昭文社>의 세계지도(3 중) <朝鮮東海>-<일본해>로 표기
- 2002/4 남조선에서 <朝鮮海>표기 고지도 영문광보책자 발간
프랑스 신문 <朝鮮東海>표기
- 2002/5 Mexico 의 보도계가 <朝鮮東海>표기 시작
- 2002/6/9 미국의 inter net 社가 地圖檢索에서 병기개시

2002/6 현재로 inter net 상에서 併記(혹은 東海單記)하고 있는 site 는 다음과 같다.

()는 장소수이다.

AOL (2), Ask Asis (4), Atlapedia Online (4), Britannica (5), Encarta Online(21),

Expedia com. (1), infopolease.com (2), Lonely Planet (3), International Waste Management (1), ITA (1), Lycos (2; 병기예정), National Geographic (2), Rand McNally (1; 지도는 단기, 지명은 병기,)

맺음

우리 나라에서는 朝鮮東海의 호칭은 B.C59 년의 三國史紀, 414 년의 廣開土王陵碑와 함께 그 이후의 歷書에서 찾아 볼수 있다. 지도상에 朝鮮東海가 나타나기 시작한것은 <新增東國輿地勝覽>(1530), <西北界圖>(1712~1776 년경)이다. 일반적으로 20 세기초에는 <朝鮮東海>, <朝鮮海>, 그리고 식민지시기에는 <일본해>가 사용되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71 년에 일본의 古地圖(805~1877 년간사이)를 수집편집하여 간행된 <日本全圖類>에는 <일본해>이란 표기를 찾아볼수 없다. 19 세기초(즉 1800년대)의 세계지도에는 朝鮮東海를 朝鮮海로 표기, <官許大日本四神全圖>(1870. 明治3年)에서는 朝鮮東海海域을 <朝鮮海>, 일본근해를 <日本西海>로 표기하고 있다.

서양에서 가장 많은 호칭은 <MER DE COREE>(朝鮮海)이다. 극히 소수로 <MER DU JAPON>이 있으나 일부에는 <MER ORIENTAL>(東洋海), <MAR CHIN>(中國海)가 보인다.

이상 검증해보면 <朝鮮東海呼稱問題>의 역사적경위는 명확하며 일본측이 주장하는 <일본해>명칭의 부당성은 더욱 확실한것으로 된다.

우리가 제기하는 <朝鮮海>, <朝鮮東海>, <東海>로 호칭하는 문제가 歷史的인 經緯로 보나 식민지시기를 전후한 사실관계로 보나 얼마나 다당성이 있는 문제인가를 여실이 보여 준다.

主要 參考文獻 및 引用文獻

- 1970~1975 司空俊 《朝鮮地名研究》(5回 日本地理學研究會 發表)
 1975 《동아일보》 기사(2/21) 1992 《동아일보》 기사(10/3) 1996 《동아일보》(2/4)
 1975 司空俊 《古地圖에서 본 朝鮮東海》(日本地理學研究會 發表)
 1981 司空俊 《朝鮮古地名研究》(朝鮮科學者協會 研究發表)
 1987 司空俊 《<朝鮮東海> 呼稱問題》(朝鮮科學者協會 研究發表)
 1989 司空俊 《獨島, 竹島, 松島, 大島는 同意地名》조선신보(6/23)
 1993 《조선신보》(우리말 및 일어판) 보도(7/12) 《조선신보》보도(10/5)
 1994 司空俊 《朝鮮古地圖研究》(地理研究會 社會科學部門研究 發表會)
 1994 《조선신보》보도(9/24) 《아리랑》(10) 특집 월간《경기》특집
 1997 司空俊 《論議되는 朝鮮東海呼稱問題》(地理研究會古地名研究部會 發表)
 1997 司空俊 《獨島는 朝鮮固有의 섬: 그의 歷史的背景》<同胞와 生活>1호
 1997 司空俊 《朝鮮東海 國際慣習과 歷史主義》(조선신보 1/22 조선의 풍토)
 2000/3 司空俊 《<朝鮮東海>呼稱問題小考》(아시아연구회 발표)

- 2001 국제심포즘 《동북아시아력사상의 공유를 구하여》 보고(7/29,30)
 李琦錫 《<東海>地理名稱의 력사와 국제표준화론의》(論文要旨)
2001 《地理》 47-2 (일본 지리학전문잡지) 관련논문

민족과 민족문제의 본질에 대하여

강민화

필자는 올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학위학직수여위원회에 《민족문제에 관한 주체적연구》라는 제목의 박사(사회정치학)학위론문을 제출하였다.

민족이란 무엇이며 민족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오래동안 논의가 벌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껏 이 문제에 대하여 세인들이 납득할만한 대답이 주어지지 못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민족과 그 형성에 관한 문제, 민족의 생명과 운명에 관한 문제,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위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명을 주시으로써 민족문제에 관한 주체적인 사상과 리론이 정연하게 체계화되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민족이 나아 갈 앞길이 밝혀져 있다는 것을 통감한 필자는 민족문제에 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그이의 과학적인 민족관을 해설선전하며 그를 통해서 조국의 통일과 재일조선인운동의 강화발전에 다 소나마 기여할 목적으로 이번 학위론문을 쓰게 되었다.

학위론문의 체계는 다음과 같다.

1. 민족

- 1) 민족과 그 형성
- 2) 민족의 생명

2. 민족문제

- 1) 민족문제의 본질
- 2) 민족발전의 합법칙성

3. 민족의 위상

- 1) 민족과 인간
- 2) 민족과 계급
- 3) 민족과 제도
- 4) 민족과 조국

4. 민족리념

- 1) 민족주의
- 2) 민족자주리념
- 3) 사이비 민족주의

5. 민족의 우수성

- 1) 조선민족의 우수한 민족성
- 2) 조선민족제일주의

6. 민족의 위대성

- 1) 민족과 수령
- 2) 민족과 사상
7. 민족의 사회적문제
 - 1) 주체성의 견지
 - 2) 민족성의 고수
8. 민족의 자주적발전
 - 1) 사상, 정신적 지주의 견지
 - 2) 민족지주원칙의 구현
 - 3) 민족의 주체적력량 강화
 - 4) 《세계화》와 반민족적세력의 척결
9. 민족과 재일조선인문제
 - 1) 재일조선인문제의 본질과 발생근원
 - 2) 재일조선인문제 해결의 길
10. 민족과 조국통일문제
 - 1) 조국통일문제의 본질
 - 2) 조국통일 3 대헌장
 - 3)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의의

이 글에서 필자는 자기 학위논문중의 민족과 민족문제의 본질에 관한 부분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려고 한다. 그것은 재일동포들의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여 나간다고 할 때 민족과 민족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이해를 가지는것이 그 첫 공정으로 된다고 보기때문이다.

1. 민족이란 무엇인가

1) 민족과 그 형성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민족관에서 출발점으로 되는것은 민족과 그 형성에 관한 과학적인 이해의 정립이다.

지금까지 민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확립되지 못한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민족의 본질이 그릇되게 해석되어온데 있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적지 않은 사람들속에서 세계적으로 민족들간의 련계가 발전하고 있는 사실을 절대화하면서 민족이나 민족문제를 차요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은 민족을 떠나서 살수 없고 인간의 운명은 민족의 운명과 뗄수 없이 련관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민족이란 무엇인가 하는데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여야 할 요구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지금까지 민족에 대해서는 각이하게 해석되어 왔다. 프랑스의 고비노와 나치스의 인종론자였던 귄테르와 로젠베르크는 민족을 《인종적혈연의 공동체》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굽플롭츠, 헤이즈, 카우프끼와 같이 민족을 《문화, 언어의 공동체》로 보는 사람들도 있었

으며 만조니와 같이 민족을 《토지, 조상, 풍속, 언어, 종교의 공통성, 사회적의식을 같이 하는 집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레닌은 《민족은 하나의 정신》이라고 하였고 렌네르, 바우에르는 민족을 《땅과는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인간그룹의 문화적공동체》, 《동일하게 사유하며 동일하게 말하는 사람들의 동맹》으로 보았다. 또한 바우에르는 《민족이란 성격의 상대적인 공동체》라고 하면서 민족적성격은 《육체적 및 정신적 특질의 총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들은 인간집단들이 지닌 개별적특성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민족의 본질을 규정하려는 시도로서 그것은 민족에 대한 올바른 견해로 될수 없었다.

쓰탈린은 자기 저서 《맑스주의와 민족문제》에서 민족이란 언어, 지역, 경제생활 그리고 문화의 공통성에 표현되는 심리상태 등의 공통성에 기초하여 발생하였으며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정의하였다. 그의 이러한 정의가 민족의 본질을 이해하는데서 일정한 도움을 준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는 민족이 지닌 개별적특성들을 열거하는데 그치었다.

쓰탈린은 또한 언어, 지역, 경제생활, 문화적공통성을 민족을 특징짓는 기본징표로 보고 이 네가지 징표들 가운데 하나라도 결여되면 민족이라고 할수 없다고 보았다. 그의 정의는 유물사관의 방법론에 기초하여 내려 진것이기때문에 그가 열거한 민족의 네가지 징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징표는 경제생활의 공통성이며 이 징표가 갖추어진 기초우에서만 민족의 다른 징표들이 형성된다는 결론이 도출되게 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과거 유럽의 실정에서 출발하였거나 유물사관에 기초해서 나온 이전의 민족관들의 제한성을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민족이란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사회적집단이며 운명공동체이라고 민족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정식화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나리와 민족은 사회력사적으로 형성된 사람들의 공고한 결합체이며 운명의 공동체입니다.》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단행본 9~10 페이지)

사람들의 집단이면서도 다른 인간집단가운데서 가장 포괄적이며 공고한 사회적집단이고 그 성격상 사람들의 일시적접합체가 아니라 운명공동체라는데 민족의 본질이 있고 특성이 있다. 민족이 가장 포괄적이고 공고한 사회적집단이라는것은 민족이 자체안에 계급과 계층을 포섭하고 있는데서 알수 있다. 계급과 계층은 일정한 역사적단계에서 형성되고 또한 일정한 역사적단계에 가서는 없어 지지만 민족은 영원하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민족의 본질과 함께 그 징표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해명하시였다.

민족을 이루는 기본징표는 피줄, 언어, 지역의 공통성이며 이 가운데서도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은 민족을 특징 짓는 가장 중요한 징표로 된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견해이다.

민족은 일정한 사회환경에서 오래동안 함께 살아 온 사람들로 이루어 진 공고한 사회적 집단인만큼 민족을 특징 짓는 기본징표는 무엇보다도 그러한 사람들 자신과 그들의 생활환경에서 찾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민족을 이루는 사람들 자신이 체현하고 있는 공통성 가운데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이라고 할수 있다.

피줄의 공통성은 민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다.

그전에는 피줄의 공통성은 사람의 생물학적공통성이기때문에 사회적범주에 속하는 민족을 특징짓는 징표로 보지 않았다. 그러나 피줄이 유전에 의하여 전달된다는 점에서는 그 공통성이 생물학적속성이지만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서 오래동안 살아 온 과정에 형성된것이라는 점에서는 사회적성격을 띠게 된다.

민족의 징표로서의 피줄의 공통성은 씨족, 종족들의 그것과는 구별된다. 씨족, 종족들의 피줄의 공통성은 가족, 친척과 같은 혈연적인 관계의 범위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것이지만 민족으로서의 피줄의 공통성은 일정한 지역적범위에서 사회력사적으로 이루어진것이다.

민족에는 원래부터 하나의 피줄을 이어 받은 단일민족도 있고 혈통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지역에서 오래동안 공동생활을 하면서 혈연적으로 연결되어 피줄의 공통성을 이룬 민족도 있다.

우리 민족은 단군이래 한 강토에서 오래동안 살면서 하나의 피줄을 이어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떨쳐 온 단일민족이다.

민족을 이루는 징표의 하나는 또한 언어의 공통성이다.

사람들의 사상과 의사의 표현형식이며 사회적교제의 수단인 언어는 사람들이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누리는 과정에 형성되고 대를 이어 민족과 더불어 공고발전한다.

민족이 서로 구별되는것은 언어생활의 독자성과도 관련된다. 언어는 민족의 가장 중요한 특성, 징표를 이루면서 민족문화의 형식을 특징지으며 그 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한다.

그러나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하여 그 사람들이 다 하나의 민족을 이루게 되는것은 아니다. 세계에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서로 다른 민족들이 적지 않다.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피줄이 다르면 하나의 민족으로 될수 없다.

문화생활의 공통성도 민족의 중요한 징표로 된다. 사람들이 하나의 혈통을 가지고 같은 말을 하면서 오랜 기간 함께 살아 오는 과정에 문화생활의 공통성이 형성되고 공고화된다.

문화생활의 공통성은 문학예술, 생활양식, 풍습 등에서 나타나는 공통성으로서 민족을 이루는 사람들의 감정, 정서, 심리적특성을 반영한다. 문화생활의 공통성은 민족의 고유한 민족정신, 민족성을 표현하며 민족자주의식을 높이는데서 커다란 작용을 한다.

민족의 중요한 징표에는 또한 지역의 공통성이 있다.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살아 오는 과정에 하나의 피줄로 이어 지고 같은 언어를 쓰고 문화생활을 해나가는 과정에 공고한 집단으로 결합되게 된다.

지역의 공통성은 사람들을 하나의 생활단위로 결합되게 하는 중요한 조건이다. 사람들은 일정한 지역에서 오래동안 공동으로 명토를 개조, 리용하고 보위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의 생활단위, 공고한 사회적집단으로 결합되게 되었다.

지역의 공통성은 또한 피줄과 언어, 문화생활의 공통성을 이룩할수 있게 하는 자연적환경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발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그로 하여 지역적공통성이 민족의 중요한 징표로 되기는 하나 본질적이고 규정적인것으로 될수 없게 되었다. 만약 지역적공통성을 절대화한다면 해외에서 사는 민족성원들은 같은 민족인이 아니

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대학생시절에 일본에서 살고 있는 조선동포들은 지난 날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지주, 자본가들의 가혹한 착취와 압박에 못 이겨 정든 고향을 떠나 살 길을 찾아 현해탄을 건너 간 사람들인것만큼 재일동포들이 지금은 비록 일본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도 조선민족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또한 민족을 이루는 중요한 징표를 고전에서 찾을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에서 찾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지난 날 살 길을 찾아 해외로 떠나 갔거나 《징용》과 《징병》으로 다른 나라에 끌려 간 조선사람들은 우리와 한 피줄을 이어 받고 고유한 우리 말을 쓰며 조선의 미풍양속을 존중하고 우리 조선사람의 넋을 간직하고 있는 조선민족이라고 강조하시였다.

민족의 본질, 징표와 함께 중요한것은 민족이 언제 형성되었는가 하는 문제이다.

민족들이 형성된 경로는 제각기 다르다. 어떤 민족들은 자본주의의 발생과 더불어 형성되었으며 또 어떤 민족은 그보다 훨씬 이전에 형성되었다.

선행고전가들은 민족의 형성문제를 자본주의의 발생과 결부시켜 논의하였다. 쓰팔린은 자본주의 이전시기에는 민족이 없었으며 또 있을수도 없었다고 하면서 민족은 단순히 역사적범주가 아니라 일정한 시대 즉 대두하는 자본주의시대의 역사적범주라고 보았다.

특히 맑스-레닌주의는 모든 나라들에서 자본주의제도가 청산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이 친척됨에 따라 민족자체가 점차 없어 질것이라고 예언하였다. 이것은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는것이 기본문제로 나섰던 당시의 역사적조건을 반영한것이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민족을 자본주의시대의 산물로 보는 이러한 견해를 교조적으로 대하던 나머지 어떤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 일제의 식민지통치시기에 형성되었다고 하거나 심지어 해방후에야 형성되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하여 비판하시면서 1910년대 초 유럽 나라들, 주로 로씨야와 같은 다민족국가의 실태에 기초하여 전개한 리론은 당시 그 나라에서는 맞을수 있었으나 단일민족인 우리 나라 실정에서는 그대로 맞을수 없다고 지적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조선민족은 예로부터 한 강토안에서 한 피줄을 타고 같은 말을 하면서 살아 왔으며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민족의 본질과 형성문제에 대하여 해명하시였을뿐아니라 민족사를 주체적립장에서 새롭게 정립하시였다.

신라와 김유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온것은 아득한 옛날부터였다. 고려의 학자가 1145년에 편찬한 《삼국사기》로부터 계산하면 800여년이고 고려의 어느 한 중이 13세기 후반기에 편찬한 《삼국유사》로부터 계산하여도 700년을 헤아린다.

그런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벌써 대학생시절에 수세기가 거쳐 이끼가 덮이고 더데가 앉도록 해묵고 응결된 이 견해를 사대주의사관이라고 비판하시고 깨뜨려 버리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신라가 3국을 통합하여 국토통일을 이룩하였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것은 그릇된 주장이라고 지적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신라 통치배들이 신성한 우리

땅에 처음으로 외세를 끌어 들인 사대주의의 첫 조상들이라는것을 놓쳐서는 안된다고 하시면서 외세인 당나라의 침략무력과 합세하여 동족의 나라들인 고구려와 백제를 멸망시킨 신라에 대하여, 그리고 신라왕조의 외세의존정책을 앞장서서 집행한 김유신에 대해서도 응당 재평가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 설은 최근에 남조선에서도 재검토되기 시작하였다. 얼마전에 남조선에서 신라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통사 《신라의 력사》가 나왔는데 이 책의 저자인 서강대의 리중옥교수는 신라가 패강이북의 고구려 령토를 장악한것이 아닌만큼 《삼국통일》이라는 용어는 옳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한겨레 02.5.31)

경애하는 장군님의 이처럼 투철한 주체적민족사관은 민족을 귀중히 여기시고 민족의 자주적발전을 도모하시려는 숭고한 뜻과 의지에서 나온것이다.

2) 민족의 생명

민족에 대한 올바른 견해와 립장, 관점을 가지는데서 중요한것은 민족이 자기를 발전시키며 자기를 지킬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세계의 수많은 민족들이 형성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자기 존재를 유지하면서 살아 오고 있는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에게 자기의 고유한 생명이 있기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민족이 독자적인 단위로 생활하며 자기를 상실당하지 않으려 하는 리유에 대하여 구태여 밝히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 리해할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민족문제는 많은 경우에 외적인 강제와 압력을 반대하는 문제로 논의되어 왔기때문이다.

민족문제는 단순히 외적인 강요나 침해로부터 벗어 나는 문제가 아니라 민족고유의 본성에 기초한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발전에 관한 문제를 포괄한다. 즉 민족문제는 민족이 독자적이고 자립적인 발전을 어떻게 기하겠는가 하는 문제와 함께 민족이 외적인 강제나 압력을 어떻게 막아내는가 하는 두가지 측면을 포괄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민족이 자기를 발전시키며 자기를 지킬수 있게 하려는 근본요인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자주성은 민족의 존재와 번영을 담보하는 민족의 생명입니다.**》 (《다부작예술영화 <민족과 운명>의 창작성과에 토대하여 문학예술전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 단행본 19 페이지)

사람에게 생명이 있는것처럼 사람들의 사회적집단인 민족에게도 생명이 있다. 바로 그것이 민족의 존재와 발전을 담보하는 자주성이다.

민족의 자주성이란 민족이 그 어떤 다른 민족의 지배나 예속을 받음이 없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어 살려는 성질이다.

사람들이 민족을 운명공동체로 삼고 살아 나갈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은 자주성을 생명으

로 하고 있기때문이다.

자주성이 민족의 생명이라고 하는것은 그것이 민족의 존재와 발전, 그 운명을 규정하는 근본적이고 규정적인 의의를 가지는 성질이라는것을 의미한다.

독자성과 자립성으로 표현되는 자주성이야말로 민족의 존재와 발전을 규제하는 근본성질이다. 때문에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은 지배와 예속, 민족적허무와 타민족에 대한 숭배, 의존과 같은 온갖 비주체적이고 자기 상실적인 요소나 경향과 대립된다. 자주성의 상실은 곧 민족의 상실로 이어 진다. 자주성이 강한 민족은 불패이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퇴영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

그러면 자주성이 민족의 생명으로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주성이 민족이 세계 여러 민족들속에서 독자적인 주체로서 존립할 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으로 되기때문이다.

모든 사물현상이 자기 존재리유를 가지고 있는것처럼 사람들의 사회적집단인 민족에게도 자기 존재리유가 있기 마련이다. 민족이 역사적으로 형성된 가장 공고한 사회적집단, 운명 공동체로서 존재하고 발전해 나갈수 있는것은 자주성이라는 성질이 있으며 그것을 생명으로 하기때문이다.

자주성을 지키는것은 민족의 생존과 발전을 위한 근본담보이다. 민족이 자주성을 전지하여야 민족으로서의 권리와 리익을 지킬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 의사와 요구에 맞게 개척하여 나갈수 있다. 민족이 자주성을 잃고 외세의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 나지 못하면 민족의 권리와 리익, 민족성과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고 민족적 천대와 멸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자주성이 민족의 생명으로 되는것은 또한 그것이 민족의 고유한 징표들을 보존하고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근본성질이기때문이다.

민족을 이루는 징표들 가운데서 본질적인 징표는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이다. 지난날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가 조선민족의 말살을 추구하면서 《창씨개명》으로 조선사람의 성과 이름을 빼앗은 사실이나 우리 말과 글을 빼앗고 일본어를 강요한 사실은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이 민족의 본질적인 징표이라는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타민족에로의 동화나 변질은 곧 민족의 분열과 쇠퇴를 초래하며 그러한 민족은 종당에는 멸망하게 된다. 그런데 민족이 지닌 자주성은 피줄과 언어의 혼탁과 그 상실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민족이 지닌 지역적공통성도 자주성을 지킬 때에만 보장된다. 만약 민족구성원들이 자기 땅, 자기 나라를 버리고 다른 지역이나 나라에로 떠나 간다면 민족집단은 자기를 유지할수 없다.

민족내부의 일부 성원들이 다른 나라에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민족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민족의 대다수 성원들이 자기가 나서 자란 조국땅을 잊지 않고 대대로 살아 온 자기 나라를 지키며 거기에서 생활하게 된다. 이것은 자주성이 피줄과 언어의 공통성과 함께 지역적공통성을 고수할수 있게 하는 근본요인이라는것을 말해 준다.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이라고 할 때 그것은 곧 정치적자주성을 의미한다.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예속되거나 다른 민족의 지배와 지시에 복종할것이 아니라 자기

문제를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결심하며 자기 민족의 이익과 요구에 맞게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는것이 곧 민족이 정치적자주성을 견지하는것으로 된다.

민족의 정치적자주성은 민족국가들의 자주적인 정책과 로선의 작성 및 집행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 정치적으로 자주하는 민족이라야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될수 있고 독자적인 발전을 도모할수 있다.

자주성이 없는 민족은 자기의 고유한 혈통, 자기 민족어도 지킬수 없게 되며 민족고유의 전통과 풍습을 보존시킬수 없게 된다. 이것은 세계 수많은 민족들이 자기의 주체성과 독자성을 고수하여 온 현실적인 상황이 그대로 실증해 준다.

자주성은 모든 민족에게 고유한 생명이다. 억압자민족이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지배하는 것은 민족본연의 성질인 자주성을 버리기때문이다. 자주성이라는 성질은 자기 존엄과 권리를 지키려는 성질인 동시에 다른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귀중히 여기고 존중할것을 요구하는 성질이다.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고 그것을 민족적 존립과 발전을 위한 모든 활동의 근본바탕으로 삼을 때 민족은 존엄 있고 번영하는 삶을 영위해 나갈수 있다.

참으로 자주성을 민족의 생명으로 보고 온 겨레가 단결하여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이룩하여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이어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주체적민족관이다.

2. 민족문제

1) 민족문제는 민족의 운명문제

력사적으로 민족문제는 항상 첨예하게 제기되었으며 랭전의 종식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것도 민족문제이다.

21 세기에 이르러서도 민족문제가 인류의 과제로 나설것이 전망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2000 년대에 가서 세계사를 어둡게 만들 가장 큰 요인중의 하나가 《민족주의의 부활》이라고도 하였다.

그러면 민족문제란 무엇인가.

맑스주의 이전시기 민족문제는 주로 민족들이 지닌 개별적특성을 살리기 위한 문제, 또는 민족들의 《문화적자치》에 관한 문제로 논의되었다.

맑스주의는 민족문제를 유럽의 《문명》한 민족이 겪는 민족적불평등을 없애는 문제로 취급하였으며 레닌주의는 민족문제를 식민지민족문제 즉 식민지민족의 해방에 관한 문제로 설정하고 그것이 종주국혁명에 의하여 해결되는 문제로 보았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민족문제에 대한 옳바른 리론적해명이 없이는 그 어느 나라에서도 민족문제를 정확히 해결할수 없다고 하시면서 민족문제가 고전에서 어떻게 정식화되었든 반드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여 풀어야 한다고 민족문제 해결의 출발적기초에 대하여 밝히시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문제를 주체적립장에서 풀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견해이다.

이러한 주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 민족문제란 민족의 운명문제이다. 다시말하여 민족의 운명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겠는가 하는 문제가 곧 민족문제이다. 이것은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다. 민족이 자주성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그것을 어떻게 옹호하고 실현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곧 민족문제, 민족의 운명문제의 내용으로 된다.

민족문제가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로 되는것은 자주성이 민족의 생명이기때문이다. 민족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은 곧 민족이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고 지키며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으로 된다. 이 과정을 통하여 민족의 운명이 개척되며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되면 민족문제가 해결되게 된다. 따라서 민족문제는 단순히 식민지적처지에 있는 민족에 한한 문제가 아니라 독자적으로 존립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제기되는 문제이다.

민족문제, 다시말하여 민족의 자주성 실현문제가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제기된다고 해도 그것이 어느 민족에게나 똑같은 차원에서 제기되는것이 아니다. 지금도 식민지예속하에 있는 민족의 경우에는 그것이 민족해방의 문제로서 제기되며 민족해방을 이룩하고 독자적인 주체로서 존재하는 민족의 경우에는 자기의 자주성을 더욱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로서 제기된다.

또한 민족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 보편적으로 제기되는 과제도 있다. 그것은 다른 민족들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민족들간의 평등과 호혜, 협조를 강화하는것이다.

민족문제가 곧 민족의 운명문제이며 그것이 본질에 있어서 민족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 문제이기때문에 민족자주에 관한 문제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으로 된다. 이러한 리해는 민족문제의 본질적내용과 그 해결 방향과 원칙, 방도를 밝혀주는 과학적인 리해로 된다.

그러면 민족문제가 민족자주에 관한 문제이라는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된다는것이다. 여기에는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지키는것과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두가지 측면이 내포되어 있다.

민족문제의 내용은 첫째로, 민족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것이다. 다시말하여 민족이 자주성을 옹호하는 문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는 문제이다.

둘째로, 민족이 그 어떤 외세의 지배와 간섭도 반대하며 식민지적처지에 있는 민족들이 민족적해방을 실현하는 문제이다. 민족적해방은 식민주의, 지배주의의 예속으로부터 정치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문화적으로 해방되고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셋째로, 민족들간의 불평등을 완전히 없애는 문제이다. 민족적해방을 이룩한 다음에도 민족적국가주권을 공고히 하고 정치적으로 자주적이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며 국방에서 자위를 실현할 때 민족들간의 평등을 실현할수 있다.

민족문제가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에 민족이 자기 운명을 개척하려면 자주성을 지키고 실현하는데 문제해결의 방향과 원칙을 두어야 한다.

2) 민족발전의 합법칙성

민족문제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제기되는것은 민족의 존재와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은 앞으로 사회력사가 발전하면 민족이 없어 질것이라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오늘에 이르러서는 세계제패를 꿈 꾸는 제국주의령 강들이 《세계화》의 간판밑에 약소국가와 민족들을 없애 버리려 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온갖 비과학적인 설들을 조작해내고 있다.

만약 선행 맑스-레닌주의 창시자들처럼 앞으로 민족이 없어질것이라면 구태여 민족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제국주의, 지배주의자들의 논리대로 앞으로 세계가 일체화 되고 인류가 《세계시민》으로 된다면 민족의 발전문제를 논할수 없게 될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민족들이 앞으로도 자주적이고 독자적인 발전을 계속해 나가는 조건에서 민족문제는 민족발전의 합법칙성에 맞게 해결되어야 한다는 독창적인 사상을 제시하시였다.

그러면 민족발전의 합법칙성이란 무엇인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민족들의 발전과정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거나 병합되는것이 아니라 매개 민족들이 문명하고 힘 있는 민족으로 발전하며 자기의 고유한 생활과 역사를 자유롭게 창조해 나가면서 완전한 평등과 자원성의 원칙에서 민족들사이의 협조와 련계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된다는것을 과학적으로 론증하였다.》(《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단행본 9 페이지)

민족들의 발전과정이 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동화되거나 병합되는것이 아니라 독자적이고 개성적인 발전, 창조적인 발전을 이룩해 나가는 과정이라는것이 민족발전의 합법칙성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견해이다.

그러면 민족발전의 합법칙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 지는가.

무엇보다도 민족발전은 자기의 고유한 생활과 역사를 자유롭게 창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민족은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민족의 지배나 간섭을 허용하지 않으며 자기의 독자성, 고유한 특성을 보존하면서 역사와 생활을 자기 식으로 창조해 나간다.

사회가 발전하고 민족들사이의 련계와 교류가 밀접해 짐에 따라 민족들의 생활에서 공통성이 늘어 나게 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매개 민족의 독자적이며 개성적인 발전, 다시 말하여 자주적발전을 전제로 하며 그 기초우에서 이루어 진다.

민족의 발전은 또한 민족이 자주적요구를 내세우고 그것을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바로 여기에 민족발전의 합법칙성의 하나가 있다.

어떤 민족이든지 자주적으로 살려는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용과 수준은 력사발전의 매 단계마다 보다 높은 차원에서 나타나게 된다. 우리 민족의 자주적인 요구는 봉건시대에는 봉건적신분관계의 예속에서 벗어 날것을 제기하였으며 우리 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통치하에 있던 시기에는 식민지적예속에서 해방될것을 요구하였다. 한마디로 말하여 민족의 자주적인 사상의식은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민족의 발전은 다음으로 민족들이 문명하고 힘 있는 민족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민족들은 역사적으로 독자적인 주체로서 생존하고 발전한다. 민족의 운명개척과정은 매개 민족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생활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 어떤 민족이 소여민족을 대신하여 그들의 운명을 개척해 줄수 없다. 자기 운명에 대하여 책임지는것도 그 민족이며 민족의 운명을 개척할수 있는 힘도 그 민족에게 있다.

민족에게는 자기를 발전시킬수 있는 성질이 있다. 그것이 다름아닌 민족적창조성이다. 자주성이 민족의 생명이라면 창조성은 민족으로하여금 창조력을 가지게 하고 그것을 높일수 있게 하는 근본성질이다. 매개 민족에게는 창조적지혜와 힘이 있기때문에 오랜 역사적기간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와 발전을 자립적으로 이룩해 나간다.

매개 민족들이 힘 있고 문명한 민족으로 발전하는것은 민족에게 창조성이 있기때문이다. 민족들은 자기의 생존과 발전에 필요한 정신적 및 물질적부를 자체의 힘으로 창조하며 자기 운명개척에 필요한 사상과 제도를 선택하고 창조하면서 그를 끊임없이 발전시켜 나간다. 이 과정을 통하여 민족은 자기가 사는 령토안에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게 된다.

민족은 또한 자기가 처한 구체적실정에 맞는 운명개척의 방도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구현하는 방법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간다.

민족의 발전은 또한 완전한 평등과 자원성의 원칙에서 민족들사이의 협조와 련계를 확대발전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 진다.

민족들의 련계와 협조의 발전이 민족을 없애거나 퇴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의 원칙에서 협조와 련계를 심화시키는 과정이라는것이 민족발전에 대한 주체적리해이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매 개인의 조국은 전 세계》라고 하는 《세계주의》가 얼마나 허황하고 반동적인가를 알수 있다. 《세계주의》는 민족의 자주권과 독자성을 부인하고 민족문화와 전통을 허무주의적으로 대한다. 그리하여 매개 민족이 자기의 민족성을 버리고 《세계적공민》으로 되기 위하여 《세계국가》와 《세계정부》를 세우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그것이 인간으로서 《가장 고상한 행동》으로 된다고 주장한다.

민족은 결코 서로 다른 민족을 동화하거나 흡수할것이 아니라 서로의 자주권을 존중하는 기초우에서 유무상통과 호상 련대와 협조를 발전시켜 나가야 정상적인 발전을 이룩할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매개 민족들이 고립적인 삶을 누린다는것이 아니다. 민족은 세계의 여러 민족들과의 관계속에서 존재하며 발전한다. 이로부터 소여 민족과 다른 민족과의 관계문제가 제기된다. 민족의 운명개척에서 모든 민족들의 존재와 영향은 그 객관적조건으로 된다.

그러나 사회발전과 더불어 민족들사이의 련계가 넓어 지고 강화된다고 하여 그것이 민족의 주체성과 자립성을 상실당하면서 이루어 지는것은 아니다. 민족들사이의 관계발전은 어디까지나 완전한 평등과 자원성의 원칙에서 이루어 진다. 다시말하여 민족의 발전과정은 자주성에 기초하여 다른 민족들과의 협조와 련계가 이루어 지는 과정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의 《일체화》라는것을 꾸며 낸것은 세계를 저들식의 《자유세계》로 만들고 모든 민족을 저들에게 예속시키고 동화시키려는 목적에서 나온것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제시하신 민족문제에 관한 사상과 이론, 특히 민족과 민족문제에 관한 사상과 이론은 오늘 우리 민족이 자기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데서 커다란 이론실천적 의의를 갖는다.

우리의 민족문제, 다시말하여 조선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가 지난날에는 일제식 민지통치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민족해방문제로 제기되었다면 오늘은 갈라 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로서 제기되어 있다.

이에 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견해에는 두가지 중요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그 하나는 조국통일이 외세에 의하여 빼앗긴 민족적자주권을 전국적범위에서 회복하는 문제이라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우리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문제인 조국통일을 우리 세대에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는것이다.

또한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문제가운데는 해외교포문제가 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해외교포문제는 민족문제의 일환이며 민족문제에서 핵을 이루는것은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라고 지적하시였다.

이러한 우리의 해외교포문제 가운데 일본에 사는 동포들의 문제, 다시말하여 재일조선인 문제가 있다.

이처럼 조국통일을 사상, 제도문제가 아닌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로 보게 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사상과 제도, 계급적리해관계와 신앙의 차이 등을 초월하여 통일이라는 전민족적위업에 주인으로서 기여할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민족자주를 핵으로 하는 통일의 리정표인 6.15 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열어 나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와 함께 재일조선인문제도 거주국에 있는 소수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모체인 본국민족과 그 부분의 관계문제, 우리 민족문제의 일환으로서 확고히 자리 잡게 되었으며 민족애국운동에 의한 재일동포들의 참다운 운명개척의 길이 확고히 마련되게 되었다.

랭전후 민족문제의 새 양상과 《세계화》책동

고연의

1. 랭전의 종식과 민족문제의 분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오늘 세계무대에서는 사회주의와 제국주의, 자주력량과 지배주의세력사이의 첨예한 대결이 벌어 지고 있다. 국제정세가 복잡하고 력량관계가 착잡하게 얽혀 있지만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투쟁은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단행본 1 페이지)

동서랭전이 종식되어 10 여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지배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국제정세는 의연히 복잡해 지고 있으며 특히 민족적비극이 세계도처에서 일어 나고 있다. 인류의 자주화위업이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것만은 사실이지만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사태란 바로 자주력량에 의해 몰려 가는 초대국정치의 몰락상인것이다.

오늘 국제사회에서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민족주의의 부활현상을 두고 볼 때 직접적으로는 동서랭전이란 어떤 전쟁이었으며 랭전의 종식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찰해야 할것이다.

동서구조의 틀이 느슨해 지고 동서초대국간의 교류의 문이 분류처럼 열리자 지금까지 그 대로 두어 지던 《남》 세계의 문제들이 역시 분류처럼 분출하였다. 이제는 이데올로기대결 문제가 아니라 기아와 빈궁, 구조적폭력 특하는 제 3 세계를 비롯한 여러 민족간의 차별과 분쟁문제이다.

이 《남》 세계의 분출은 무엇을 말해 주는것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 틀속에 박히던 《남》 세계 나라와 민족들은 언제나 쏘련 혹은 미국과의 관계차원에서만 즉 초대국에 예속하는 존재로서만 취급되었지 그들자신이 안아 오는 고유하고 독자적인 문제로서는 보아 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제 3 세계적이며 《남》 세계적인 문제가 랭전후시대에 와서 처음으로 발생했는가 하면 결코 그렇지 않다. 《남》 세계문제 즉 지구적인 규모에서의 《남북》 모순은 오래전부터 제기되고 있었다. 다만 랭전시기 그것은 초대국들간의 권력정치의 그늘밑에서 흘시되거나 무시되어 왔던것이다.

원래 《북》 세계가 수세기에 걸치는 침략과 식민지통치를 《남》 세계의 노동력, 자연부원 등 재부를 빨아 먹어서 그것에 기초하여 선진공업국가로서의 《근대화》를 이룩하였다는것은 세상이 주지하는바이다. 《북》 세계의 존재자체가 력사적으로 《남》 세계의 희생우에 이루어 진것이며 제 2 차세계대전후 그것이 국제정치마당에서 대국정치의 형태로 등장하였는바 이를 두고 동서랭전이라 한다.

사실 동서초대국사이에 이데올로기적대립과 핵무기를 중심으로 하는 군사적대결이 있었으며(바로 그러기에 랭전구조는 성립될수 있었다.) 오늘에 와서는 그것이 해소되고 동서협

조시대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는 작은 나라들로 이루어 지는 제 3 세계로부터 보면 동서가 대립하건 협조하건 그런 《북》 세계의 사정과는 관계없이 자체의 고유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엄연히 존재하였던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예리하게 제기되고 있는 민족문제들도 국제정치의 국면의 변화와는 관계 없이 그것과 별도로 그 자체로서 고유하게 존재해 왔다. 다만 동서초대국의 대결구도라는 큰 덮개로 덮여 오던것이 랭전후에 단번에 분출했다는것이다.

베를린장벽의 붕괴, 소련 및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의 좌절, 동서대립구조의 해소... 이런 격동적인 상황을 두고 서방세계의 반동적인 어용학자들은 그것을 마치나 력사의 결정적인 단절현상인것처럼 묘사한다. 랭전종식을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로 총화한 프랑시스 후쿠야마의 《력사의 종말》도, 또한 랭전후를 서양문명이 다른 문명들과 대결하는 시대로 본 사무엘 헌팅톤의 《문명의 충돌》도 다같이 낡은 랭전사고에서 벗어 나지 못한 언설이라 하겠다. 결국 이러한 론조들에서 공통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시점은 바로 《제 3 세계》이며 《민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력사발전의 견지에서 본다면 랭전의 종식은 곧 힘의 정책의 파산이며 이것은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된다고 평가할수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타임스〉 기자단이 제기한 질문에 주신 대답》, 단행본 2 페이지)

랑전의 종식은 본질에 있어서 초대국정치의 파탄, 힘의 정책의 파산을 의미하며 그것은 대국적견지에서 보아 인류의 자주적전진을 위한 새로운 조건의 마련으로 된다. 원래 랭전은 힘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그릇된 경쟁이었으니만큼 여기에 와서 그 누가 승자니 패자니 하는 문제는 서지 않지만 구태여 말한다면 랭전의 승자는 《동》도 아니고 《서》도 아니며 쏘미랑전자체를 걷어 치우게 만든 《남》 세계를 비롯한 온 세계의 자주세력이다.

쏘련이 해체되고 미국이 유일한 초대국으로 남게 된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미국의 힘의 강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랭전후 국제사회의 혼란과 힘관계의 변동과정에서 그저 결과적으로 미국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높아 졌다는것이다. 오히려 미국은 쏘련이라는 오랜 적수를 잃음으로써 자기의 계속적인 강대화의 계기와 발판을 상실했다고 말할수 있다. 동서《관계》가 해소된 이상 이제는 미국에 그 무슨 서방세계의 초대국으로서의 존재리유는 없어 졌다. 쏘련의 붕괴는 미국의 급속한 쇠퇴를 가져 왔다.

그런데 초대국의 힘의 정책의 파산을 의미하는 이 랭전종식을 반대로 자기의 힘의 정책의 승리로 착각, 오산한 미국은 끝을 모르는 자기과신에 사로잡혀 앞뒤 모르게 유아독존적인 강권주의의 길에로 줄달음 쳤다. 그 후파로 많은 희생과 난국을 겪게 된것이 제3세계의 나라와 민족들이다.

말따에서의 동서수뇌회담이 끝나자 바람으로 미국이 당장 착수한 일은 빠나마에 대한 군사적침략(1989 년말)이었다. 1 년후에는 이라크를 치기 위한 페르사만전쟁(1991 년)을 벌렸으며 이어 소말리아(1992-94 년), 아이띠(1994-95 년), 유고슬라비아(1999 년) 등지에 군사적간섭을 거듭하였다. 이에 《핵의혹》을 구실 삼은 조선에 대한 간섭책동을 덧붙여도 좋을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강권정책의 대상이 왜 상대적으로 큰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들인가? 기

이하게 느껴 질지 모르지만 돌이켜 보건대 제 2 차세계대전이후 일관하여 미국의 역대대통령들은 《년두교서》 연설에서 제3 세계정책의 기본방향을 밝혀 왔다. 이는 표면상은 달라도 내용적으로는 미국이 자기의 세계전략에서 얼마나 제 3 세계를 무시할수 없었던가를 말해주는 사실이다. (물론 그것은 어디까지나 소련과의 대결이라는 색안경을 통해서 본 제 3 세계이지만.) 실제로 랭전시기 미국은 소련과 단 한번의 열전을 벌린바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전쟁의 대상으로 삼은것은 조선, 월남 등 제 3 세계나라들이었다. 1950 년이후 미국이 실제로 폭력적인 군사행동을 전개한것은 제 3 세계만이였다.

이렇게 놓고 보면 랭전구조라는것은 중심부(동서)에서는 대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기능이 작용되고 주변부(제 3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군사적간섭과 분쟁의 파장적확대현상이 일어나는 구조, 다시말하여 제3 세계(남)의 희생우에서 동서초대국(북)의 허구의 안정을 유지하려는 구조이다는것을 잘 알수 있다.

문제는 랭전이 끝나면서 《유일초대국》인 미국이 세계도처에서 강요하는 전횡적인 강권정책이 오늘 《제3 세계》 문제, 《민족》 문제를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것이다.

랭전종식선언을 내린 말따회담이 있는 1989 년부터 1997 년까지 세계적으로 무력분쟁은 69 개소 103 건이 있었다.

랭전후 우후죽순처럼 세계각지에서 련이어 발생한 가지가지의 분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쏘베트라는 이름의 련방이 자기 제도내부에 100 을 넘는 수의 민족들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 나아가서는 빼루나 메히꼬에 이렇게 많은 선주민족들이 있었다는 사실 등은 저 랭전시대에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도 않았으며 도대체 국제문제화될수가 없었다.

랭전시기 오래 숨어 있던 이 《민족》들이 랭전후에 일제히 지구적규모에서 국제무대에 분출했던것이다.

시대의 격동기, 전환기에 오래 지속되던 어느 가치관의 질서가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그 위기에서의 출로를 자기의 민족적공동체에 찾고 민족적동일성을 자기확인하면서 살것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인식론적문제로서 오늘 세계적으로 벌어 지고 있는 분쟁들은 다 류행어처럼 《민족분쟁》의 이름으로 묶어 버리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야 할것이다. 《민족》이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가, 《분쟁》이 《민족》을 비극에 빠뜨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민족》이 마치 현시대의 모든 악과 혼란의 근원인것처럼 보는것은 그릇된 견해이다. 《민족》은 분쟁의 원인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결과인것이다. 이러저러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차별과 불공평 등이 민족들사이에 대결의 불씨를 가져 와 그것이 이른바 《분쟁》화되어 여러 민족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것이다. 만일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서로 다른 민족들이 선천적으로 고정된것으로 존재하고 그때문에 분쟁이 일어 난다고 한다면 수다한 민족들의 혼재로 면면히 이어 저 온 인류력사는 과연 어떻게 설명되어야 할것인가? 민족은 서로 다르기때문에 그 차이성으로 하여 서로 보충하고 교환하면서 평화적으로 공존해 온것이다. 민족성의 강조가 여러 분쟁을 격화하고 있다는식의 반동적론리는 민족성이 가지는 본질적내용을 무시한 거꾸로 선 논리이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랭전후분쟁에는 7 가지 류형이 있다고 한다.

①지역패권분쟁(이전 이란-이라크전쟁이나 인디아-파키스탄분쟁과 류사한것) ②자원전쟁

(레를 들어 중동의 물자원과 석유자원을 둘러싼 것) ③민족분리분쟁(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와 세르비아와의 대립, 기타 체첸민족, 타미르민족 등) ④구령토회복분쟁(동족들이 사는 이역에까지 국경을 확대하려는 대세르비아구상, 대웨그리아구상, 대알바니아구상 등) ⑤종족 및 종교투쟁(소말리아, 르완다 등) ⑥원리주의전쟁(자기의 이데올로기나 세계관을 전국적범위에서 강요하려는 알제리의 종교적극단주의자들, 미국의 극우민병 등) ⑦민주주의실현과 선주민족의 권리를 위한 투쟁(메히꼬 치아빠스주의 농민과 선주민들의 무장봉기 등)

편이상 이렇게 류형화할수 있으나 물론 어떤 하나의 분쟁이 한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니다. 특히 랭전후의 그 어느 분쟁을 보더라도 복합적인 여러 요인을 배경으로 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러면서 랭전후분쟁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점은 경제적인 요인이다. 쏘련식사회주의경제의 파탄이 가져다 준 후과도 심대하거니와 그보다 더 심각한 혼란을 사람들속에서 일으킨 것은 신자유주의경제의 파괴적작용이었다. 비대해 질대로 비대해 진 자본주의시장경제의 파도는 랭전후의 발전도상나라들을 뒤덮었으며 도처에서 심각한 격차를 산생함으로써 여러 민족과 종교, 자원과 이데올로기를 자극하고 부단히 분쟁을 《국내화》, 《내전화》 해 갔다. 무력분쟁이 가장 빈번했던 1992년만 보더라도 55건 발생한 분쟁중 49건은 국내분쟁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이러저러한 국제사회의 모순이 민족에게 가하는 억압의 도수가 비상이 높아 졌다고 말할수 있다.

랑전후분쟁의 압도적다수가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즉 제3세계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지만 또 하나의 특징은 분쟁희생자중 비전투원(민간인)이 차지하는 비율의 급증현상이다. 역사적으로 보아 전쟁에서의 사망자가운데 비전투원의 비율은 제1차세계대전에서 5%, 제2차세계대전에서 50%였는데 오늘에 와서는 80~90%(주로 여성들과 아동들)까지 달하고 있다.

사실대로 말한다면 쏘련식사회주의도 미국식자본주의도 다같이 《민족》을 환영하지 않을뿐더러 이를 배제한다. 전자는 계급론리를 가지고, 그리고 후자는 시장론리를 가지고.. 계급을 절대적으로 내세우는 쏘련식에 있어서는 계급의 리익앞에서 민족적요구는 인정 못되었다. 자유시장화를 절대화하는 미국식에 있어서는 개별적민족들의 민족적특성은 방해요소가 될뿐이다.

이와같이 랭전종식후에 분출된 민족문제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 지기만 하고 있다. 쏘련식은 좌절해서 사라졌지만 살아 남은 미국식이 일극지배책동과 결부되어 횡포를 부리게 되었으니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 졌다.

2. 제국주의의 《세계화》 책동과 민족문제의 심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민족의 주체성을 억제하고 민족성을 말살하는 제국주의자들의 반동정책은 오늘 세계의 《일체화》 흐름이라는 강도적궤변밑에 새로운 형태를 띠고 펼쳐 지고 있다.》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데 대하여》, 단행본 32 페이지)

오늘 제국주의자들에 의한 세계의 일체화 즉 《세계화(globalization)》 책동은 엄청난 단계에 이르고 있다.

《세계화》가 촉진되면 될수록 세계적규모에서 약소민족들이 말살되어 가며 지구상의 빈부의 격차는 더해 진다. 세계가 더욱 부유해 지는 자본주의나라들과 더욱 가난해 지는 발전도상나라들로 양분되고 지구적규모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보다 심화되어 가고 있다. 이 《세계화》 흐름앞에서 국제사회의 성원들과 매개 민족들은 여느때없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제국주의의 《세계화》 책동은 매개 민족국가의 자주정치, 민족경제, 민족문화에 대한 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는 무엇보다 경제면에서 제일 요란하게 광고되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나라들이 저들의 자유시장경제를 세계적으로 확대하면서 매개 민족경제를 부정하고 특히 발전도상나라들의 자립적발전의 길을 가로막고 있다. 이 전 세계 《자유시장화》 책동에서 큰 계기를 마련한것은 1980 년대에 당시 미국대통령 레간과 영국수상 대처가 광란적으로 추구한 《신자유주의》 정책이다. 이 정책은 재정적자의 삭감, 국영기업의 민영화, 규제완화 등 시장의 힘을 확대시키는 반면에 조직노동자의 힘을 극도로 약화시킨다.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재부의 분배와 리용을 통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전체의 재부를 확대할수 있다는 주장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다. 다시말하여 《신자유주의》 정책은 시장론리에 기초하여 사람들을 끊임 없는 경쟁상태에 몰아 넣고 서로 다투게 함으로써 그들의 단결과 련대에 쐈기를 박고 저항세력으로서의 사회집단주의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이 과정에서 해당 사회내부에서는 계층간, 지역간 지어는 남녀간의 분렬과 대결이 일어 나며 한편 국경을 넘나들면서 자유로이 이동하는 자본의 세계화는 매개 나라의 정치와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충돌하게 된다. 특히 랭전후에 세계를 하나의 큰 《자유시장》으로 만들려는 이 책동에 의해 적지않은 민족들의 주체성, 민족성은 심히 침해 당하였으며 약육강식의 야만세계에서 막강한 리득을 얻는 자는 오직 선진국의 다국적 기업체뿐이었다. 《세계화》는 이처럼 제국주의독점체의 리익을 대변한것이다.

또한 제국주의의 《세계화》 책동은 미국식부르조아민주주의강요의 정치적표현이기도 한다.

랭전후 돌연히 등장한 미국의 어용학자 프랑시스 후쿠야마에 따르면 부르조아민주주의를 타도하기 위한 혁명적사회주의의 도전, 그리고 다른 한편에 의회제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극우세력의 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오늘도 계속 그 어떤 정치제도에 의해서도 초월될수 없는 최고가치로 존재한다는것이다. 또한 일찌기 1993 년 9 월 21 일 당시 미국가안보담당 대통령특별보좌관 안토니 레이크가 《확대정책》이라는것을 발표하면서 그 무슨 《미국식시장민주주의》가 금후 세계를 이끈다고 뇌짚린바 있다. 말하자면 저들의 《민주주의》나 《인권》을 유일한 국제기준으로 삼아 그 이름밑에 다른 민족들을 예속화함으로써 일극화세계를 만들자는것이다. 그를 위해 필요하다면 꼬소보사태, 대유고슬라비아공습 등에서 보듯이 군사력까지 서슴치 않고 동원한다.

그러나 미국의 정책담당자들이 랭전중식총화에서 입을 모아 《승리하였다》는 이 《민주주의》가 오늘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사람들의 비난의 과녁으로 되어 가고 있다. 정치적으로 크게 전환하고 《민주화》되었다는 구소리, 동유럽에서는 사회경제적혼란을 비롯하여 매우 비민주적인 상황이 새로 조성되었

을뿐아니라 서유럽세계에서도 2천만 실업자대렬과 5천만 빈궁자대렬이 등장하였으며 그중 몇개 나라들은 이른바 《제3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형편이라 한다. 유엔이나 세계은행의 보고에 의하면 가령 영국에서의 빈부의 격차는 서방세계에서 최고수준에 달하고 있으며 그것은 마침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수준과 비슷하며 저머이커, 스리랑카, 에티오피아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이다.

랭전종식후의 인류사회에 《시장민주주의》가 가져다 준 재난은 헤아릴수 없으나 그 근원을 따져 가면 이런 《민주주의》의 세계화는 필연적으로 자본의 국제화와 결부된다는 논리적귀착에 도달하게 된다. 부르주아정치가들 자신이 제외없이 군사력과 결탁한 금융시장독재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니 이것은 어찌할수 없는 일이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면 《민주주의》란것은 결국 자본소유자의 독점물로 되고 마는것이다. 국제정치의 력사에서 에스빠냐 시민전쟁으로부터 칠레혁명의 좌절에 이르기까지 실지로 민주주의가 통락물로 되여 온 레는 수다하다. 비근한 레로 1980 년대의 니까라과에서의 혁명과 전설도 다름아니라 미국이 제창하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밑에 압살되었다는 사실은 사람들의 기억에 아직 생생히 남아 있다.

원래 민주주의라고 하면 최대공약수적으로 말하여 사람들의 정치참여와 그 자유를 큰 전제로 하는것인데 오늘 미국식민주주의가 강요되고 있는 지역들에서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그런 본연의 민주주의와 다른것이다. 제도면에서는 몰라도 현실에 있어서 어떤 민족이 정치참여를 요구하여 《우리 민족의 정치적단결을 위하여!》라고 주장해 나하면 지배적인 시민사회(소위 민주체제)가 당장 이를 압살해 버린다는 사례를 우리는 도처에서 보고 있다. 《민주주의》가 자기 바깥의 이질적인 공동체에 대해서는 이를 비민주주의적으로 폭력을 가지고 억압한다는 역설이 거기에는 깔려 있다. 《북》세계에서의 사회적약자와 소수파존재에 대한 배척현상, 그리고 《남》세계에서의 이민족간분쟁 등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확인할수 있다. 민주주의도 또한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 《독점》당하고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의 《세계화》책동으로 인한 남북간의 빈부격차는 정보문화분야에서도 로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쏘련사회주의의 좌절이후 미국식자본주의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사람들이 제3세계의 개성적인 민족문화에 접하려고 하여도 그런 요구가 실현될 기회는 크게 박탈 당하고 있다. 세계 이르는곳마다 미국의 정보와 문화가 흘러 넘치게 되었다. 정보산업시대인 오늘 미국인구의 33%가 매일 인터넷에 접근할수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에서의 그 비율은 단 0.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60 억을 넘는 세계인구에서 인터넷 사용자는 2%이며 압도적다수 인류는 의연히 전기불도 없는 비문화적인 생활을 강요 당하고 있다. 국제적십자의 자료에 의하면 현재 세계에는 약 50 건의 분쟁이 일어 나고 있으나 그중 37 건에 대해서는 보도조차 안되고 있다고 한다.

이리하여 오늘 지구상의 민족수만큼의 다양한 언어에 의해 창조되는 다양한 문화는 억압 당하고 오직 미국의 색깔을 띤 획일적인 《문화》만을 사람들은 강요 당하게 되었다.

랭전후에 수많은 약소민족들의 언어가 영어의 《위력》앞에서 련이어 소멸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의 발표(2002년 2월 21일)에 의하면 세계 6

천개 언어중 절반인 3 천개가 지금 소멸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의 보고(2001년 2월)는 1,500이상의 언어가 그 사용자 1,000 명이하, 553언어가 사용자 100 명이하의 상태이며 이미 234 언어가 소멸되었다고 밝히면서 그 배경으로서 《세계화》 책동을 지적하고 있다. 《세계화》 흐름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획일적인 서양화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자연이나 전통문화와의 연계가 희박해 지며 그 결과 그것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언어자체가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는것이다.

또한 영화도 미국에서 제작된것들이 급속도로 전 세계에 퍼져 가고 영화시장을 압도하고 있다. 유럽동맹(EU)통계국의 통계에 의하면 동맹 15 개국에서 감소경향에 있던 영화산업이 랭전후에 부활양상을 보이였지만 그래도 극장에서 새로 공개된 영화의 51%는 미국제이며 (1997년) 영화상영수입(1998년)의 75%는 《타이타닉》 등 미국영화가 차지했다. 민족문화의 보호에 있어서 적극적이라고 하는 유럽동맹을 두고도 이런 형편이다.

이와같이 제국주의의 《세계화》 책동은 발전도상나라 인민들을 비롯한 절대다수 인류에게는 화만을 가져다 주고 있으며 거기서 덕을 보는것은 오로지 극소수의 지배주의자들이다. 오늘 우리 눈앞에서 벌어 지고 있는 《세계화》 현상이란 바로 《미국화》 현상이라 하겠다.

이런 상황이 국제사회의 성원들, 가지가지의 민족들에게는 자기 운명에 대한 위기상황으로 비치지 않을수 없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세계화》의 상징이며 대변인격인 세계무역기구(WTO) 나 선진국수뇌자회의(사밋트)에 모여 든 대국들(G7)은 회의개최때마다 수십만 단위의 반 《세계화》 세력의 치열한 항의행동에 부딪치고 있다.

원래 사밋트가 1975년에 출현하게 된 배후에는 국제무대에서의 제3 세계, 발전도상나라들의 자주적진출을 어떻게나 가로 막고 저들의 연명책을 강구하려는 서방자본주의측의 기도가 있었다.

당시 발전도상나라들은 국제경제에서의 선진국우위, 선진국독점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일 치단결하여 나아감으로써 74년 4월의 유엔자원총회에서 력사적인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선언》을, 그리고 12월의 제 30 차 유엔총회에서는 《국가간의 경제권리무조항》을 채택케 하였다. 같은 해에 열린 세계인구회의, 세계식량회의 등 국제회의에서도 발전도상나라들은 일부 대국들이 좌우지하는 낡은 국제경제질서의 모순을 일제히 지탄해 나갔다.

1980년대에 와서 제국주의독점체들은 판매시장을 확대할수 없게 되여 미국이 세계최대의 채무국으로 굴러 떨어 지며 일본도 일시 거품경제라고 들렸지만 종당에는 경제적파탄을 면치 못했다.

이런 그들이 다시 부활할수 있는 길이 열려 진 계기는 다름 아닌 랭전의 종식이였다. 동유럽으로의 새 진출, 이를 기회로 벌여 진 독점적시장의 세계적확대놀음으로 자본은 국경을 뛰어 넘어 《국제화》 되여 갔다. WTO와 사밋트가 늘 두둔해 주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융자, 정부개발원조(ODA)를 미끼로 시장경제화와 《개방》을 촉진시킴으로써 발전도상나라들의 자립적발전의 길은 막히고 가난한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더욱 빈궁세계에 몰리고 있다.

제국주의자들이 시끄럽게 고아대는 《세계주의》란 식민주의, 신식민주의의 새로운 변종이며 《세계화》란 그들이 제3 세계민족들을 수탈하는대로 수탈하다가 벽에 부딪쳐 최후받

악하는 그런 국제정치, 세계경제, 지구문화의 현상이라고 말할수 있다.

제국주의, 지배주의의 민족말살책동을 봄에 있어서 《세계화》와 함께 역사부인주의(négationnisme)의 세계동시적대두라는 현상을 무시할수 없다. 이는 오늘의 민족문제의 새로운 양상을 부각시키고 있다.

역사부인주의라는것은 어떤 민족이 다른 민족에 대해 과거에 범한 범죄, 엄연한 가해자의 역사적사실을 부인하고 자의적으로 새로 미화분식해서 자기의 과거죄행을 면죄하려는 충동이다.

이것은 1980년대 도이칠란드를 중심으로 벌어진 《역사학자론쟁》을 거쳐 특히 랭전후에 로골화되었다.

재통일후의 도이칠란드에서의 신나치즘의 대두, 그리고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지의 우익파쇼정당의 진출—이런 정치사회적혼란을 배경으로 하여 마침내 유럽의 학계와 언론계에서 나치스의 망령이 《역사부인주의》의 이름밑에 되살아났다. 즉 히틀러에 의한 민족대학살은 역사상 있을수 없었다, 집중감옥에 《가스실》이란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역사를 외곡해 나선것이다.

기이하게도 이런 역사외곡현상은 동시적으로 동양세계에서도 나타났다. 아시아의 전범국이고 침략적, 지배주의적세력인 일본이 과거사를 부인하는것을 정책화, 로선화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 일본의 반동적지배층은 저들의 불미스러운 과거를 도리어 미화분식하고 정당화하며 그것을 영영 묻어 버려고 분별없이 책동하고 있습니다.》 (《로씨야 이따르—따쓰통신사가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001년 7월 24일)

일본은 서방세계에서의 역사외곡조류에 발맞추듯이 자기의 과거의 죄행을 하나하나 부인할뿐아니라 그것을 미화분식하기 시작하였다.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에서 좋은 일도 해놓았다.》, 《조선인강제련행은 없었다.》, 《종군위안부라는 존재는 없었다.》—이런 주장 끝에 지어는 그것을 교과서화하려는 움직임이 최근년간 일본사회를 소란스럽게 만들었다. 이것은 역사부인주의의 일본판이라 할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것은 랭전후에 역사외곡현상이 동양과 서양에서 거의 동시진행적으로 일어나고 문제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세계화》책동과 함께 오늘 민족말살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지니고 등장한 반동적 요소이다. 《세계화》가 현재진행형으로 세계적공간에서 벌어지는 민족말살책동이면 역사외곡책동들은 민족을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사람들의 기억속에서 통채로 말살하려는 책동이다. 과거사를 미화분식하고 역사의 피해민족을 현재 다시 차별억압하는것으로 하여 이 책동은 2중의 범죄행위이며 현시대 민족문제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배격극복되어야 하는 대상이다.

시대의 발전과 더불어 지구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더 많은 공통성을 가지게 되는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결코 그 어떤 일국화세력의 세계적인 《확대》나 《침투》를 의미하지 않으며 더구나 여기서 매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이 무시되거나 부인될수는 없다. 자유로우며 민주화된 국제사회, 자주성에 기초한 다극화된 세계를 지향하는것, 이것은 오늘의 시대조류로 되어 있다. 제국주의적《일체화》가 아니라 사람중심의 진정한 세계화흐름이 구

축되어야 할것이다.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기 위한 투쟁과 제국주의, 지배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은 포리일체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세계화》 책동을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민족말살정책을 철저히 분쇄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함께 특히 그러한 정책을 교활하게 합리화하려고 집요하게 머리를 쳐드는 이러저러한 반동리론들을 제때에 분석, 론파, 분쇄하는 투쟁이 우리앞에 절박한 과제로 나서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

(2002 년 8 월)

최근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조치에 대한 잠정적해석(1)ⁱ

—전반적가격과 생활비의 개정조치를 중심으로—

강일천

최근 우리 나라 경제건설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있다.

여러해째 지속된 《고난의 행군》과 그를 승리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강행군의 나날에 구상되고 작전된 경제강국건설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이 면밀한 준비를 거쳐 집행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소식들이 련이어 전해지고있다.

올해 7월1일에 시행된 경제적조치(이하 《7.1조치》)를 비롯한 일련의 조치들이 《우리는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공격진지를 확고히 차지하고 전면적인 공세에로 나아가게 되었다고 긍지높이 말할수 있다》고 한 2002 년새해공동사설의 선언대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놓는 획기적인 조치로 되는가 어떤가 하는데 내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7.1 조치》의 내용을 그것이 확인되는 범위(또는 신빙성을 부여할수 있는 범위)에서 개괄하고 가격과 생활비의 개정조치가 취해진 의도,그리고 이번 조치의 성격과 특징을 살핀 다음 이 조치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한다.

1. 《7.1 조치》의 주요내용과 의도

최근 몇해동안 조국에서는 련합기업소조직의 재편성(1999-2001), 물자교류시장의 형성ⁱⁱ, 계획화사업체제와 기업평가방법의 변경, 재정금융체제의 재편성,그리고 상품가격과 생활비ⁱⁱⁱ의 인상,농업발전을 위한 각종조치, 외환시세의 변경 등 비교적 넓은 범위에서 경제의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경제활동과 인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에 있어서 사회주의제도수립 이후 일찌기 있어본일이 없는 중대한 변화를 담고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금년 5월11 일부 내각지시에 의하여 시행되었다고 하는 《7.1 조치》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력사적인 2001년 10월 3일로작 《강성대국건설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 완성할데 대하여》를 관철하기 위한 경제관리개선조치들중에서도 가장 이목을 끈 조치의 하나이다.

1) 상품가격과 각종료금의 인상

《7.1 조치》에 의하여 인상된 가격과 료금의 개정은 각종소비재와 봉사의 가격을 비롯하여 공공료금, 나아가서 생산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항목에 이른다. (표<주요 제품가격 및 료금수준의 변화와 인상률>참조)

<표>주요 제품가격 및 요금수준의 변화와 인상률

항 목		이전의 가격(원)	개정된 가격(원)	인상률(배)
쌀(KG)	수매 가격	0.82	40	48.78
	판매 가격	0.08	44	550.00
강냉이(KG)	수매 가격	0.49	20	40.82
	판매 가격		24	
콩(KG)	수매 가격		40	
	판매 가격			
새수비누 (개)		*3.00	20	6.67
남자운동화(컬레)		18.00	180	10.00
석 탄 (톤)		*34.00	1,500	44.00
전 력 (천 KW)		*35.00	2,100	60.00
휘발유/옥탄가 95(톤)		*922.86	64,600	70.00
(공업제품가격평균인상률)				25.00
월간잡지 《조선문학》		1.20	35	29.17
지하철요금 (전구간)		0.10	2	20.00
일탁아소간식비 (월액)			300	
송도원해수욕장 입장료		3.00	50	16.67

표의 수자는 조선신보, 조국방문시의 해설 및 기타보도들중에서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묶은것임.*표식은 인상률(배수)로부터 역산한것임

그러면 새로 설정된 가격은 어떤 원칙에서,무엇을 기준으로 산출된것인가.

원래 우리 나라에는 사회주의경제에 고유한 가격제정원칙이 있다.또한 가격의 설정에는 경제건설의 매단계에서 제기되는 전략적요구가 작용한다.

우리 나라에서의 가격제정원칙이란 첫째로 사회적필요노동지출(=가치)에 의거하여 가격을 정하는것이며, 둘째로 상품가격을 가치로부터 능동적으로 배리시키는것이다.

첫째원칙은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다는 노동가치설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유도되는 원칙이다.

이에 비해 둘째원칙은 말하자면 국가의 능동적인 작용을 의미한다.둘째원칙에서 말하는 가치로부터의 배리는 두가지 방향을 가진다.그 하나는 대중소비품에 대해서는 가격을 가치에 비하여 낮게 정한다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기호품과 사치품,그리고 공급이 제한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높게 정한다는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진행된 쌀가격의 개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3 가지 점이 고려되었다고 한다.^Ⅳ

- ①그것(쌀)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사회적비용
- ②국제시장에서의 가격수준
- ③국내적인 수급상황

이 3 가지중에서 ①은 종래의 가격제정의 첫째원칙과 동일한것으로 볼수 있으나 ②와 ③을 종전의 원칙과 대비해볼때 부분적으로 일정한 차이를 인정할수 있다.그 하나는 종래의 가격제정원칙에는 국제시장가격이 넘두에 두어져있지 않다는것이다.

그리고 보다 주목되는 문제는 수급상황에 대한 대처에 있다. 즉 이전에는 대중소비품은 그 가격을 가치보다 낮게 설정하기로 되어있었으나 이번 조치를 보면 결과적으로 비록 대중소비품이라하여도 공급이 부족한 대상에 대해서는 가격을 높게 설정하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주로 수급동향을 비교적 충실히 국정가격에 반영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했다는 것도 이와 방향을 같이한다.

가격개정의 이러한 경향성은 쌀가격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보면 국제시장 가격을 고려하여 일련의 가격수준을 정하였다는 것은 가까운 앞날에 대외경제교류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 올리는 시책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v

그러면 국내에서의 수요와 공급관계를 고려한 가격의 개정이 가지는 현실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자.

최근 몇해동안 쌀의 수급상황은 결정적인 공급부족이다. 국가가 유지해온 가격^{vi}과 농민 시장에서의 가격사이의 차이가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번 《7.1 조치》에 의하여 정해진 쌀가격은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사실상 농민시장에서의 가격, 말하자면 실세가격에 국가가격을 접근시킨 조치로 된다.

쌀가격의 실세로의 접근은 수매가격과 판매가격의 두 측면에서 서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우선 수매가격을 실세에 접근시킨 것은 단적으로 말하여 농민들이 쌀을 농민시장에 내놓지 않고 국가에 판매하여도 《손실》을 입지 않도록 했다는 것, 다시 말하여 농민들에게 쌀(을 비롯한 일정한 량의 알곡)을 국가에 판매해야 할 행정적 의무와 함께 실효있는 물질적 (=경제적) 동기를 부가한 것으로 된다^{vii}. 이것이 쌀을 비롯한 주요알곡과 기초식품에 대한 《배급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라라는 것은 명백하다. 즉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에 대해서는 국가가 계속 장악도 하고 책임도 진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한편 판매가격 역시 실세에 맞게 정했고 특히 수매가격보다 높게 정한 것은 수매가격이하의 판매가격으로 인하여 루적되어온 국가의 재정부담을 더는 의미와 함께 식생활을 비롯한 물질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을 민감하게 자극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번에 조국에서는 쌀가격을 전반적가격개정에서 새로운 기준물자로 정하였다고 한다.

과거에 적지않은 사회주의나라들에서는 전력이나 석탄과 같은 공업의 기초생산물을 가격제정의 기준물자로 삼아 왔다고 한다. 이것은 중공업의 우선적발전을 통하여 공업화를 달성하려는 전략과 이 전략에 따라서 형성된 공업구조, 축적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진다.

구사회주의나라들(자본주의는 더욱 그러함)이 공업제품과 농산물의 가격차를 공업발전을 위한 축적수단의 하나로 리용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여 온 역사적경위, 그리고 중첩되는 자연재해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농업이 막심한 피해를 입었고 그 후과를 채 가지지 못하고 있는 현상황을 고려할 때, 알곡을 기준으로 하여 전반적인 가격을 재설정했다는 것은 매우 특징적인 조치로 된다. 그것은 현단계에서 농업발전을 매우 우선순위가 높은 경제적 과제로 설정하고 그를 우대하기로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viii}

한편 상품가격과 각종료금의 인상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일찌기 없는 환경, 자신의 소득으로 살림살이의 대부분을 꾸려 나가야 한다는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2) 생활비의 인상과 사회주의분배원칙의 엄격한 적용

생활비의 인상은 전반적가격의 개정과 쌍을 이루는 조치이다.^{ix}

이번 조치에 의하여 생활비는 평균 18 배정도로 높아 졌다고 하며 금액으로는 2000 원정도가 가장 일반적인 생활비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면 생활비수준은 어떤 척도로 정해진 것인가.

우선 기본생활비의 수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즉 가족 4 명으로 구성되는 평균적인 세대가 새로운 가격체제하에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수입을 월 4000 원정도로 예견한 다음, 가족중 2 명이 로동에 종사한다고 가정할때 한 로력자의 수입은 월 2000 원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 흐름이다.

그러나 인상된 생활비수준은 과거와는 달리 그것이 꼭 보장된다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공헌도와 소속단위의 실적에 따라서는 그 이상으로도 그 이하로도 될수 있는 참고적인 수자에 지나지 않은것 같다. 이러한 의미에서 생활비의 인상은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서 분배하는 사회주의적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조치를 동반하고 있다. 이로부터 평균으로는 19 배라고 하지만 장차 적게 버는 사람과 많이 버는 사람의 폭은 상당히 확대될수도 있다.^x

이와 같은 조치는 오랜 기간에 걸치는 국가적 및 사회적 혜택에 대한 잘못된 관점과 평균주의적분배로 인하여 부식되어온 낡은 로동관을 일소하고 생산열의를 높이기 위한 물질적자극공간으로 기능한다.

또한 생활비의 인상은 직종과 경제부문에 따라 차별적으로 진행되었다.

직접적생산에 종사하는 로동자와 과학자, 기술자, 교육자들의 생활비는 19 배로 높아진 반면에 비생산부문종사자인 사무원이나 지도·관리일군들의 생활비인상폭은 17 배정도로 정해졌다. 또한 탄부들과 같이 중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20~30 배로 인상하였다. 농민들의 보수(생활비가 아니지만)도 한달 환산으로 2300 원정도가 되게 수매가격수준과 각종지표를 정했다고 한다. 이것을 우리 나라에서는 생산자우대의 원칙에서 차이를 두도록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사실상 로동에 의한 분배의 엄밀한 적용과 함께 현단계의 전략적요구를 반영하고 있다.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채취공업을 필두로 하는 공업생산분야 로동자들과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들의 생활비와 농민들의 소득의 인상폭은 그밖의 부문들에 비하여 상당히 또는 어느정도 높게 설정되었다. 이것은 곧 산업건설의 우선순위에 대한 국가의 전략적의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평균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취해진 또 하나의 조치는 생활비의 형태에서 도급지불제를 널리 적용하도록 한것이다. 이 지불형태는 로동자가 생산한 생산물의 량 또는 수행한 작업의 량에 의해서 계산되는 생활비지불형태로서 로동의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부문에

적합한 형태이다.그런데 이번 조치는 종전에는 정액지불제를 적용하던 부문과 직종에서도 최대한으로 도급지표를 도입할것을 지향하는것 같다.가령 과학자의 연구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생산성향상공헌도》^{xi)}와 같은 지표를 설정하여 일정한 기간에 연구성과가 생산에 도입됨으로써 증산된 생산물이나 절약된 비용의 일정한 비율을 보수로 지불하는것과 같은 형태를 상상할수 있다.물론 이러한 형태는 당연히 정액생활비와 도급생활비의 배합을 전제로 한다.

3) 경제운영,기업관리 체계와 방법의 개선

평균주의를 철저히 극복하고 로동에 의한 분배를 엄격히 적용하는 조치가 생산의 정상화, 활성화에로 이어지자면 기업관리방법에서도 효과있는 개선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경제운영과 기업관리분야에서도 각종 조치가 취해졌다고 하는바 여기서는 그 대표적인 몇가지 점들에 한정하여 조치의 내용과 의도를 검토하기로 한다.

로동에 의한 분배는 로동과정에 소모한 정신적 및 육체적 힘을 보상하여주는 의미와 함께 성과 또는 실적에 대하여 우대하여 로동의욕을 물질적으로 자극하는 역할을 지니고 있다.이 두가지 측면가운데서 로동의욕을 물질적으로 자극하는 역할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의 하나는 무엇을,그리고 얼마나 달성하면 그것을 성과나 업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는 기준에 관한 문제와 그 수준에 관한 문제이다.이것은 여러 계획지표들가운데서 무엇을 업적 평가의 주요기준으로 삼으며 그 목표치의 높이를 어느정도로 정하는가 하는 문제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현물지표^{xii)}와 생산액지표에 의한 계획수행률을 기준으로 기업경영결과를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왔다.이것은 생산의 절대량을 추구하는 국면에 적합한 지표설정이라고 할수 있다.그것이 이번에는 《번수입지표》를 리용하여 기업활동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설명에 의하면 《번수입》이란 기업소의 총판매 수입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판매실적원가를 공제한것으로서 새로 창조된 소득부분을 말하며 실리주의원칙을 반영한 지표라고 한다.

이 지표는 아직 경제사전에도 없는 지표로서 이에 대한 해석에서는 듣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필자는 $C + V + M$ (사회총생산액)에서 C 를 제외한 부문, 즉 국민소득($V + M$)이라는 인민경제적차원의 지표를 기업경영차원으로 적용한 독특한 지표라고 리해하고있다.^{xiii)}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의 하나는 생산되기만 하면 판매가 안되여도 계획달성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기존의 지표에 비하여 새로운 지표는 판매실적의 크기가 지표달성에 크게 작용하게 된다는데 있다.이것은 자금의 회전을 높이며 창발성을 발휘하여 수요가 있는 제품을 더 많이 만들도록 하는데 기여한다.주목해야 할것은 또한 실질적인 원가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생산물을 많이 만들어내기만 하면 평가될수도 있는 종전의 지표에 비하여 생산 효율,수익성과 같은 생산과 경영의 질적인 개선을 자극하는 역할을 더 잘 놀게 된다는것이

다.그밖에도 생산이 정상화되지 못한 현실적조건에서 기업이 보유하는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양하게 하는 지표설정이라는데 대해서도 주목할수 있다.그것은 하달된 계획항목이외의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에도 《번수입》을 늘임으로써 기업의 소득을 늘일수 있다고 해석할수 있기 때문이다.온갖 예비의 동원을 자극하는 경제적공간으로서 기능한다는 론리이다.

원가와 수익성 같은 질적 및 금액적 지표를 중시하는 이와 같은 대책이 과거에 전혀 없었던것은 아니다.그렇지만 이번 처럼 그것을 중시하고 전면에 내세운 지표체계의 본격적 적용은 일찌기 없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과거에는 한발자국만 잘못 디더도 기업경영에서의 수정주의로 락인적할수도 있는 환경이 대담한 시책을 취하기 어려운 조건으로 작용하여온 것으로 보인다.그러되 새로운 지표체계의 도입이 가지는 의의를 론하자면 과거의 대책들이 어떻게 마무리되어서 《7.1 조치》가 작전되고 집행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대비분석이 요구된다.

다음으로 목표치의 높이와 관련되어서 취해진 조치가 무엇인가.

지난시기는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계획지표를 중앙계획기관이 정하여 아래에 시달하여 왔으나 이번 조치에 의하여 첫째로,국가적차원에서 전략적의의를 가지는 주요지표를 내놓고 그밖의 지표들은 아래(지방과 기업)단위들에 분담^{xiv}하기로 하였으며 둘째로,세부의 지표,규격별 및 재질별 지표들은 해당 기관과 기업에서,지역적의의를 가지는 지표들은 부문과 소속에 관계없이 매개 지방에서 계획화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로하여 전력과 원료,자재의 보장조건에 따르는 보다 현실성있는 목표를 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실적평가사업을 실시할수 있게 되었으며 스스로가 세운 목표달성을 위하여 보다 높은 창발성을 발휘할수 있는 또 하나의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었다.

경제관리와 기업경영분야에서 취해진 조치는 계획지표의 개선과 계획권한의 분담에 한정되는것이 아니다.실적에 따라 평가한다는것은 실적을 올리지 못한 경우에는 벌을 받게 된다는것을 의미한다.이번 조치도 국가가 물린 현물지표별 공급계획을 실행못했을 때에는 벌칙금을 물게 하는 조치를 담고 있다고 한다.권한의 부여는 책임의 추구를 동반한다는것이 다.그밖에도 적지않은 조치들이 취해졌다고 하나 그 상세한 내용과 종래와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은것들이 많다.그것이 확인되는데 따라 검토를 진행해 나갈것이다.

2. 《7.1 조치》의 성격과 특징

이번 조치가 전해지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본격적인 시장경제제로의 돌입개시로 보는 경향이 적지않게 나타났다.일련의 조치를 두고 종전대로 경제관리의 개선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아니면 사실상의 《개혁》이 아니냐하는 의견들도 오고갔다.호칭에 관한 문제는 이미 많은 기회에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직접 다치지 않는다.^{xv}

이번 조치의 기본성격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다음과 같은 지적에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하고 완성하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종자는 사회주의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가장 큰 실리를 얻을수 있는 경제관리방법을 해결하는것입니다.》
(《민주조선》 2001. 11. 22 부, 론설 〈사회주의경제관리를 개선완성해나가는데서 틀어쥐고 나가야 할 종자〉)

우의 명제에서 보는것과 같이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는것을 대전제로 하여 경제관리의 개선조치가 실시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사실 일련의 조치들은 모두 종래의 사회주의 경제리론의 범위안에서 해설이 가능한 조치들이다.

가령 로동에 의한 분배를 철저히 집행하여 평균주의를 극복하는 문제도 《일안하는자 먹지 말라》는 사회주의의 원칙을 더 철저히 관철하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또한 사회주의국영기업소의 관리운영에서 독립채산제를 실시할데 대한 문제도 벌써 중요산업국유화를 실시한 직후인 1946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명철하게 밝히신 사회주의기업관리의 원칙적문제이다. 나아가서 아래단위의 권한을 높이는 방향에서 경제관리체제를 개선하는것도 생산력의 발전에 따르는 경제적연쇄의 복잡화가 그것을 요구하는것이며 그 요구와 매개 단위에서의 경제관리수단과 능력의 발전정도에 맞게 매 단계에서 시도되어온 내용들이다. 이와 같이 이번 조치는 사회주의의 원칙의 테두리안에서 리용할수 있는 《도구》들을 구사하여 경제의 활성화와 인민생활의 안정,향상을 실현하자는 조치로 해석할수 있다.

그러면 《7.1 조치》에는 전혀 새로운 특징이 없는가고 하면 그렇지 않다.

그것은 사회주의건설의 추진과정에 점차 약화되고 소멸되어 나가는것이 합법칙적이라고 보고온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을 더 잘 활용하는데 주요안목을 둔 조치로 리해할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사회의 과도적특성을 반영하는 《도구》에는 상품화폐관계=시장원리를 체현하고있는 가격, 원가, 수익성, 독립채산제와 같은 범주들이 속한다. 또한 로동에 대한 물질적자극도 역시 이러한 범주에 속한다.

주택비를 비롯한 개인부담의 증대(=국가부담의 축소)와 같은 이번 조치는 로동에 의한 분배부분보다 국가적 및 사회적 시책에 의한 분배부분이 체계적으로 늘어나는것을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적인 모습으로 보고 그를 위한 조치를 계통적으로 실시하여 온 종래의 경위와 대비해 볼때 전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해야 할것이다. 이 배경을 생각해 볼때 경제적현실에 립각하여 리념실현의 속도 또는 로정을 조절하는 방향에서 정책상의 수정이 가해진것으로 보인다.

《7.1 조치》의 특징을 다른 각도에서 다시 요약한다면 우선 집권화와 분권화의 대응관계에서는 명백히 분권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의 계획적조절과 시장적조절의 대응관계에서는 시장적조절공간을 더 활용하는 방향에 있다. 한마디로 사회주의사회의 본질적성격(발전된 측면)과 과도적성격(덜 발전된 측면)중에서 과도적성격을 더 잘 활용하는데 중점을 둔 시책으로 특징지어진다.

3. 《7.1 조치》 성공의 조건

어느 의미에서는 전환적인 의의를 가지는 이번 조치가 실속있게 추진되자면 몇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것은 첫째로, 생활비의 인상에 의하여 상승한 구매력에 맞먹게 소비물자를 확보하고 그것을 국영상업망으로 투입하는것이다.

생산부문에 대한 우대책이 은을 내여 생산과 공급이 개선되기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걸린다.그간 국가적류통망에 상품이 팔리게 된다면 상승한 구매력은 비국가적류통망에 의하여 흡수할수 밖에 없다.이것은 불피코 심한 물가상승을 초래하여 이번 시책을 초기로부터 흔들여 놓게 된다.우에서 본 기본생활비수준에 따르면 한달간의 전가계의 소득은 200 억원을 넘게 된다.그중에서 주택비나 교통비와 같이 지속적인 추가공급의 필요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여도 100 억원을 넘는 소비물자에 대한 수요가 있게 되는 계산이다.적어도 수개월이상 물의 초기물자확보전망이 서지 않고서는 안정된 가격에 의한 류통을 기대하기 어려울것으로 추측된다.경제전문가들이 이러한 타산과 그에 기초한 면밀한 준비도 없이 가격,생활비 인상조치를 단행했다고는 상상할수 없다.

조치집행후 농민시장에서의 가격이 등귀하고 있다는 보도들이 있으나 첫째로,그것이 같은 종류의 상품이라고 하여도 그 생산지와 품질등의 차이에 기인한것이 아닌가를 따져보고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로,상품의 종류에 따라서는 일정한 가격의 등귀는 충분히 예견할수 있다는것을 고려하여야 한다^{xvi}.이번 조치는 수급동향에 따라 가격을 수시로 재설정할 것을 처음부터 예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둘째로,생산우대조치가 은을 낼수 있게 생산의 물적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는것이다.

아무리 훌륭한 우대기준이 정해지더라도 그것을 달성할수 있는 현실적조건이 없이는 그림에 그린 떡과 같으며 그전과 달라질것이 없다.물론 계획자체가 현실성있게 세워지는것이 중요하지만 그 현실성은 어디까지나 예견단계에서의 그것이다.적어도 예견에 맞게 전력이나 원료가 보장되고 설비가 가동하는것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1999~2001 년사이에 진행된 련합기업소의 재편성(해체후 재조직)은 《고난의 행군》기간에 생산공정에 결손이 생기거나 전력,원료 등 그밖의 물질적조건의 보장이 사실상 어렵게 된 기업소,그리고 가동시켜도 실리를 내기 어려운 기업소들을 정리,통합하여 정상가동과 실리추구가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조치라는 측면을 가진다.또한 물자교류시장의 형성에 의한 물자확보경로의 확대는 공장의 가동률을 높일수 있는 하나의 보완적조건을 마련한 조치로도 된다.물론 과제는 많이 남아있으나 적어도 몇해동안 꾸준히 준비해온 끝에 집행에 들어선 조치로 보인다.

셋째로,이번 조치가 당면한 경제의 정상화와 함께 경제구조의 개선에 기초한 새로운 생산적양양으로 이어지자면 전반적인 기술개선이 추진되어야 하며 그러자면 자력갱생에 기초

한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대외경제교류의 획기적발전을 이루어야 한다.외국과의 경제협력과 교류는 당면한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대외관계개선을 위한 공화국의 노력이 성사되고 각종 경제적제재와 봉쇄,차별적대우들이 극복되면 우리 나라 경제건설은 보다 유리한 국제적환경하에서 그 잠재력을 발휘할수 있게 될것이다.

끝으로 이번 조치는 사회주의의 원리와 원칙의 틀안에서 진행되는 조치라 하더라도 이미 언급한바와 같이 전환적인 측면을 가지는 대담한 시책인 이상 있을수 있는 편향을 제때에 시정하고 정확한 궤도우에서 진행되도록 하는것이 특히 중요하다.한편 편향을 경계하는 나머지 중도반단되거나 유아무야된다면 그것은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대부분의 인민들이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새로운 활기에 넘쳐 일욕심을 내고 있다는 소식은 이번 조치의 성공에 있어서 매우 밝은 징조로 된다.

(2002년 10월 5일)

-
- i) 최근에 우리 나라에서 실시된 경제적조치들중에는 확인이 안되거나 그 의미를 정확히 해석할수 없는 부분이 적지않다.앞으로의 경과에 따라서는 견해를 크게 시정해야 할 필요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제목을 잠정적해석이라고 하였다.또한 제목에 (1)을 단것은 (2)가 미리 예정되어있는것은 아니지만 자료의 입수정황등에 따라서는 속편의 집필이 있을수도 있다는 여유를 남겨두기 위한것이다.
 - ii) 리장희 <사회주의사회에서 생산수단류통령역에 대한 주체적견해> (《경제연구》 2002년, 제1호)참조.이 글에는 물자교류시장의 형성문제,상사도시와 상사촌을 꾸릴데 대한 문제 등이 취급되어있다.
 - iii) 생활비란 노동자,사무원에게 그들이 자출한 노동의 대가로 지불되는 화폐형태의 보수를 말한다.조국에서는 《임금》이나 《로임》이라는 개념이 로동력의 상품화=착취관계를 반영하는 경제범주라는데로부터 20여년전부터 이 개념을 쓰지않고 《생활비》로 부르게 되었다.
 - iv) 조선신보,2002.7.26 일부,런재기사 <더 높이 더 빨리,경제부흥의 현장에서> 참조
 - v) 이러한 징조는 8월 1일에 실시된 외환시세의 변경에서 나타났고 신의주특별행정구설치에 관한 결정으로 종래와는 다른 차원으로 진입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 vi) 《7.1 조치》에 대한 설명(주3에서 소개한 조선신보등)에 의하면 조치이전에는 쌀 1키로 그램의 수매가격이 80전,판매가격이 8전이였다고 한다.또한 개정이전의 수매가격이 82전이였다는 현지에서의 설명도 있다.그러나 적어도 1980년대중엽까지는 쌀의 수매가격은 1키로그램당 60전이였다(김현숙편 《인민생활을 높인 경험》 사회과학출판사,1985.3 발행,50페이지참조)는것으로 미루어보아 이번 조치이전에도 약간의 개정이 있었던것으로 추측된다.한편 판매가격은 8전으로 오래동안 고정되어왔다.
 - vii)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서는 일찌기 《수매사업에서는 두가지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하나는 농민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리익을 주며 그들의 생산의욕을 자극하는것입니다.다른 하나는 국가에서 사다가 가공하여 밀지지 않을 정도로 수매가격을 정하는것입니다.》 (《김일성저작집》 12권, 37페이지)라고 가르치시었다.

- 이번에 설정된 농산물의 수매가격과 판매가격은 이 말씀에서 밝혀진 원칙에 부합된다. 그러고보면 이번 조치는 몇해동안의 너무나도 어렵고 비정상적인 경제상태하에서 불합리하게 된 수매가격을 타당한 수준으로 설정한 조치라는 측면을 가지고있다.
- viii) 표에 올린 생산물에 한정하여 본다면 가격인상률이 높은 차례로 휘발유 70 배, 전력 60 배, 쌀의 수매가격 약 50 배(판매가격은 550 배)로 되어있다. 휘발유와 전력의 가격이 도매가격인지, 소매가격인지 명확지 않아서 비교할수는 없으나 적어도 우에 올린 부문들에는 가격을 통한 소득의 재분배가 유리하게 이루어진다고는 말할수 있다.
- ix) 일부에는 물가와 임금을 동시에 올리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나 가령 쌀가격을 그대로 두고 생활비만 인상했다고 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것인가, 농민들의 생산의욕과 국가에로의 수납의욕은 어떻게 되고 농민시장가격과 국가의 재정부담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이여의 문제를 일체 무시한 파상적인 견해라고밖에 할수 없다.
- x) 일본메디어의 특집등에 의하면 동대원피복공장의 재봉노동자들중에는 생활비가 170 원에서 5000 원으로 거의 30 배 올라간 례도 있다.
- xi) 《생산성향상공헌도》라는 지표는 어디까지나 가정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로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 xii) 현물지표란 생산물의 성질에 따라 그 량을 표현하는 지표를 말한다. 강철인 경우는 톤, 전력인 경우는 키로와트, 작물인 경우는 메터 등. 생산액지표는 금액으로 표현되는 생산량을 말한다.
- xiii) 번수입이란 새로 창조된 소득부분을 가리킨다고 한다. 새로 창조된 소득(가치)부분이란 생산과정에서 가치가 이전되는 부분인 C(채화된 노동)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즉 V와 M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
- xiv) 일부에는 계획화를 비롯한 일련의 권한분담이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된 획기적인 조치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이러한 대책은 과거에도 실시된 일이 없지 않다. 1960년대초에는 규모가 크지 않은 국영기업소들이 도경제위원회소속으로 이관된 조치(즉 도의 권한확대조치)가 있었으며 1983 년가을에도 비슷한 조치(이때의 명칭은 도경제지도위원회, 후에 도 행정 및 경제 위원회)가 있었다. 또한 1990 년대에 들어가서는 분기계획까지는 중앙계획기관이 세우고 월계획이하는 연합기업소가 세우게 하는 조치가 실시된 일도 있다. 이번 조치의 획기성같은것을 논하자면 사실은 중앙적으로 계획화하는 지표의 종류와 수량과 같은 구체적인 항목과 그 가지수 및 비율등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아는것이 필요하다.
- xv)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편 《사회과학논문집》 제 14 호, 2002.3 발행, 29 페이지의 문답참조.
- xvi) 이번에 대딸라의 외환시세가 약 70 배정도로 인하되었다. 그러나 이 수준은 《실세》에 비하여 여전히 2 배정도 더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일부 상품의 시장가격이 공정시세와 《실세》와의 격차의 범위안에서 올라가는것은 이론적으로 충분히 있을수 있는 현상이다.

《望夫石(망부석)》전설小考

박순애

《望夫石》전설은 조선에서 오랜 옛날부터 현재까지 전달되며 널리 분포되어 있는 대표적인 설화이며 《望夫石》이라 명명된 바위나 돌은 전설과 함께 또한 널리 분포되어 있다.

《望夫石》이란 《안해가 멀리 떠나간 남편을 기다리다 죽어서 화한 바위》를 말한다.

문헌에 기록된 《望夫石》전설은 복잡한 사건이나 줄거리는 없고 아주 단순한 구성을 가진 뿐이다. 《望夫石》전설 그 자체가 기록되어 있는 문헌은 《高麗史》(卷 71 樂志 2 三國俗樂 百濟條)¹, 《新增東國輿地勝覽》(卷 34 井邑縣 古蹟條, 長興都護府 山川條)² 등이다. 그러나 《望夫石》전설은 《남편을 잃은 안해》의 설화에 얹혀 《백두산 望夫石》전설³, 《井邑詞(정읍사) 望夫石》전설⁴, 《박제상의 안해 望夫石》전설⁵, 《太宗臺(태종대) 望夫石》전설⁶, 《三梅峰(삼매봉) 望夫石》전설⁷ 등 그 면모를 부단히 변화시키면서 오늘까지 전달되었다.

《望夫石》이란 바위나 돌, 석상을 실지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만화리 산 30-2, 범서면 척과리 산 152, 부산 영동구 동삼동 해안절벽, 경주시 외동읍과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경계에 있는 치솔령,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삼매봉등 그 수는 많다. 백두산 지하에 망부석이 있다고 전설은 전하나 확인할 길이 없다.

현대까지 전하여온 《望夫石》전설들중에서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풍부하며 가장 유명한 것은 《박제상의 안해 望夫石》전설이다. 이 전설은 소박한 《望夫石》전설에 《박제상의 안해》설화가 얹혀서 성립이 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원래 《박제상의 안해》의 설화는 《박제상》설화라고도 불리우며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내용에 《望夫石》이란 바위나 석상에 대한 언급은 없다.

《望夫石》전설은 또한 그 내용과 관련된 시가를 가진다. 百齊歌謠 《井邑詞》⁸와 김소월의 시 《招魂(초혼)》⁹(시집 《진달래꽃》, 1925) 등이다.

한편 《望夫石》전설은 조선에만 존재하는 전설이 아니라 일본에도 존재한다.

그 내용은 《남편을 기다리다 못해 돌로 화한 안해》의 이야기이며九州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 분포하며 《望夫石》이란 바위도 존재한다. 《望夫石》전설 그 자체가 기록되어 있는 문헌은 있으나 중국의 《望夫石》전설¹⁰을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일본에서의 《望夫石》전설은 기본적으로 「備前國風土記(びぜんのくにふどき)」松浦郡條(まつらのこおりのじょう)에 기록이 있는 「弟日姫子(おとひひめこ)」전설¹¹=「松浦佐用姫」전설과 얹혀서 성립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 「備前國風土記」원문에는 《望夫石》에 대한 언급은 없다. 한편 「古今著聞集」、「十訓抄」、「松浦宮物語」、「曾我物語」、世阿弥의 謡曲「松浦鏡」、滝沢馬琴의 「松浦佐用姫石魂録」등이 「松浦佐用姫 望夫石」전설을 전달하고 있고 《望夫石》에 대한 기술도 있다. 일본에서 《望夫石》이란 바위나 돌, 석상을 실지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佐賀県唐津市東松浦郡呼子町の北쪽 加部島 田島神社의 末社 佐用姫神社와 佐賀県松浦川下流이다. 이 강의 下流에 있는 바위는 「佐用姫岩」(별명 望夫石)이라 한다. 또한 鎌倉에도 《望夫山》이 있다한다¹².

일본의 《望夫石》 전설은 그 대부분이 「松浦佐用姫」 전설과 얽혀있어 관련하는 시가¹³들도 그렇다.

이처럼 《望夫石》 전설은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오랜 기간 조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면서 그 내용에 유사성을 가진다. 특히 조선의 《望夫石》 전설관련설화들중에서 가장 유명한 《박제상(박제상의 안해)》 전설과 일본의 《望夫石》 전설이라 할수 있는 「松浦佐用姫」 전설이 그 내용과 구성에 유사성을 가진다.

본 론고에서는 민족도 문화도 다른 조일 량국에 공통적으로 《望夫石》이란 바위와 전설, 그리고 그 내용이 흡사한 관련 설화들이 현존하는 사실에 주목하여 조선의 《望夫石》 전설과 그에 얽힌 《박제상(박제상의 안해)》 설화와 일본의 《望夫石》 전설, 즉 「松浦佐用姫」 전설을 조일의 해당 문헌설화를 통하여 검토해 보자한다.

1. 《朴堤上(金堤上)》 설화

《朴堤上(金堤上)》 설화는 《三國史記》와 《三國遺事》, 그리고 「日本書紀」¹⁴에 그 기록을 볼수 있다.

「日本書紀」에 朴堤上の 설화가 기록이 되어있다는 것은 선행연구에 의하여 주지의 사실로 되어 있다.¹⁵사람이름이나 지명, 년대에 차이는 있으나 《三國史記》에 있는 《朴堤上》 설화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이라 할수 있다.

《三國史記》에서는 正史라는 그 특성으로하여 보다 역사적 인물중심으로 씌여진 특징을 가지는데 반하여 《三國遺事》에서는 보다 더 생동하게 주어지고 있는 설화의 특징을 가진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朴堤上(金堤上)》 설화는 《三國遺事》에 수록된 이야기가 더 유명하고 사람들에게 깊이 침투되어 있다고 말할수 있다.

특히는 그가 일본에서 고문을 당하는 장면의 묘사에 그 차이가 현저히 나타나 있다.

《三國史記》에는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묘사되어 있다.

《歸堤上於王所, 則流於木島, 未幾 使人以薪火燒爛支體, 然後斬之》

한편 《三國遺事》에는 《차라리 新羅의 개나 돼지가 될망정 왜국의 신하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하는 朴堤上の 피를 토하는 듯한 유명한 대사와 함께 갈대의 유래를 서술하여 설화의 생동성을 자아내고 있다.

박제상은 신라 19대 訥祗王(417~458)때 實在했다고 주측이 되는 사람이다.

그는 왕명을 받아 고구려에 들어가서 불모로 가있던 王弟를 데려 오고 또 일본으로 건너가서 신라 망명객으로 가장하고서 오래동안 불모로 잡혀가 있던 다른 王弟를 빼내어 본국으로 돌려 보내고 자기는 모진 고문 끝에 희생된 사람이다.

《三國遺事》 《朴堤上(金堤上)》 설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라 초기 那密王이 즉위한지 36년 庚寅(390년)에 일본이 사신을 보내어 말하기를 앞으로 침략하지 않는다는 포로 왕자 한 사람을 보내어 달라고 하므로 셋째 아들 美海를 보냈더니 돌려 보내지 않았다. 또 訥祗王때 고구려가 화친한다는 이름 아래 왕

자 寶海를 보내 달라고 하므로 부득이 보냈더니 역시 돌려 보내지 않았다. 이에 訥祗王은 아우 둘을 남의 나라에 두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 이를 안 朴堤上은 高句麗로 떠나는데 자기 집에도 들리지 않고 직행하여 栗浦바다가에 이르렀다.

그의 처는 이 소식을 듣자 곧 말을 달리여 栗浦로 쫓아 왔다. 그러나 이미 그의 남편은 배 위에 올라 일본으로 떠나 가고 있었다. 그래서 안해가 절절히 불렀더니 堤上은 다만 서서 손을 저을 뿐으로 배는 그냥 떠나갔다.

일본에 이르자 속이여 말하기를 《신라의 왕이 죄없이 나의 아버지와 형을 죽이으므로 나는 도망하여 여기에 이르렀나이다》하였다. 왜왕이 그 말을 끝이 듣고 집을 주어 편히 살게 하였다.

당시 제상은 늘 美海를 모시고 바다가를 다니며 놀고 고기나 새를 쫓아 다니며 잡아서는 그것을 늘 왜왕에게 바치였다. 왜왕은 좋아하고 조금도 의심치 않았다. 몹시 안개가 낀 날에 이미 일본에 있었던 新羅사람 康仇麗로 하여금 美海를 모셔 가게 하고 堤上은 美海의 방에 들어 가고 그가 방에 있는 척 하였다. 날이 저물어 갈 무렵에야 왕자가 없는 줄 안 왜왕은 기병을 시켜 그들을 뒤쫓게 하였으나 따라 잡지 못했다.

이에 堤上을 잡아 가두고 문초를 하기에

<나는 신라의 신하요 왜국의 신하는 아니다. 여기서 나는 우리 임금의 뜻을 성취코저 할 뿐이니 구태여 그대에게 무엇을 말하랴>고 하였다. 왜왕이 성나서 <네가 이미 오늘엔 내 신하가 되었는데 그러면서도 신라의 신하라고 하니 응당 갖은 형벌을 해야 하겠지만 만일 왜국의 신하라고만 말한다면 반드시 높은 벼슬로 상을 주리라>고 하였다.

堤上은 <차라리 新羅의 개나 돼지가 될망정 왜국의 신하로는 되지 않을 것이며 차라리 新羅의 매를 맞을지언정 왜국의 벼슬이나 록은 안받겠노라>고 하였다.

왜왕이 노하여 堤上의 발바닥 가죽을 벗기게 하고 갈대를 벤 그루터기 우를 달리라고 하였다. [지금도 갈대 우에 피자국이 있는 것은 민간에서는 堤上의 피라고 한다]

왜왕이 다시 묻기를 <네가 어느 나라의 신하냐?>고 하니 堤上이 여전히 <新羅의 신하이다>라고 하였다.

다음은 별경계 단 쇠 위에 세워 놓고 묻기를 <어느 나라 신하냐?>하니 <新羅의 신하다!>라고 역시 대답하였다.

왜왕이 그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을 알고 木島라는 섬에서 그를 불에 태워 죽이였다

처음에 朴堤上이 일본으로 떠나 갔을 때에 부인이 그 소식을 듣고 쫓아 갔다가 미치지 못하고 望德寺 문 앞에 있는 모래바닥에 와서 들어눕고 길게 통곡하니 이로 인하여 그 모래 바닥 이름을 長沙-길게 통곡한 모래 바닥이라고 하였다.

친척 두 사람이 와서 그의 몸을 부축하여 돌아 가려고 하니 부인이 다리를 뻗치고 일어 나지 않으므로 그 땅을 이름하여 伐知旨라 하였다.

오랜 후에 부인이 그리움을 이기지 못하여 세 딸을 데리고 치술령 마루 위에 올라 가 멀리 왜국을 바라보며 통곡하다가 세상을 마치었는데 그리하여 치술령 神母가 되었다. . 지금도 그 祠堂이 거기에 있다》

2. 「松浦佐用姬」 설화

唐津지방에 현재도 전달되는 「松浦佐用姫」 설화는 다음과 같다. 원문이 길고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번역문을 소개한다.

「宣化天皇二年(537)大伴狭手彦は朝廷の命を受け、任那・百濟を救援するため軍を率いて松浦の地にやって来た。狭手彦は名門大伴氏の凛々しい青年武將であつた。

物資の補給や兵の休養のため、しばらく松浦の地に軍を留めている間に、狭手彦は土地の長者の娘「佐用姫」と知り合い夫婦の契りを結んだ。佐用姫は絶世の美女であつたと伝えられている。

出船の日、軍船は次第に遠ざかり小さくなっていく。狂氣のようになった佐用姫は、鏡山を駆け下り栗川(現在の松浦川)を渡るとき、狭手彦に渡そうと持っていた鏡を落としてしまう。この栗川を鏡の渡しという。

佐用姫は海沿いに北へ向かつて走っていき、やがて加部島(呼子町)の天童岳の頂に達したが、遂に船が見えなくなってしまう。別離の悲しみに耐え兼ねた佐用姫は鏡山へ駆け登り、身にまとっていた領巾(ひれ)を必死に打ち振った。これを領振りの峯(ひれふりのみね)という。

狭手彦と分かれて五日後、何者かが佐用姫の所に通ってくる。佐用姫がその者の衣の裾に麻糸を縫い付け後を追うと、領振りの峯の沼に至った。蛇の化身だった。侍女が驚き、家に知らせに走ったが、親族と共に戻った頃には姫と蛇は死んでいた。峯の南に墓を造り、これを吊ったという」

「松浦佐用姫」 설화는 「肥前國風土記」 松浦郡條에 기록되어있어 이 설화의 하나앞에 神功皇后(氣長足姫尊)의 《新羅征伐이야기》가 또한 기록되어있다.

「昔者、氣長足姫尊、欲征伐新羅、行於此郡、而進食於玉嶋小河之側、於茲、皇后、勾針爲鉤、飯粒爲餌、裳絲爲緇、登河中之石、捧鉤祝曰、朕欲征伐新羅、求彼財寶、其事成功凱旋者、細鱗之魚、吞朕鉤緇、既而投鉤、片時果得其魚」(필자 下線)

즉 《新羅征伐》이라는 내용으로 神功皇后 의 이야기와 「松浦佐用姫」 설화가 이어져있다고 말할수 있다.

3. 《朴堤上(金堤上)》 설화와 「松浦佐用姫」 설화

각각 이 설화들은 문헌설화의 내용을 보존한채 《望夫石》 전설과 얹혀 현재까지 전해와 있다. 《望夫石》이란 바위까지 두나라에 존재한다.

이는 우리 나라 삼국시기에 있어서 도래인들이 일본에 수많은 넘어가면서 여러 문화를 전달했다는 사실과 무관계하지 않을것이다. 즉 일본의 《望夫石》 전설 성립에 우리 나라 《望夫石》 전설이 깊은 관련을 가지는 가능성을 《朴堤上(金堤上)》 설화가 시사하지 않을가 하는것이다. 인적인 류입, 류출에 따라 문학이 받는 영향, 설화의 수출, 수입등은 고대이후에도 수많은례들을 볼수 있다.¹⁶⁾

《朴堤上(金堤上)》설화와 「松浦佐用姬」설화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① 《朴堤上(金堤上)》에 대한 기록이 역사적사실이라는 가능성을 「日本書紀」가 시사하고 있고 만약 역사적사실이라면 사건의 사실 이전에 기록은 못한다. 또한 「日本書紀」에 수많은 조선의 전승이 인용되어있다는 주지의 사실도 생각할 여지가 있을것같다. 그리고 「松浦佐用姬」설화가 기록된 「風土記」의 편찬보다 「日本書紀」의 편찬이 이르다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② 《朴堤上(金堤上)》설화와 「松浦佐用姬」설화가 기본줄거리와 구성에 유사성을 띠고있다는 점이다. (表參照)¹⁷

③ 일본의 《望夫石》전설 그 자체에 대한 기록이 우리 나라보다 적다는 점이다.

설화의 유사성은 왕왕 인적교류가 없다고 추측되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 《신멜래라》같은 세계적설화가 그렇다.

그러나 《朴堤上(金堤上)》설화와 「松浦佐用姬」설화는 《望夫石》전설이라는 공통점을 통해 아주 가까운 관련성이 있다고 볼수 있을 것이다.

*이 원고는 《조선대학교 학보 17 호》에 발표한 내용을 가필, 수정한것이다.

¹ 《望夫石》에 대한 설명. 《井邑全州屬縣,縣人爲行商久不至,其妻登山石以望之,恐其夫夜行犯害,托泥水之汚以歌之,世傳有登帖望夫石云》

² 井邑縣 古蹟條는 注1 하고 전반부분은 거의 차이가 없다.마지막 부분에 차이가 있다.
《…傳登帖望夫石足跡稱在》
長興 山川 《婦巖,或稱望夫石,在億佛山腰》

³ 리명철로부터 안도현에서 리천록이 수집. 《《白頭山《望夫石》전설》》(83.4) 백두산지하에 는 하늘신에 의하여 바위가 된 천제의 아들과 산신의 딸이 있다는 내용

⁴ 《井邑詞》가사내용이 행상을 나간 남편을 걱정하여 기다리는 녀인의 심정을 노래한것과 관련하여 《望夫石》전설과 얹혀서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⁵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기록되어 있는 《박제상설화》(《三國遺事》에는 《김제상》으로 기록)에 《望夫石》전설이 얹힌 이야기.

⁶ 부산 영동구 동삼동에 있는 명승지이름.신라 태종무열왕 射候의 장소였다는 속전 (東萊府誌 所載) 에 따라 현재는 태종대라는 호칭.영도등대가 섬 남동부의 가파른 해안절벽우에

서 있고 부근에 신선대바위, 즉 望夫石이 있다.

7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에 있는 봉우리 이름이 삼매봉. 남쪽 바닷가에 약 150 만년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생긴奇石이 있다. 高麗말 牧胡의 란을 토벌할때 최영이 奇石을 장수로 꾸며 놓자 목호들이 두려워 모두 자결하였다는 일화가 전하며 장군석, 또는 망부석이라고도 부른다.

8 《樂學軌範》卷5에 수록되어 있는 《井邑詞》의 노래가사는 다음과 같다. 원문은 중세한글의 폰트가 없기에 현대조선글로 적는다.

《달하 노파곰 도다샤／어귀야 머리곰 비취오시라／어귀야 어강도리／아으 다롱디리／췌져재 너러신고요／어귀야 존대랄 드대올세라／어귀야 어강도리／어느이다 노코시라／어귀야 내 가는데 점그랄세라／어귀야 어강도리／아으 다롱디리》

9 5련 《선채로 이자리에 돌이 되여도／부르다가 내가죽을 이름이여!／사랑하던 그 사람이여!／사랑하던 그 사람이여!》筆者下線

10 久曾神昇 日本歌学体系「和歌童蒙抄」(風間書房 1972) 平安末期의 歌学者 藤原範兼가 쓴 《和歌童蒙抄》에 중국의 《望夫石》전설에 대한 고사가 宋나라시대의 《幽明錄》(유명록)에 의거하여 소개되어있다.

「…昔、貞婦ありき。夫軍にしたがひて遠く行く。婦をさなき子の手をひきて武昌の北山までおく。夫の行をのぞみて立てり。夫かへらずなりぬ。婦立ちながら死ぬ。化して石になりぬ。かたち人の立てるがごとし。そののちその山を望夫山といふ。その石を望夫石といふ」

《幽明錄》은 劉義慶(403~444)의 志怪小説로 원래 30 권이었으나 이미 소실되어 魯迅(1881.9.25~1936.10.19)의 《古小說鉤沈(고소설구침)》에 일부가 집록되어 있다.

11 秋元吉郎 「日本古典文学大系2 風土記」(岩波書店 1968) 394頁~397頁 参照

「弟日姫子」라는 호칭은 지명의 영향을 입어 어느새 「松浦佐用姫」라 변했다고 볼수 있다.

12 鎌倉 扇ヶ谷에 《望夫山》이란 산이 있다. 頼朝의 重臣 畠山重忠가 北条時政의 모략에 의하여 죽은 뒤 아들 重保도 살해되는 참상을 그 처가 산정에서 보다가 슬픔에 겨워 화한 돌이 있다는 전설.

13 「万葉集」卷第五에는 「松浦佐用姫」전설에 대한 설명과 노래들이 있다.

「大伴狹堤比古郎子(おおとものさでひこのいらつこ)、特に朝命を被り、使を藩国(とつくに)に奉る。艤棹して言(ここ)に歸(ゆ)き、稍(やや)に蒼波に赴く。妾松浦[佐用嬪面]、此の別れの易しきことを嘆き彼の會の難しきことを嘆く。即ち高山の嶺に登り遙かに離れ去く(はなれゆく) 船を望み、悵然肝を断ち黯然魂を銷(け)す。ついに領巾(ひれ)を脱ぎて之を麾(ふ)る。傍の者涕を流さざるは莫かりき。因りて此の山を號(なづ)けて領巾麾(ひれふり)の嶺と曰ふ。乃ち歌を作りて曰く」란 설명뒤에 歌番號 871~876의 노래가 기술되어

있다.

松浦縣(まつらがた) 佐用比賣(さよひめ)の子が 領巾(ひれ) 振りし山の名のみや聞
きつつ 居(お)らむ (山上憶良 5-868)

遠つひと 松浦佐用比賣 夫戀(つまごひ)に 領巾振りしより負へる山の名 (大伴旅人 5
-871)

山の名と 言ひ継げとかも 佐用比賣が この山の上に 領巾を振りけむ (5-872)

萬世(よろづよ)に語り継げとしこの 嶽(たけ)に 領巾振りけらし 松浦佐用比賣 (5
-873)

海原の沖行く船を歸れとか領巾振らしけむ松浦佐用比賣 (5-874)

行く船を振り 留(とど)みかね 如何(いか)ばかり 戀(こほ)しくありけむ松浦佐用比
賣 (5-875)

音に聞き目にはいまだ見ず 佐用比賣が 領巾振りきとふ君 松浦山 (5-876)

14 神功摂政前紀冬10月条「爰新羅王波沙寐錦、即以微叱己知波珍干岐爲爲質」以下略

同12月条分注、第1「一云」「則皇后爲男束装、征新羅時神留導之。由是、隨船浪之、遠及于新羅國中。於是、新羅王宇流助富利智干、參迎跪之、取王船即叩頭曰、臣自今以後、於日本國所居神御子、爲內官家、無絶朝貢」

神功5年春3月「新羅王遣汗礼斯伐・毛麻利叱智・富羅母智等朝貢。仍有返先質微叱許智伐早之情。是以、誂許智伐早、而紿之曰、使者汗礼斯伐・毛麻利叱智等、告臣曰、我王以坐臣久不還、而悉没妻子爲俘。冀(斬足)還本土知虚実而請焉。皇太后則聽之。因以、副葛城襲津彦而遣之。共到對馬、宿于(金且)海水門。時新羅使者毛麻利叱智等、竊分船及水手、載微叱旱岐、令逃於新羅。乃造芻靈、置微叱許智之床、詳爲、病者告襲津彦曰、微叱許智忽病之將死。襲津彦使人令看病者。即知欺、而捉新羅使者三人、納檻中、以火焚而殺」以下略

15 구체적인 내용은 고관민 《「三国史記」の原典的研究》(雄山閣), 第6節 新羅本紀の倭國關係記事 -新羅の堤上奈麻と奈勿三王子- 參照

16 「源氏物語」에 당시 발해사람이 등장한다. 「そのころ、高麗人(こまうど)のまゐれるが、中にかしこき、相人(さうにん)ありけるを」、「光る君といふ名は、高麗人の、愛(め)で、聞(きこ)えて、つけたてまつりける」等.

《망부석》 전설 관련설화		
설화이름	박제상설화	松浦佐用姫説話(まつらさよひめ)
등장인물	박제상, 그의 안해, 친척, 신라왕, 신라왕자, 왜왕	大伴狭手彦(おおとものさでひこ) 弟日姫子(おとひひめこ) = 佐用 姫、親族
남편의 형상	볼모로된 왕자를 일본까지가서 제 목숨과 바꾸어 구원하는 용감한 애국자	조정의 부름에따라 신라<토 벌>에 나가는 용감한 애국 자
안해의 형상	떠나간 남편을 룰포바다가까지 쫓아옴. 기다리다 죽어서 치술 령神母로 됨. 친척이 사후처리 를 해줌.	떠나간 남편을 鏡山, 天童岳 까지 쫓아옴. 기다리다 뱀의 화신에게 홀리어 죽음. 친척 이 사후처리를 해줌.
지명유래설화	장사 벌지	領巾振峯(ひれふりみね) 鏡の渡り
<망부석>有無	없음	없음
사건이 전개된 해	417년	537년

편집발행 在日本朝鮮社会科学者協會
中央常任理事会

〒112-8603 東京都文京区白山 4-33-14
TEL/FAX 03-3816-4335
e-Mail sahyob@iris.ocn.ne.jp
발행일자 2002년 10월 10일